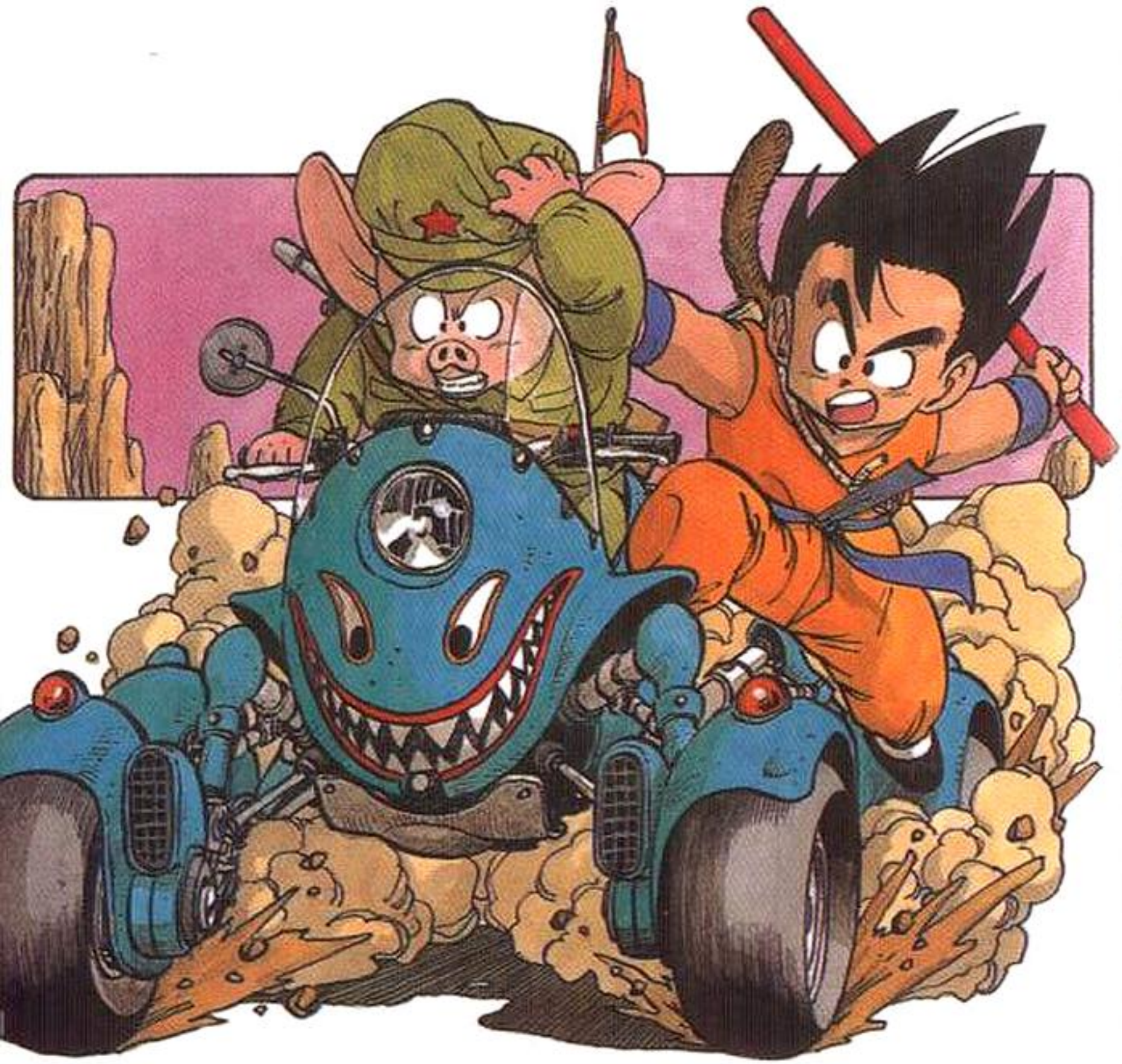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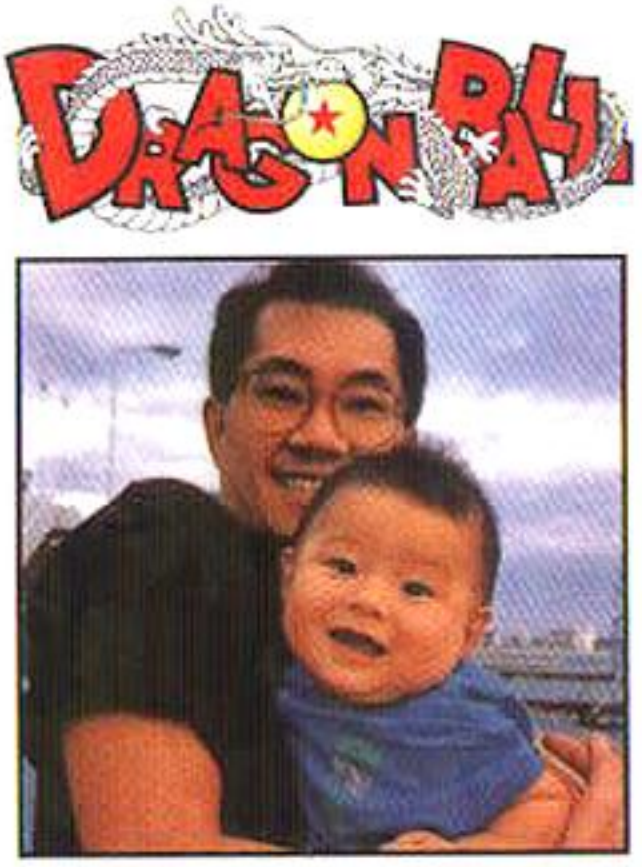
드래곤볼

AKIRA TORIYAMA



11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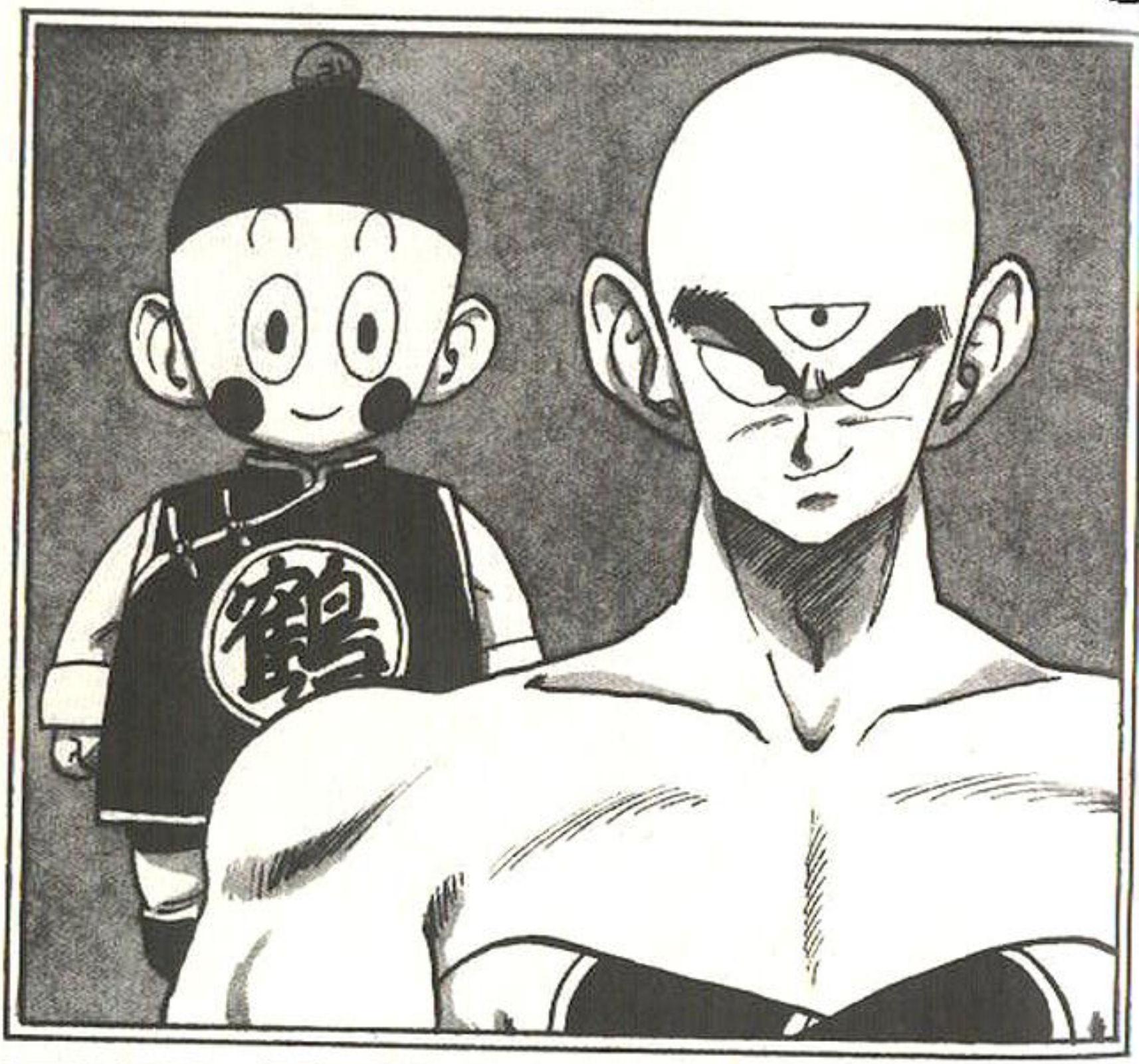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처음으로 단행본의 이 부분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랑 아들인 사스케입니다. 아이의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걸 보니, 거의 아들 자랑하는 팔불출이 다 되었지만, 이 칸에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것도 힘들고 해서 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군요. 이제부터라도 이런 패턴으로 갈까나~! 하는 식의 뻔뻔스러움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고양이 깜장과의 사진이나, 강아지 마토와의 사진을…. 으-음, 이거 간단해서 좋은걸.

a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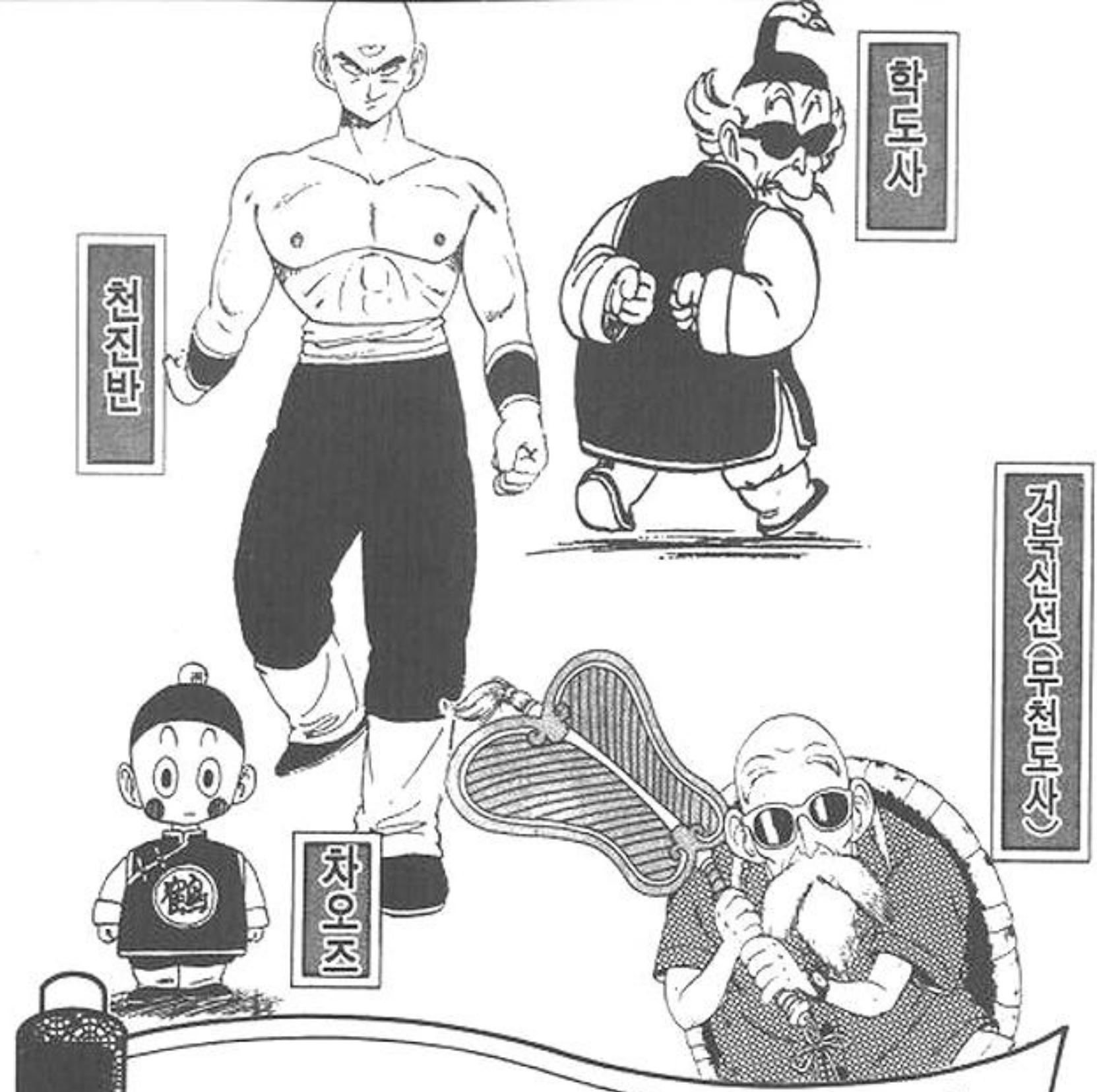
제11편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AKIRA TORIYAMA

SCO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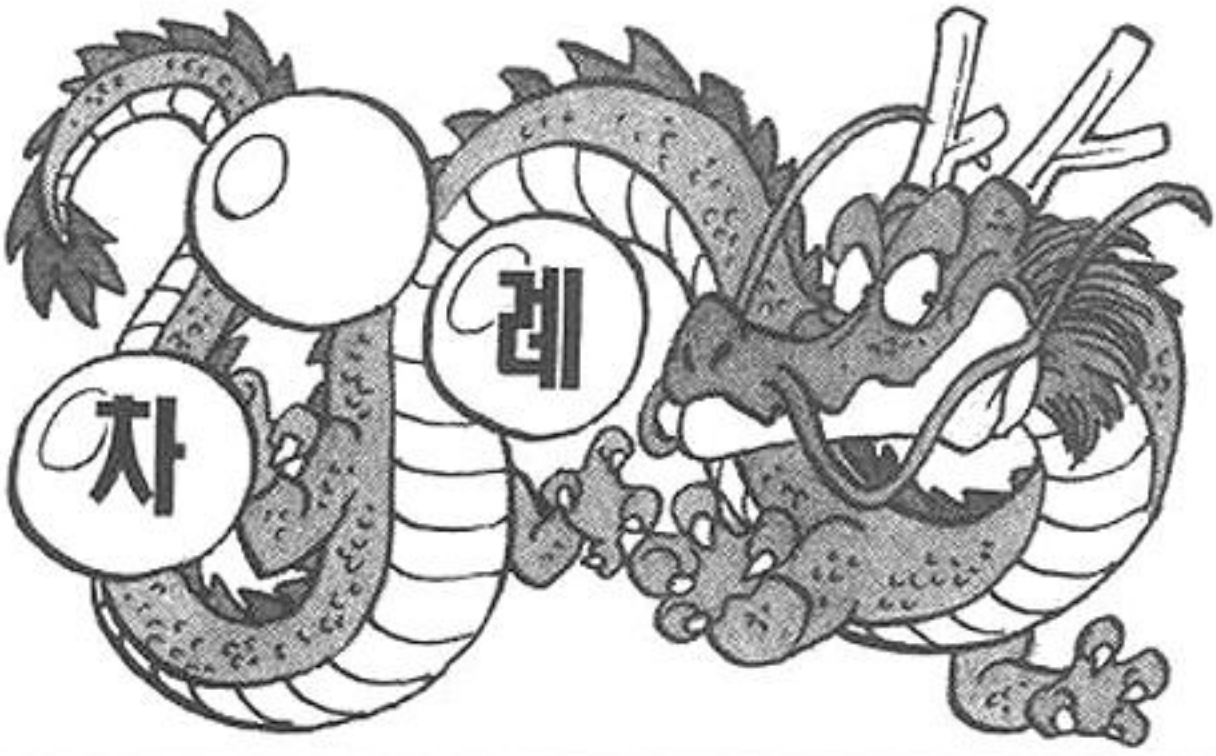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부르마와 손오공은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대 모험 끝에 겨우겨우 모든 구슬을 모았지만, 악당 피라후에게 뺏겨버린다. 그래서 오공과 친구들은 여자 팬티라고 하는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모험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알게 된 우파의 아버지를 용신의 힘으로 되살려준 오공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수련한다. 그리고 3년 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그리운 친구들과 재회하게 되는데!!

DRAGON BALL 11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제121화 크리링의 대작전 7
제122화 손오공 출전!! 22
제123화 막상막하의 실력!! 37
제124화 젊은 천진반 51
제125화 손오공 대 크리링 65
제126화 손오공의 파워!! 80
제127화 크리링의 작전, 오공의 작전 94
제128화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108
제129화 배구권과 전투 파워 122
제130화 서두는 천진반! 136
제131화 천진반의 고뇌! 151
제132화 학도사의 염원, 기공포!! 166
표지 페이지 대특집 X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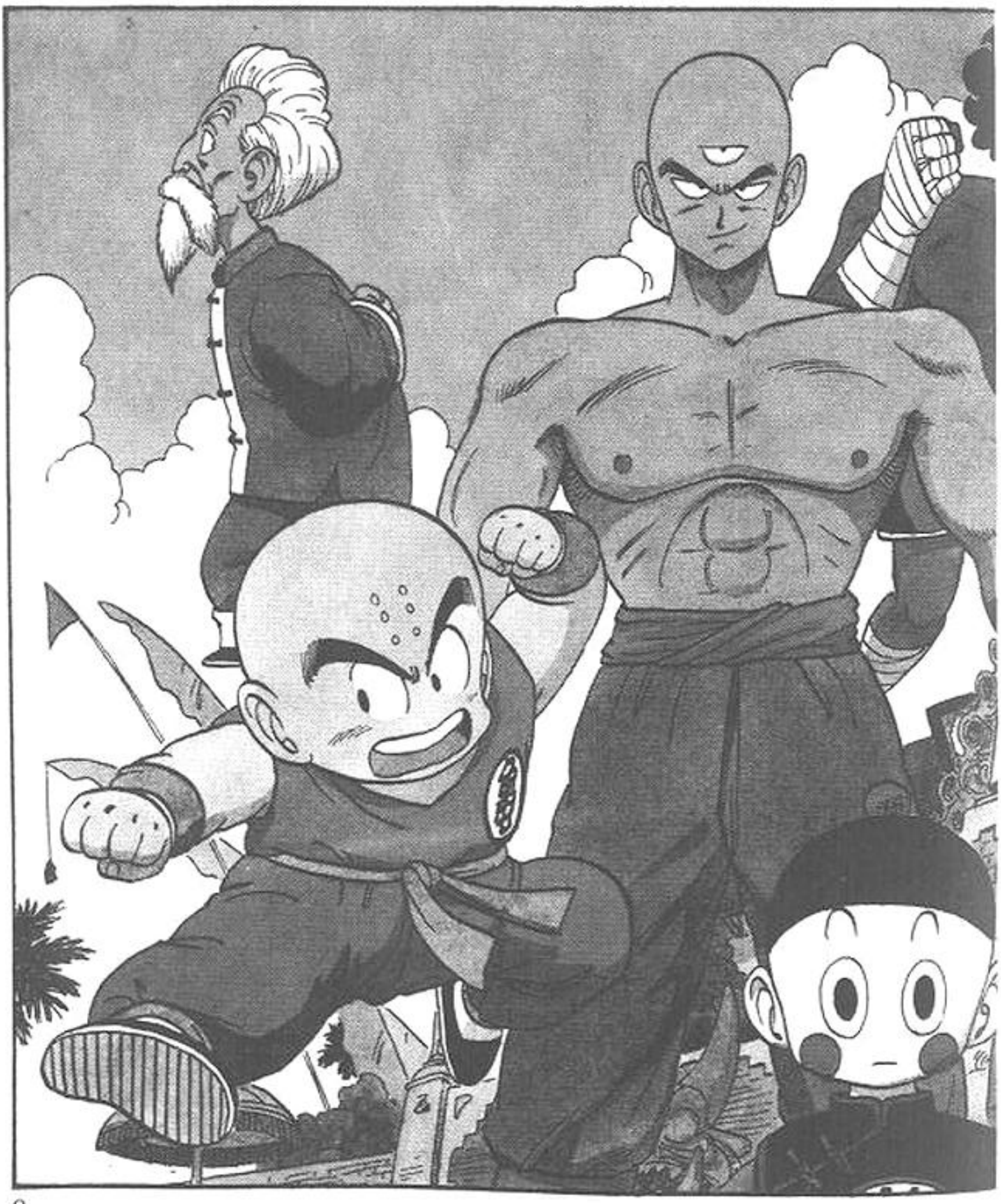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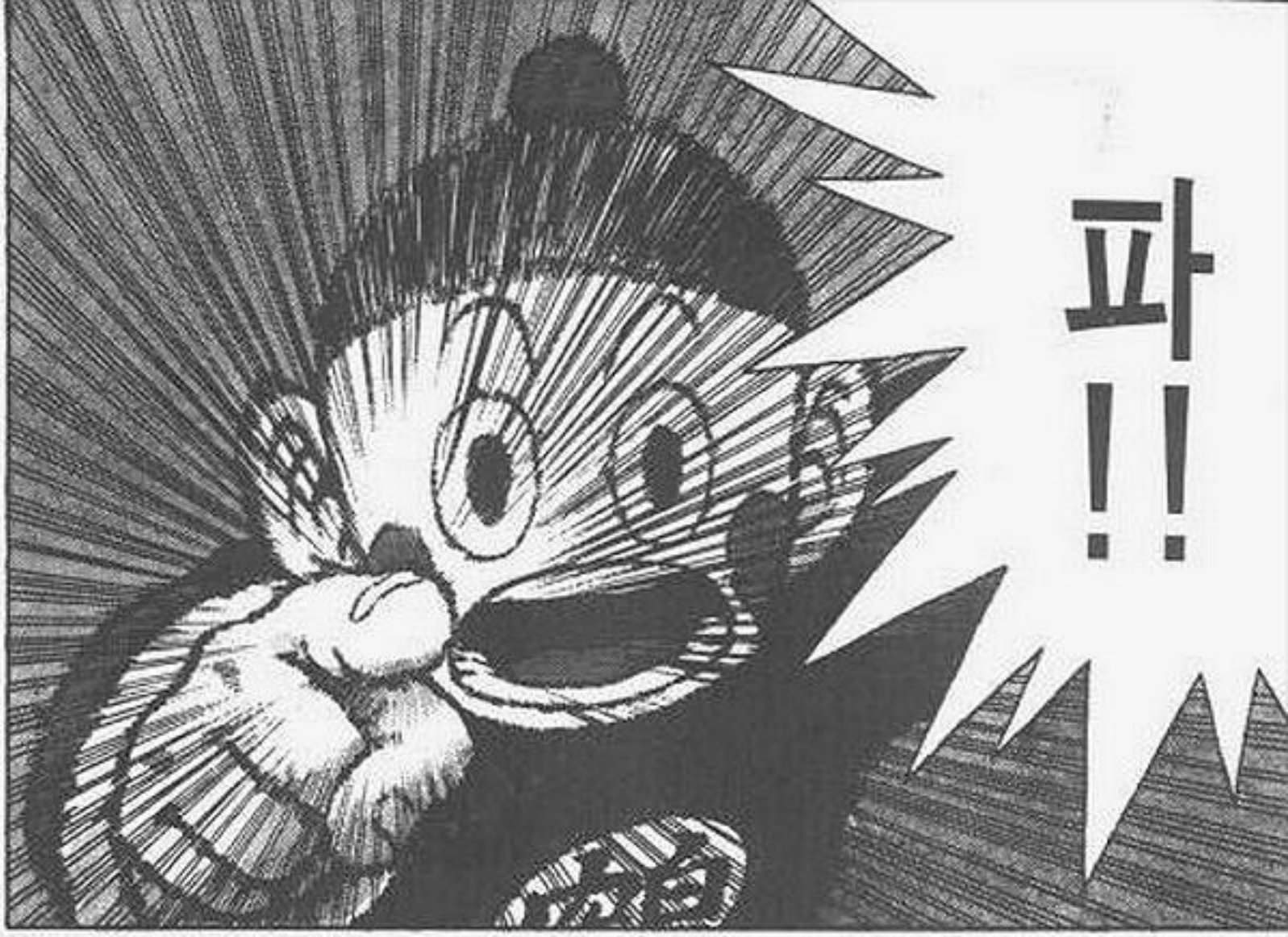
크리링의 대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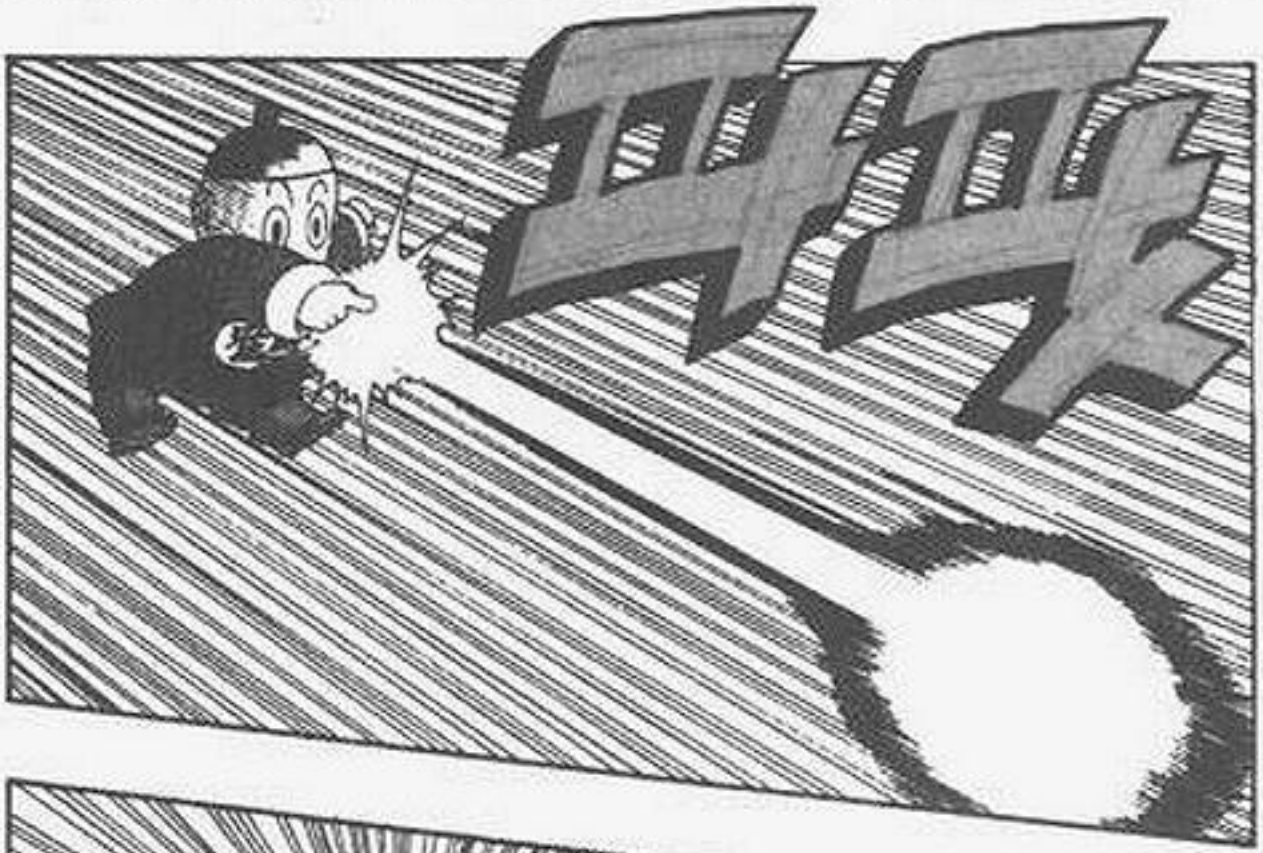
제121화
크리링의 대작전



DRAGON BALL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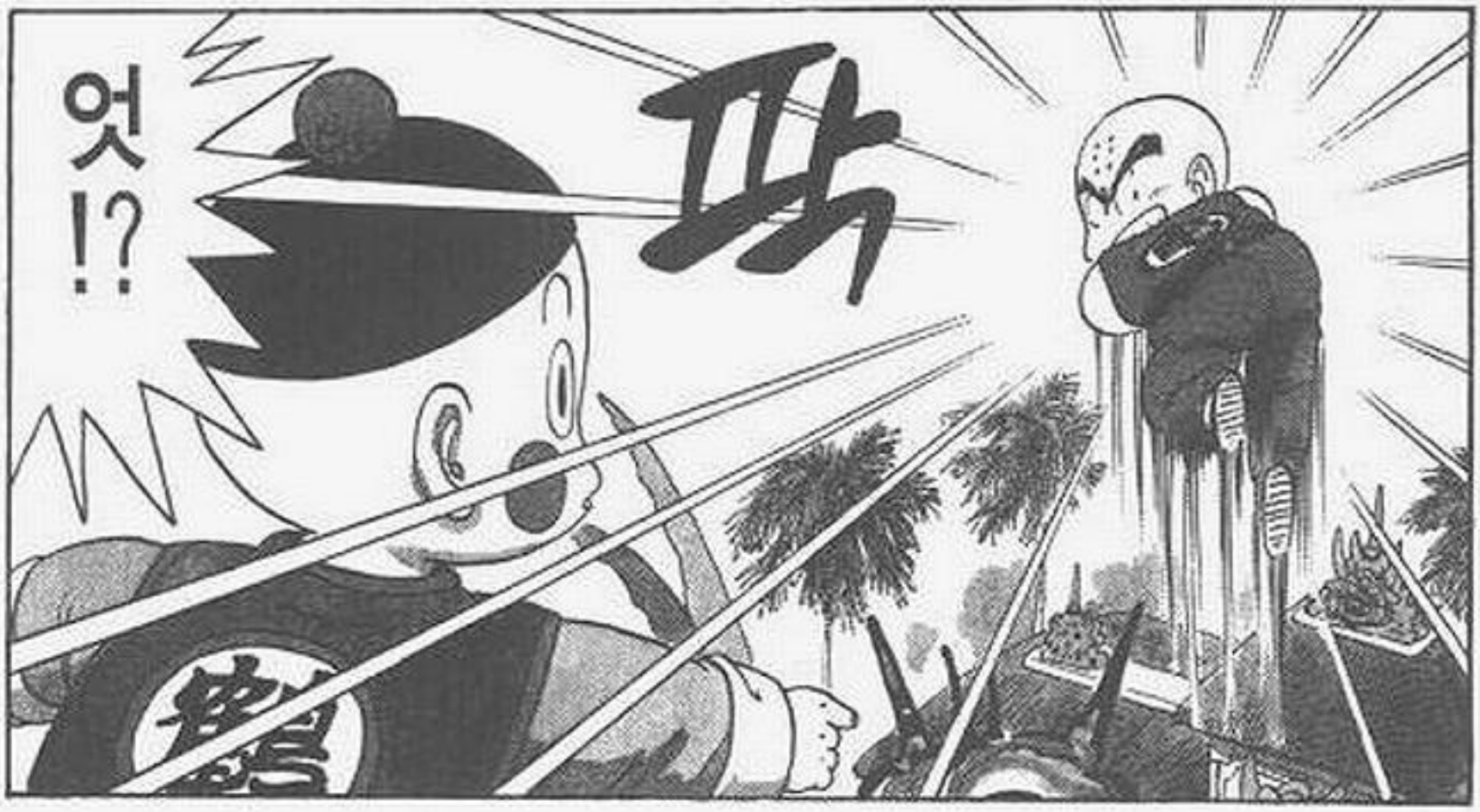

콰콰쾅


히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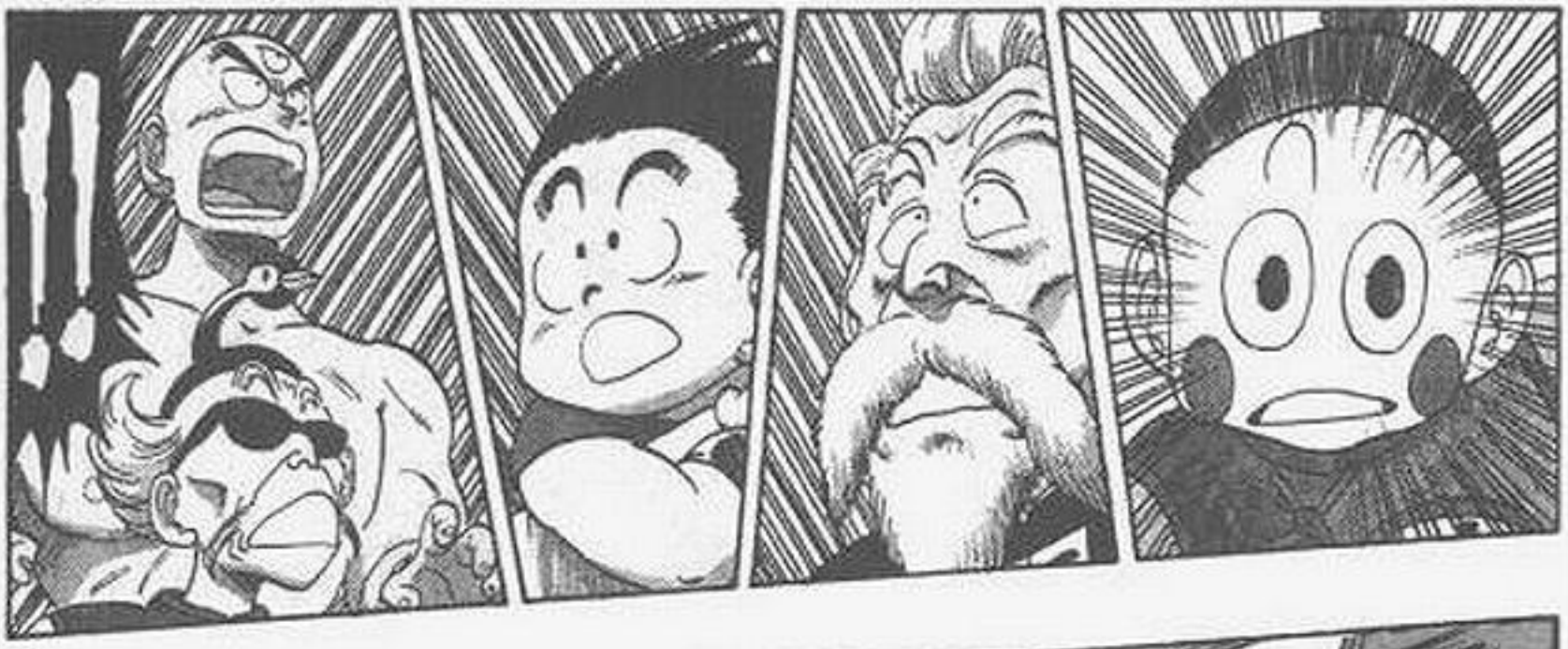

지금이다!!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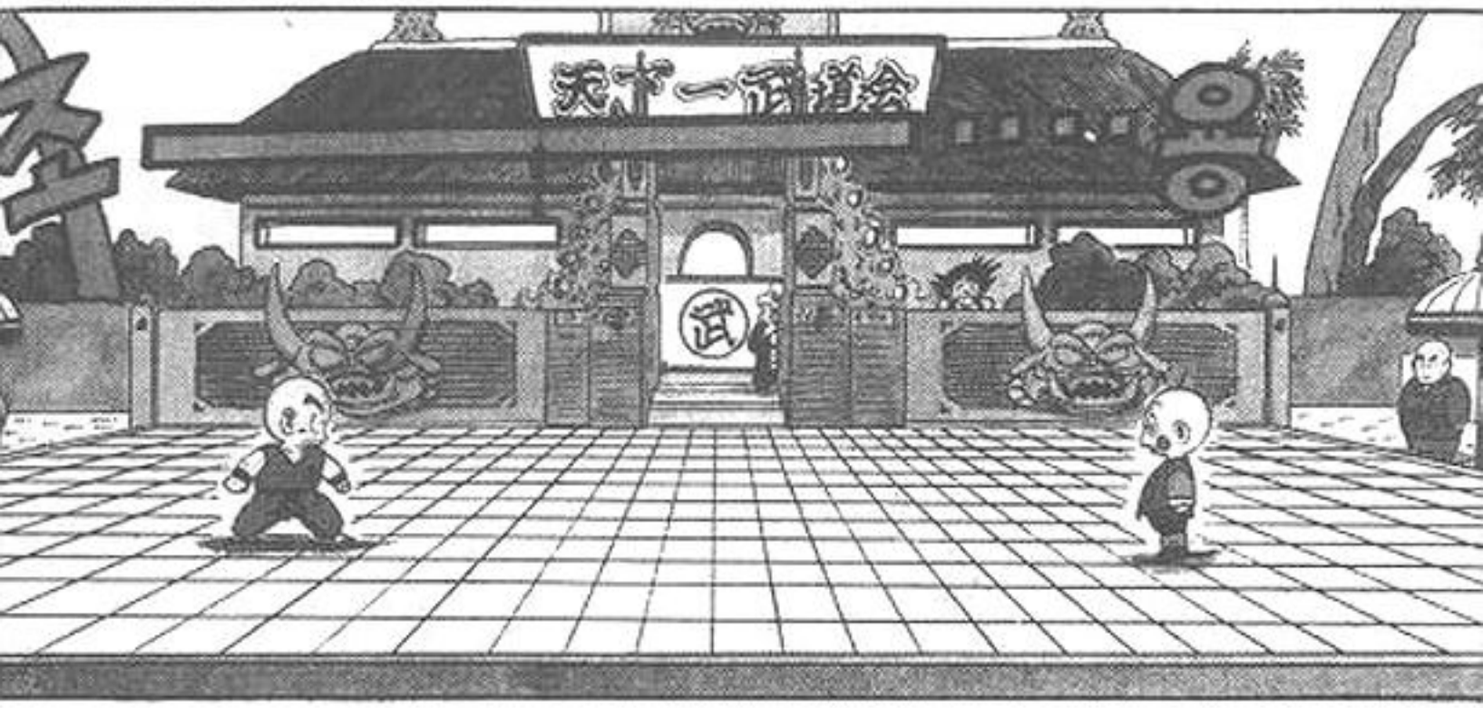

엇!?
파


파!!
꺄아아




이겼다!!


멈쳐
장외로 떨어진다!
휘…앙
훨훨
타탁
에네르기파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 일격에 완전히 승부가 났을 텐데.
대단한 실력을 보여 주는구나. 크리링…!
조금만 더 갔으면 이기는 건데, 또 떠오르다니…!
제길~!
탁…
헉! 헉!


天下一武道会
武


타타
야앗!!


놀라운 놈이다…. 그 순간에 도동파를 피하면서 공격을 하다니!


퍼엉


부웅


탓!

얏!!

억!?

억!

으…!
아야야…!

가…,
갑자기
배가 아파…!
어이쿠…!

크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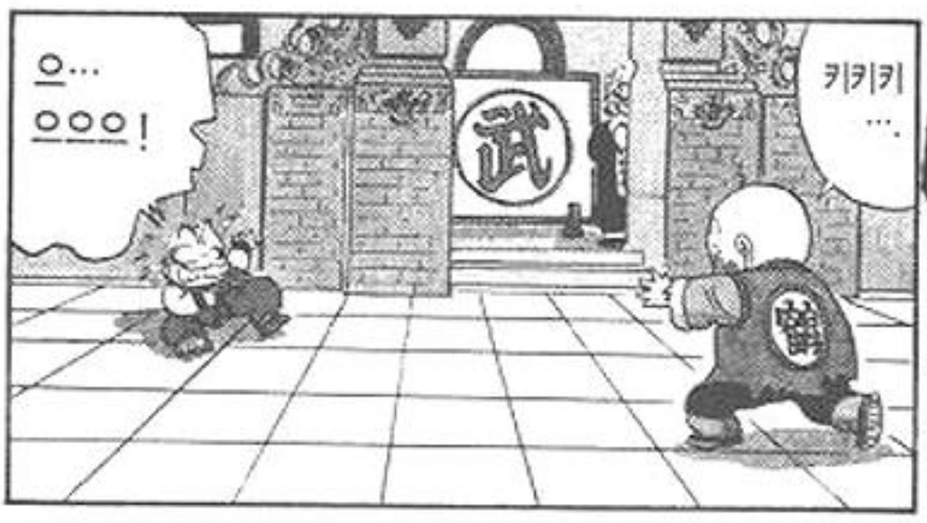
무슨
일이야!?

또 이상한
술수를
썼군!


크으으…!
너… 너…!
제길!
초, 초능력
인가…?
예!


하지만, 장외로
보내진 마!
질질 시간을 끌며
고통을 주다가
끝내 버려라!
차오즈
잘 한다!
이제 우리
승리다!


파아
으!


으…
으으으!
키키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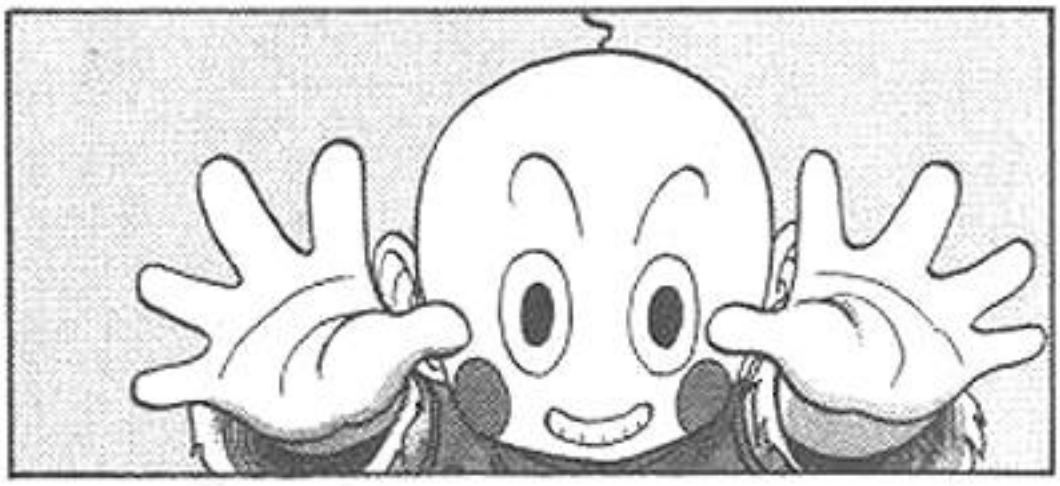

꽈


비…
비겁한
놈…!
제…
제길…!!

내…
내 머리가
축구공이냐!

아야야….
으…
으윽…!

죽을
때까지
차버릴 테야.





저 펼친
양손바닥에서
초능력이…!
그래서 녀석은
킥밖에 못하는구나!

그…
그래!

뭐!?

잠깐!
3 더하기
4는!?

그렇다면…,
저 손만
치우게
하면…!

자,
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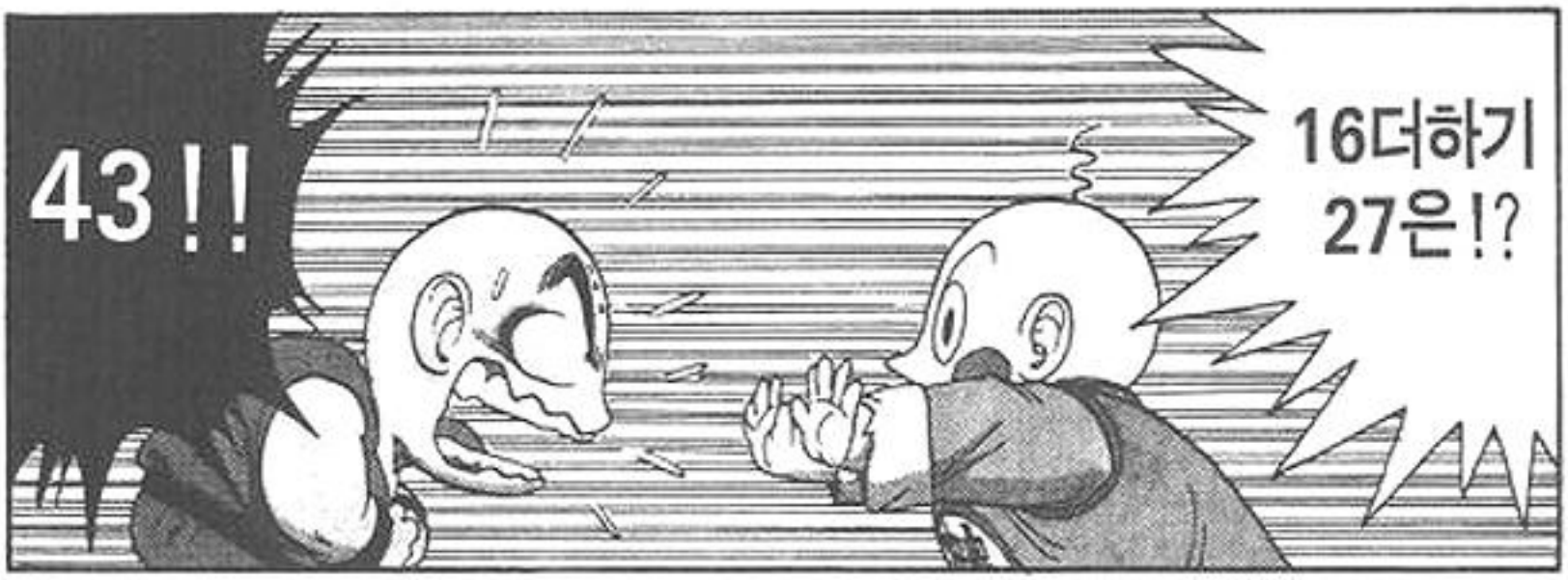
3… 4…
5… 6….

응…,
그러니까….



뭐뭐
됐다!
쉬억
타탓
우우욱 …!!
!!
바, 바보같이 저런 엉터리 속임수에 걸려들다니!
후우!
크으으 으윽!
삭


끄으으으…!!
보답을 해주마.
감히 날 속였겠다….


43!!
16더하기 27은!?


9빼기 1은!?


!!


빼액


아아아….


GAN!
장외! 크리링 선수의 승리-!
답은 8이야…!
잘했어, 크리링!
와-아
훌륭하다…. 크리링 녀석. 몰라보게 늘었구나….
와-와-
…….
으…, 산수도 가르쳐 줄걸….

제122화
손오공 출전!!



그러면 제4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명의 선수 모두가
선을 보이는 셈입니다!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천하제일 무술대회도
제4시합까지 진행되고,
드디어 손오공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저 친구, 얼굴은 순진해 보이는데, 엄청 뒤네.
와 와
……
펌프트 선수는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외의 두 세계 무술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 대회에서 우승하여 그야말로 세계 완전제패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저 녀석! 그렇게 대단했나!
그랬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다 생각했더니, 그 유명한 초천재 격투가 선수였군….
응응
응응…

그러면 상대할 손오공 선수 나오십시오!

열심히 해야지!

너, 너! 운 엄청 나쁘구나. 첫판에 저런 놈을 만나다니….

뚝

와 와

지면 안 돼, 오공!

그래!

그야말로 쟁쟁한 실력파들의 대결입니다! 이건 멋진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와

3년이나 지난 이번 대회에선 어떤 시합을 보여줄지!?

손 선수 역시 무천도사의 제자 중 한명으로, 지난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와 와




아님
피할 시간이
없었던 거냐?
과연…!
피하지
않는구나.

히죽!


좋아!
갑작스럽지만,
불쌍하니까
솜씨를 약간
보여주지.
아무래도
넌 날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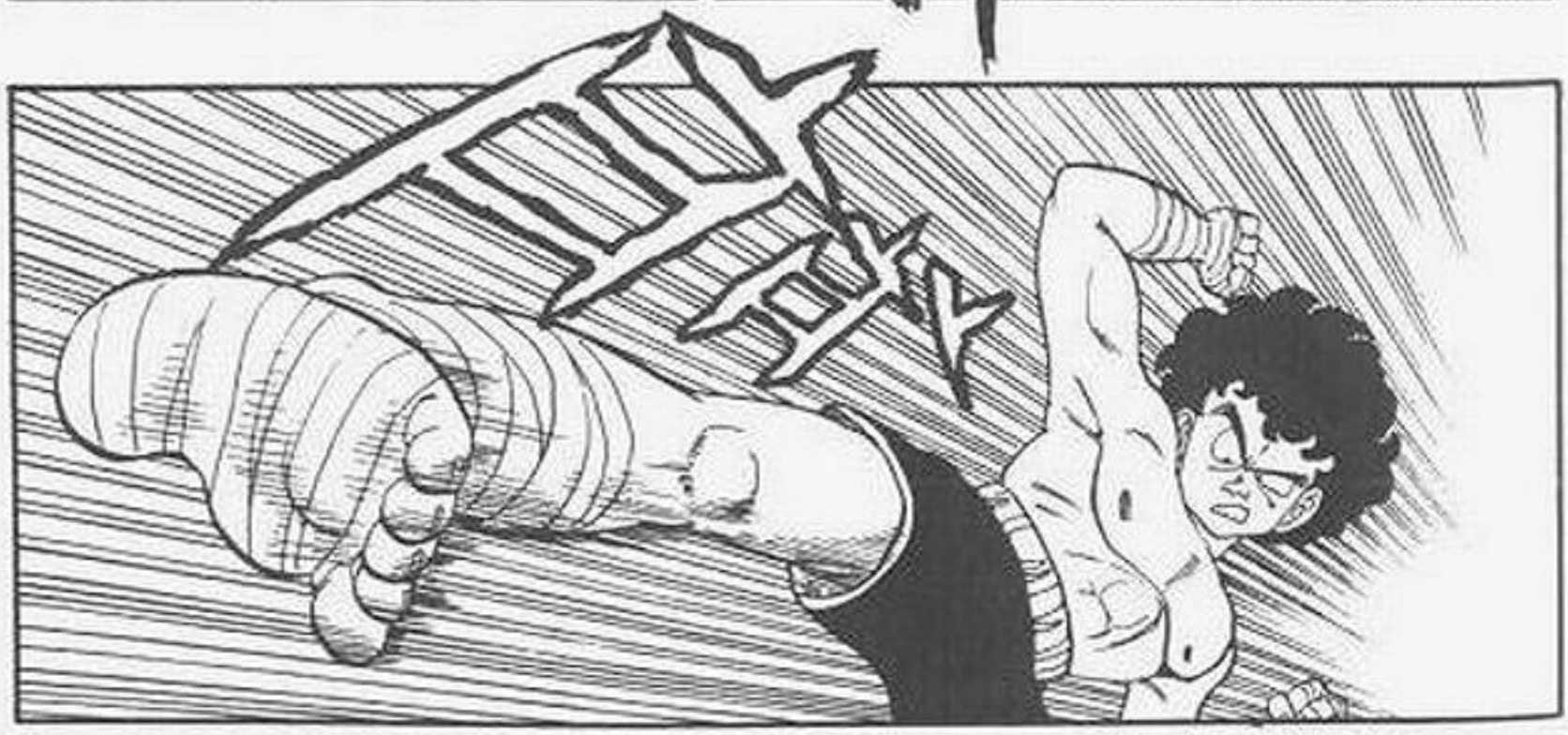
뭐!?
별로 대단한
펀치 같진
않은데.




아, 예….
시간 좀 주세요.








하이얏-!
파바밧
타다
이야앗!!

우와…!

무…
무서버….

어때? 이제
내 실력을
좀 알겠어?

무너져서
겨우겨우 다시
고쳤는데….

덕분에
시합 보기가
쉬워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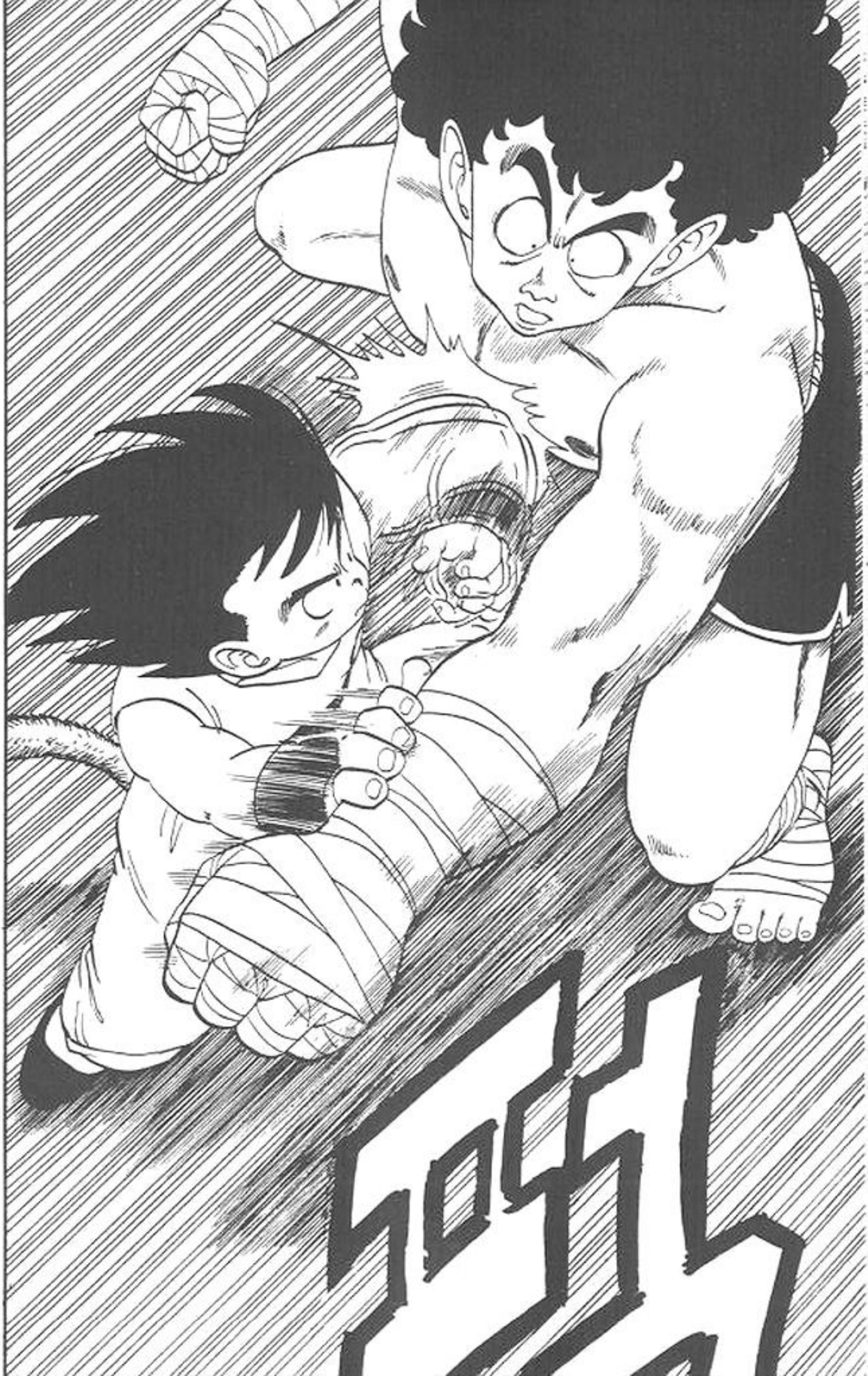
쇼맨쉽이
대단
하네요….

그럼
됐어.

응!


제4 시합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뭐, 시합이나 잘봐.
하지만 저놈, 생각보다 대단치는 않은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단 30초만에 끝내주마.
30초!
잉성 잉성…
와글 와글
꾸벅
그럼 시작 하십시오!
자, 흥미로운 시합입니다! 과연 펌프트 선수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손오공 선수가 이길 것인가!?
와—
와—


얍!


Uuu...

ㅇㅇㅇ…

퍽퍽퍽…

우…!

우…!

털썩…

이…

이럴 수가….

……!

가… 기절…!

소, 손 선수의 승리…!

단 한방입니다!
순식간에 단 일격으로
강적 펌프트 선수를
작살내버렸습니다!

와
와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시합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일격이
아니야!

짝 짝짝

손오공,
멋쟁이!

와 와
와
짝 짝

이제 겨우
진짜 재밌는
대회가 된 것
같네요….

역시나….
진짜로
타오파이파이를
이겼는지도
모르겠군….

저 꼬마…,
보통내기가
아니었네….

상대의
빠른 펀치를
오른손으로
쳐내면서
왼쪽으로
팔꿈치 공격을
세번 연타로
퍼부었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 아냐?

난 꼭 이길 줄 알았어. 그 펌프트란 친구,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더라구!

헤헤 헤….

짝

캡이다, 오공!

너희들이 보기엔 별 볼일 없는 선수로 보이는 거지….

펌프트는 분명 놀라울 정도의 달인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범한 사람이 볼 때 그런 거고….

호호호….

그렇지 않아.

예?

그만큼 너희들이 상식을 초월한 실력을 몸에 익혔다는 얘기야.

나도 그 꼬마에게 꽤 고전했는데요?

그치만…, 나랑 실력이 비슷한 야무치도 졌고….

상대도 상식을 초월한 고수들이었으니까.

그야 어쩔 수 없지.

꼭 이겨, 할아버지!

이런, 내 차례군.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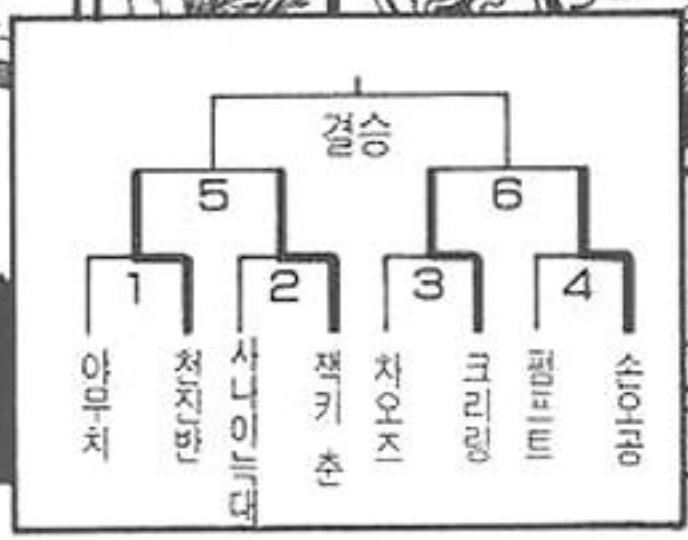
그럼 이제부터 준결승인 제5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시합의 승자 천진반 선수 대 제2시합의 승자 잭키 춘 선수-!

와-

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구나….



와 와 와

武

우리가 그렇게 강해졌나…?

그, 근데….

이 영감도 고수다…. 방심하면 안 돼….

제123화
막상막하의 실력!!



자,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지난 대회의 우승자
잭키 춘 선수와….

압도적 파워를 지닌
천진반 선수!
진짜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와
와
와

뚜둑

한 번
보여
주시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시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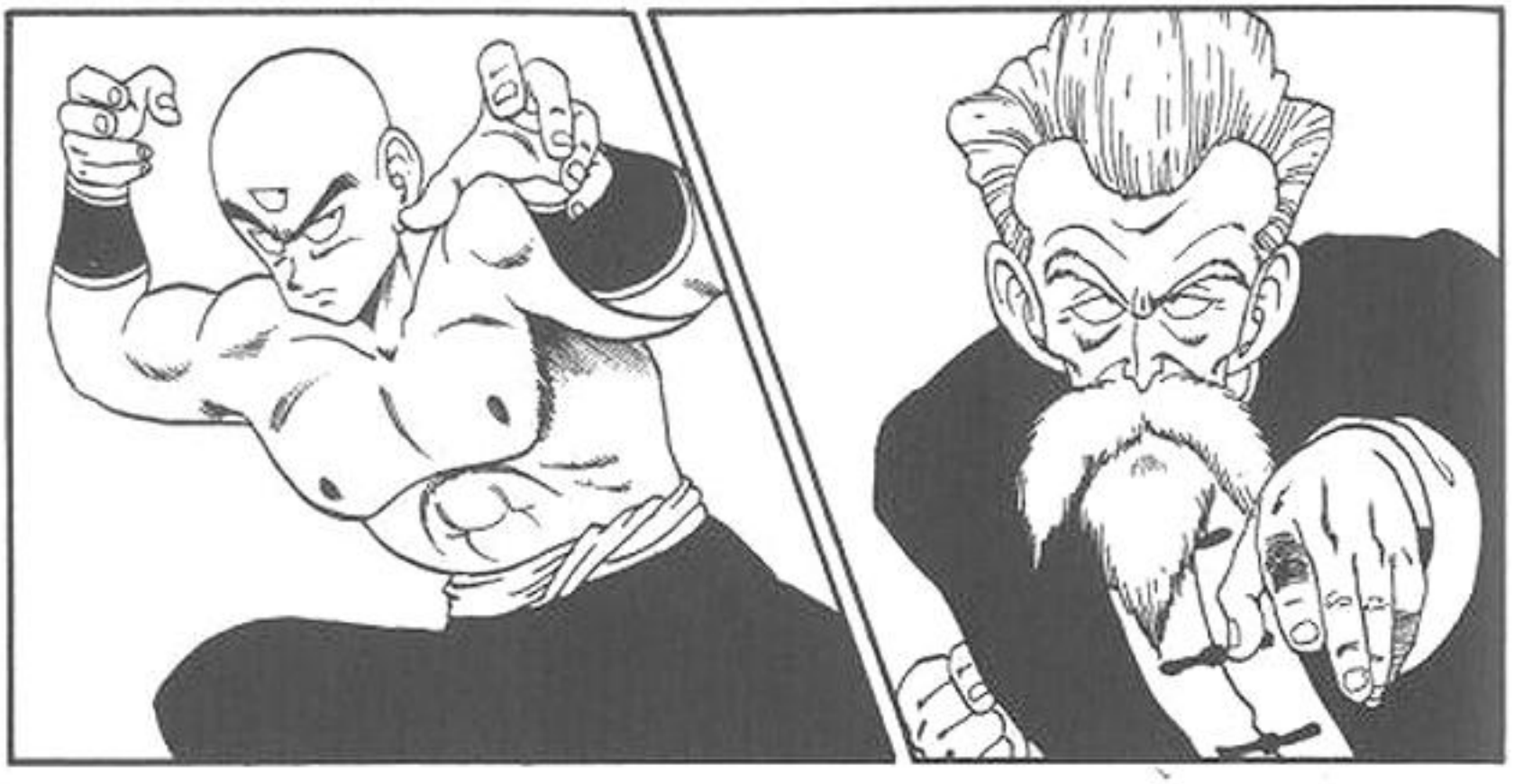
그럼!

야무치의 원수!
어디 죽을
똥을 싸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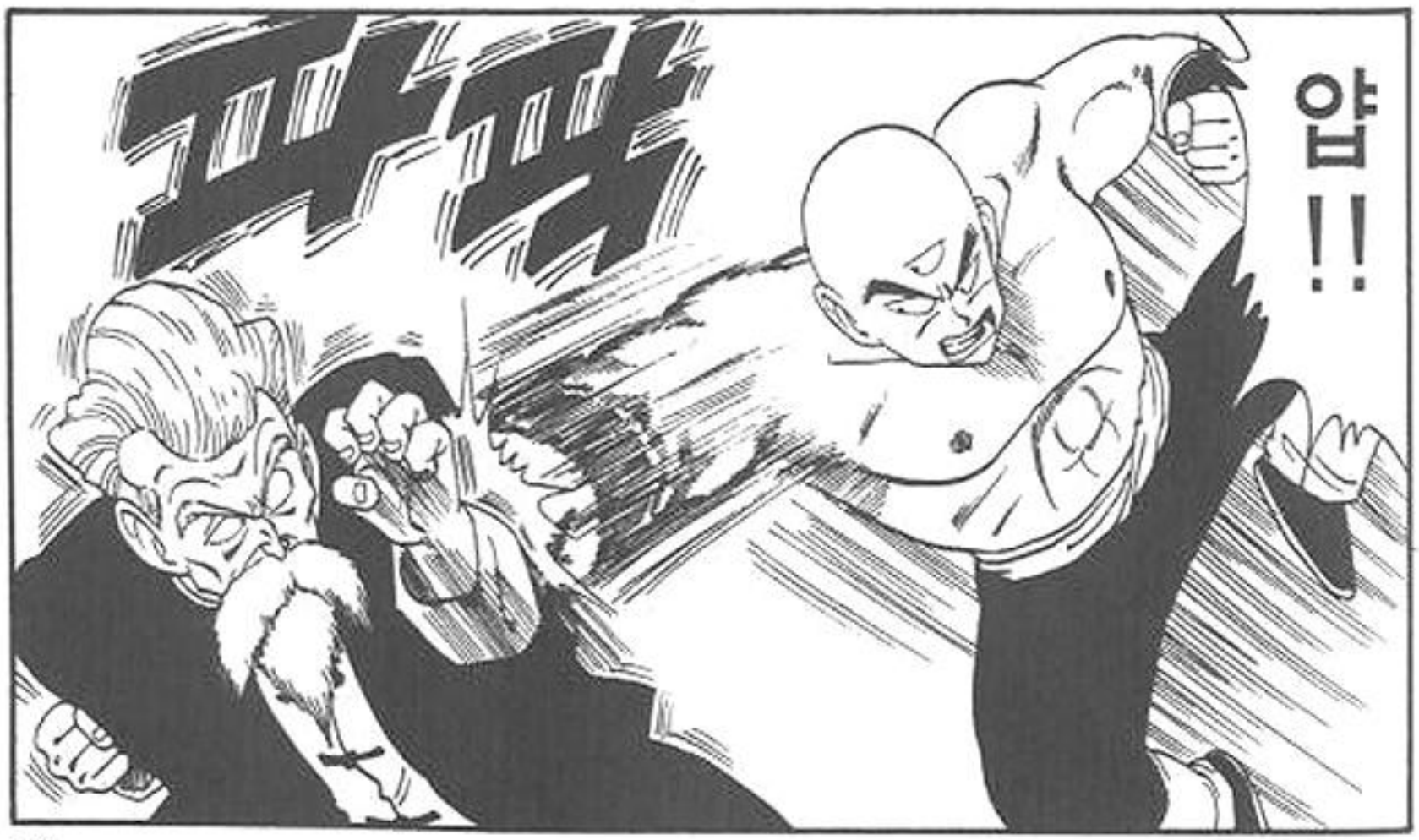
헤헹!
저 녀석,
잭키 춘에겐
못당할걸!

응?
뭐가?

아니,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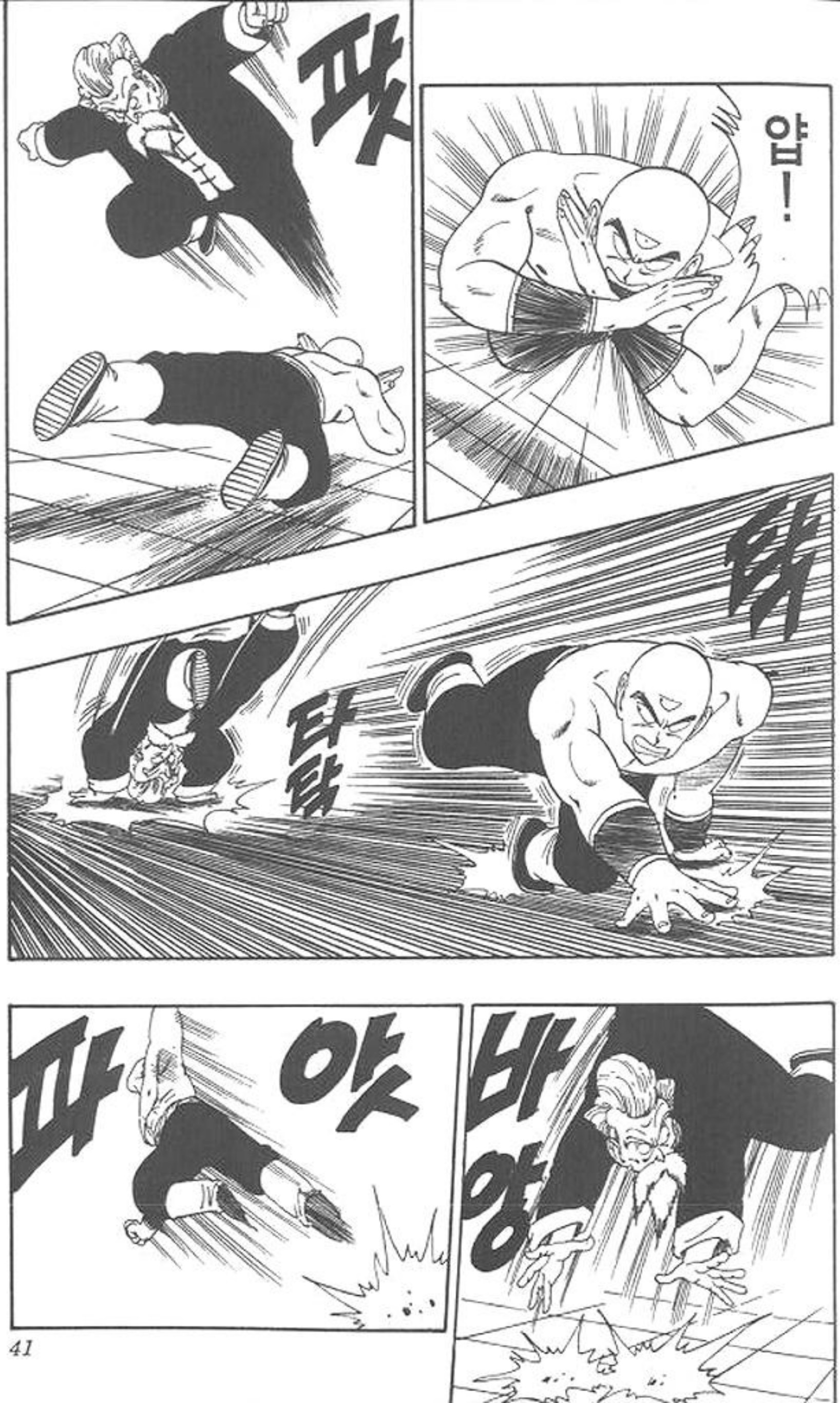



그…
그래…?
막상막하라서
어느 쪽이
이길지 몰라….
아무튼
저 천진반이란
사람의 실력은
너무나
무시무시해….


파파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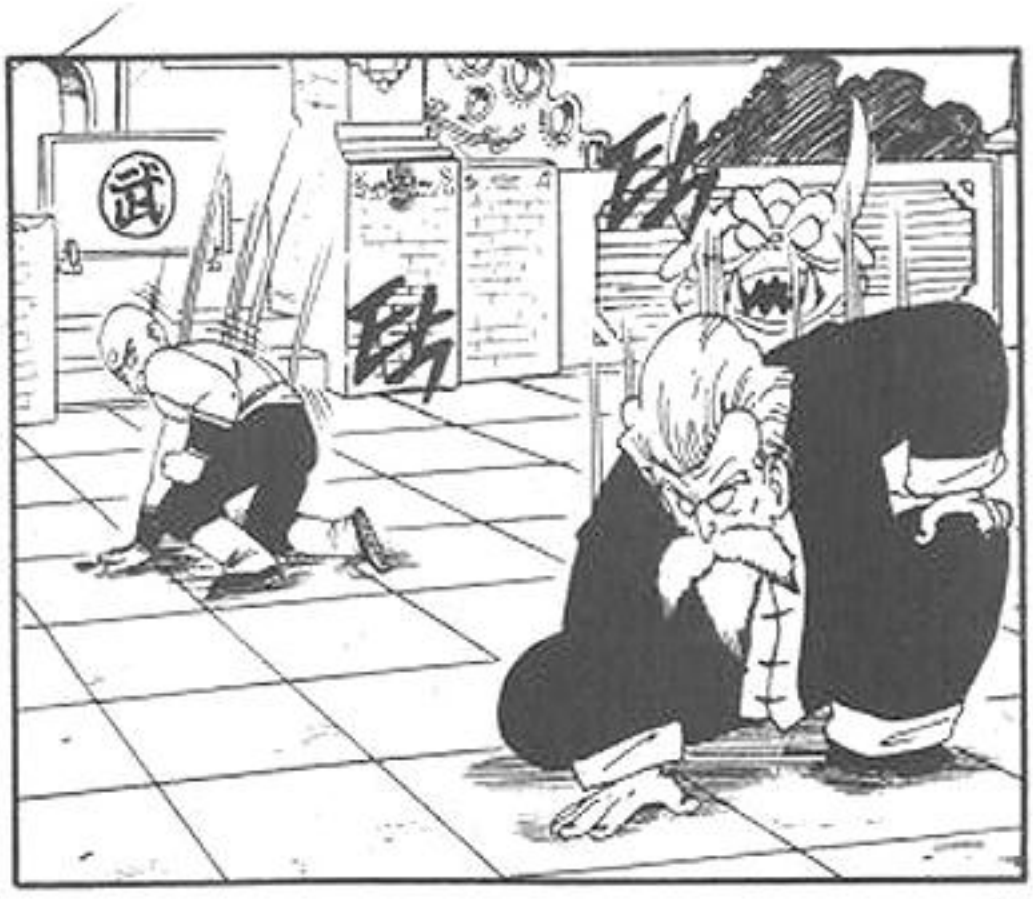
슈슈
탁
에잇!
부웅
방글
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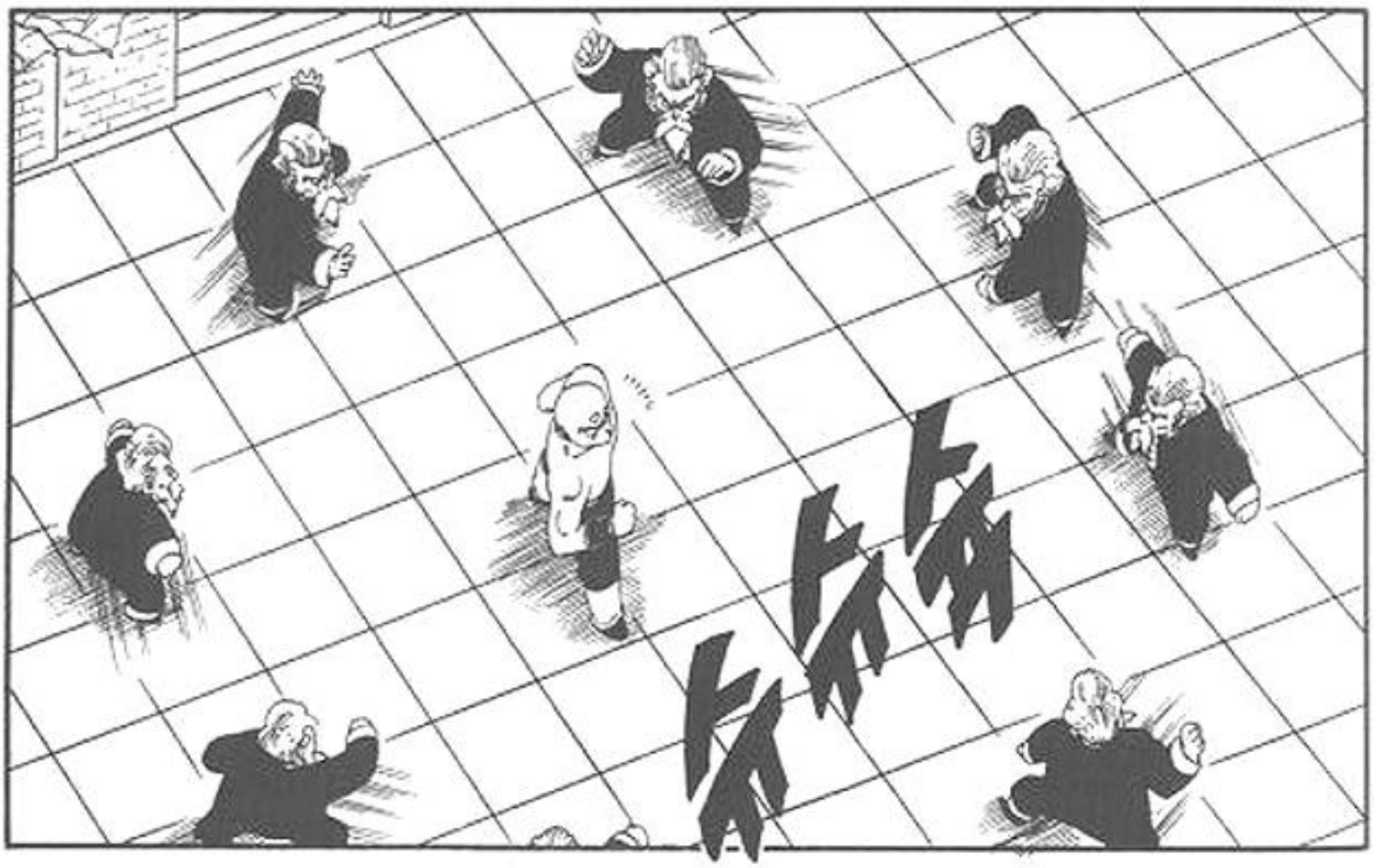
팟
얍!
타탁
타탁
바앙
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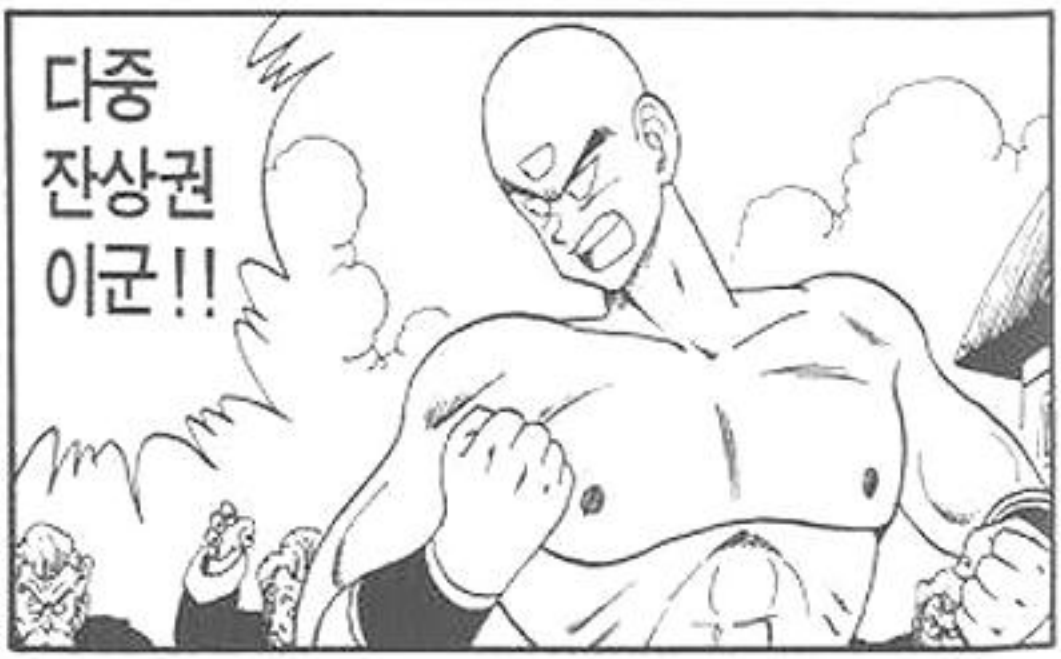

에잇!!


武








다중
잔상권
이군!!


사삭
여기닷!!
콰앙
!!
ㅎㅎㅎ
….
내 세 눈에는 속임수가 안 통해….
과연…! 보통이 아니로군….
그렇다면 나도 젖먹던 힘까지 내야겠는걸….

와라!

꽈꽈꽉

휙

이 손의 움직임이 보이나?

노인네라고 안 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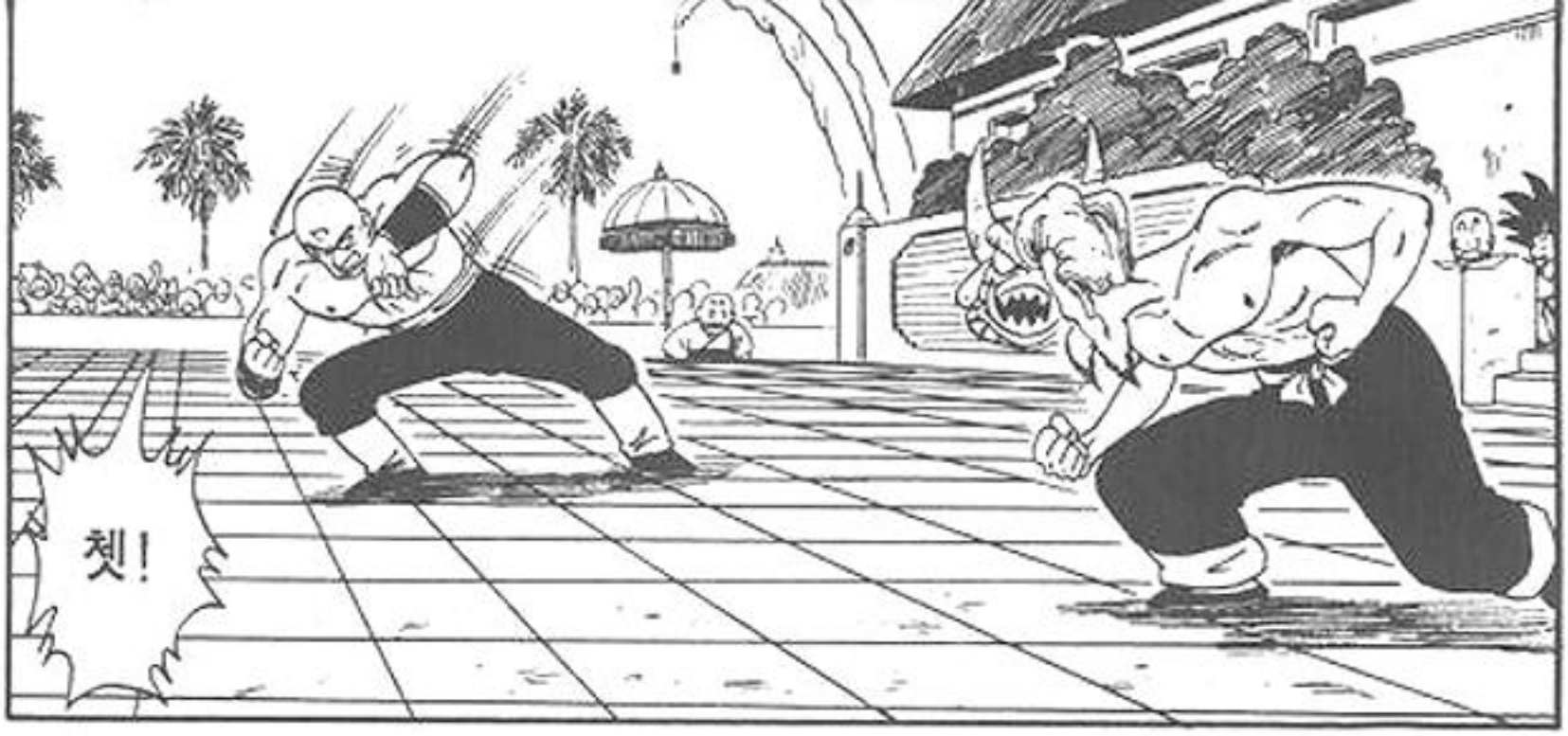


퍽
퍽
퍽
퍽


휙…
잘한다!!
이노…옴~!
탁


뭐여!?
!!
HOHOH


이야앗!!
파팍
쑥
파악
파팟











다음은, 제124화 젊은 천진반

왜 항상 확도사 따위나 따라다니는 거지?

넌 그런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내 스승님을 욕하면 가만 안 둔다!

당신은 알 필요 없잖아!

그냥 안 두는 게 어떤 건데?

호오!

너무도 격렬한 사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잭키 춘과 천진반 선수! 승패의 향방은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진 실력발휘를 안 했단 거야?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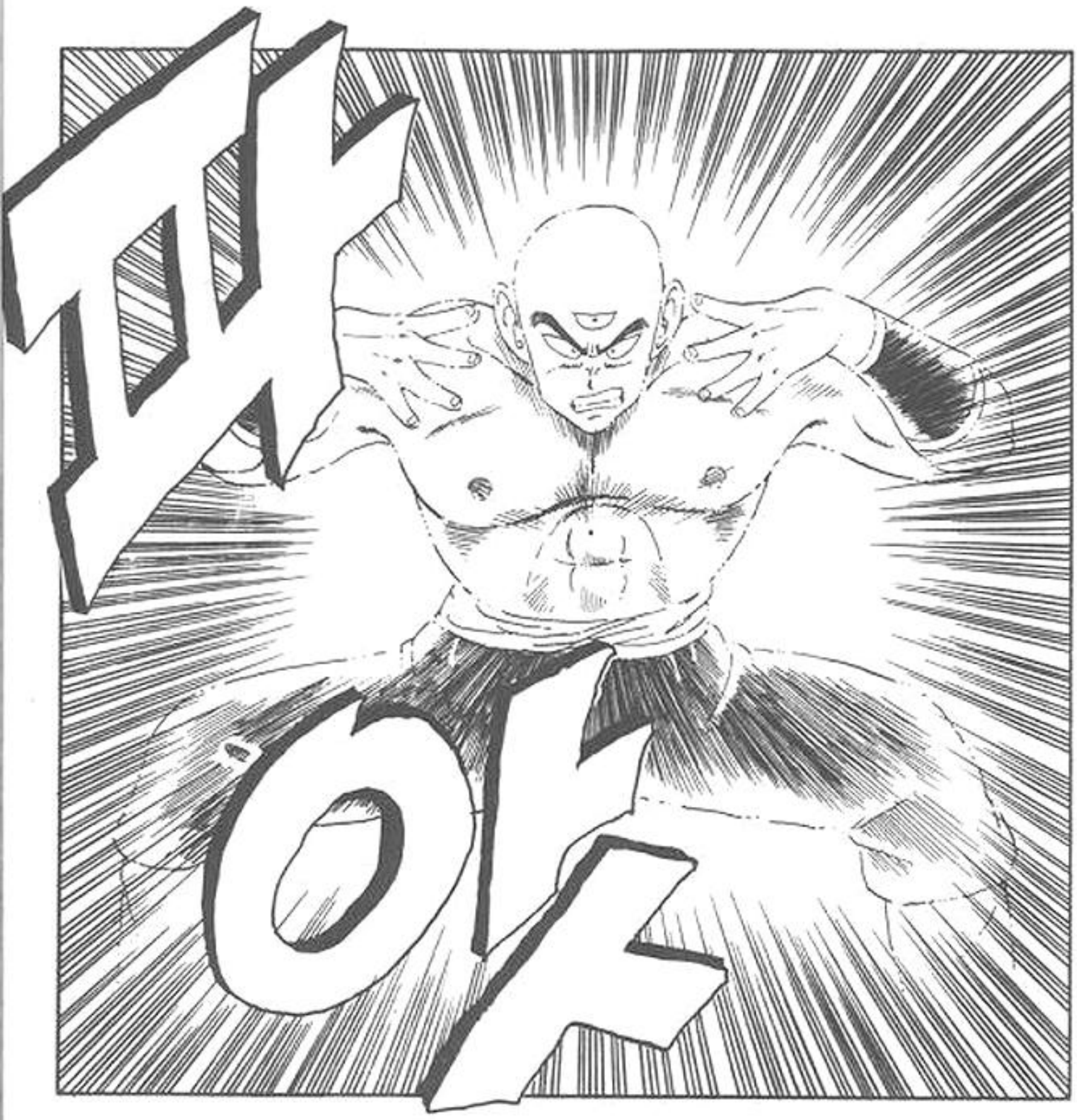
좋아! 아주 약간만 실력발휘를 해주지…!

후후후 …

슥……

저건 뭥이야! 계속 온 힘을 다해서 싸운 주제에!

신 학선류 태양권!!


끼


눈
부셔!
으악!!
앗!!
!!


아아!!
누…,
눈이…!
어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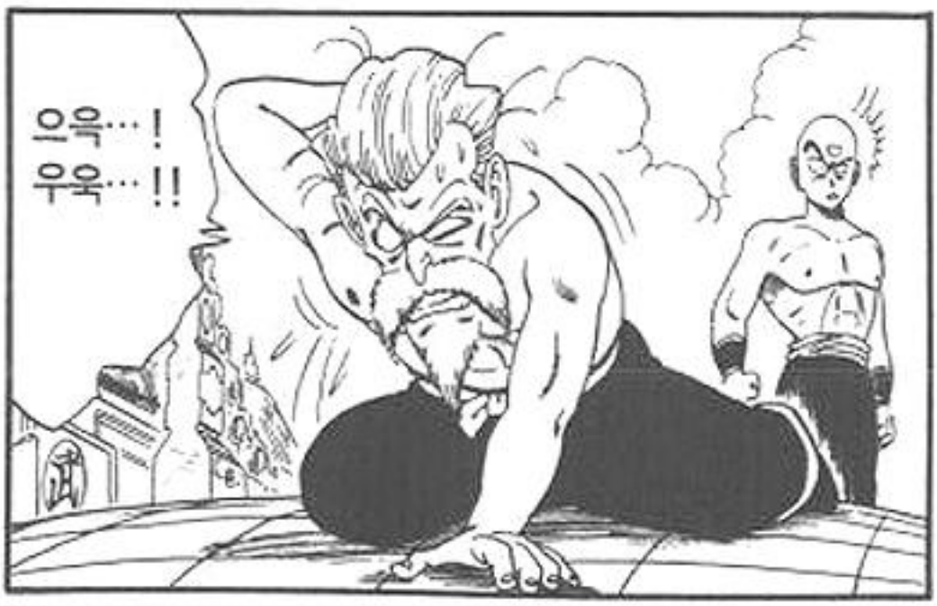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냐구!?


덜썩!!


죽이지는
않겠다.
죽어버리면
다음 시합을
못하게
될 테니까.
다만 앞으로
노인네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잭키 선수!
견디지 못하고 다운!
우선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원…, 투…,
스리….
어찌
된 거야,
할아버지!?


이거
정말 무서운
공격입니다!
강렬한 빛을
방출해서 눈을
못뜨게 하고,
뒤통수를 세게
무릎으로 찼습니다!


으윽…!
우욱…!!


파이브
….
포….

아니,
일어섰습니다!
잭키 춘 선수!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방
먹었군…!
노인네를
함부로 치면
쓰나…!

이럴
수가….

이, 이제야
겨우 앞이
보이네!

저,
정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이놈이!

저…
저 녀석…!

나쁜 짓만 하다니….
실력이 아깝다, 아까워.
학도사와는 손을
끊어라!

넌 왜
그런 실력을
정의를 위해
쓰지 않지?

그 건방진 소리 못하게 해줄 테다!

씰데 없는 소리!

쉽고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나라!

올바르게 살아 보라구! 태양 빛이 가득한 세계를 달려보라구!

마음이 흔들리는 거니?

호오…, 어떻게 된 거지? 아까 같은 기술의 날카로움이 없어졌어.

밝게 웃고 즐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즐겁다는 걸 말하는 것 뿐이야!

별로 대단한 얘길 한 게 아니야.

뭐, 뭐야!? 아직도 헛소리를!!

저걸 쓰면 눈이 안 부시다 이거지.

와….

아, 저 색안경 맞아?

다행히 선글라스를 꼈으니 그렇지!

너, 지금 숨가쁜 순간에 무슨 한가한 소리니?

저기, 아까 눈부셔서 앞이 안 보일 때 저 심판은 무릎차기한 걸 어떻게 봤지?

천진반! 그 영감은 무천도사야! 무천도사가 변장한 거라구!

!!

맞아! 그래!!

알았다!!

남들에게 미움 받으며 사는 게 좋은 거니?

아님 학도사 처럼….

에잉~! 들켰네.
부탁이다,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이야.
그랬었군….
그래….

대신 내가 재미있는 걸 보여주지….
니나 잘 하셔….

너랑 네 실력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거라구….
그렇지만 내가 학도사와 사이가 나빠서 그런 충고한 건 아니야!

에….
그딴 걸 왜 보여줘!!
혹시 김휘선 누드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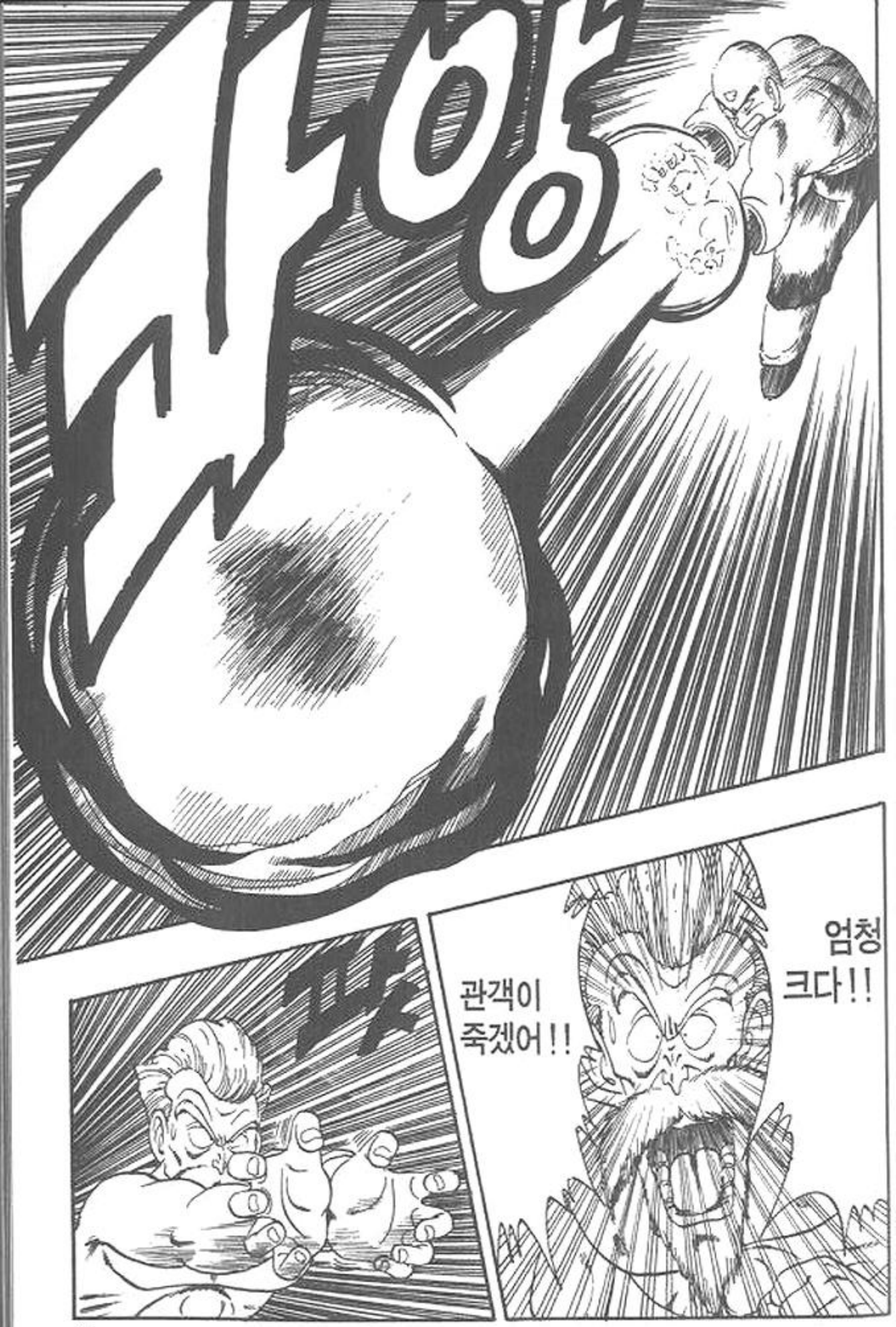
르….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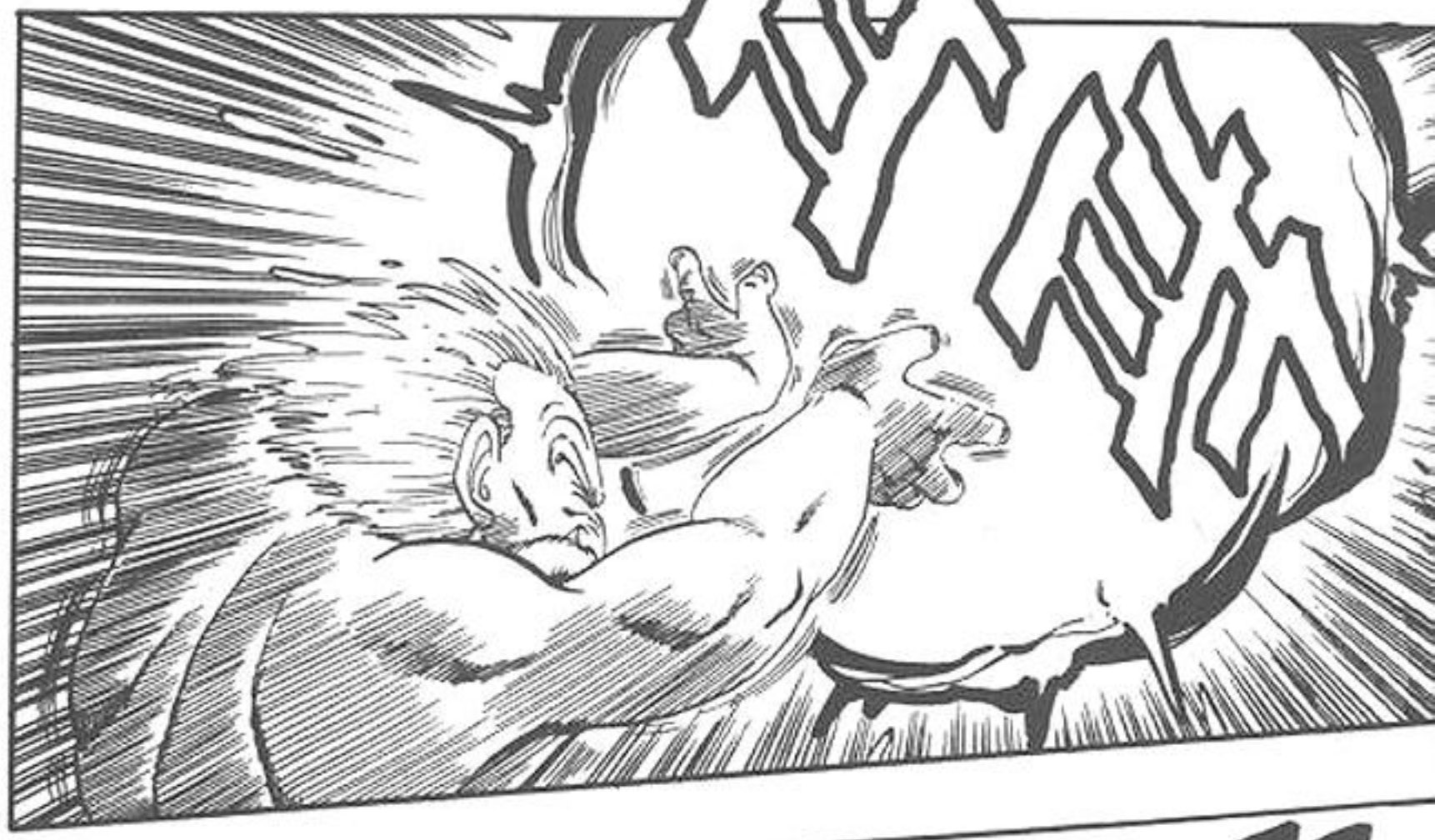
아니,
설마…!

에네르기
파…!?

기…!

파
!!


엄청 크다!!
관객이 죽겠어!!


퍽


간 떨어질 뻔했네….
우와아…!
위험했어….


팡
양


이,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학선류의 제자인 천진반 선수까지 에네르기파를 쓰다니!
휴우~!

어서 다른 기술도 보여봐! 난 그럴수록 강해지니까!

후후…. 그 정도 기술은 한 번 보면 금방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대단한 놈인데…. 이번 에네르기파는 무지 컸어….

굉장해…!

난 너무 기쁜데. 가슴이 뛸 정도야. 밝은 길을 걸어서 큰 인물이 되거라!

정말 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날 줄은 몰랐다.

탁

앗!

이제 난 또 느긋하게 놀고 먹으며 살 수 있겠어.

깡충

또 그 소리야!?

이런 젊은이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지.

아니!?

앗!?

자, 장외…!

영차!

천진반 선수의 승리입니다….

룰루 ♪랄라~♪

뭐야!? 왜 일부러 지는 거지?

뭐긴! 정면대결로 해선 지니까 그게 싫어서 저런 거겠지! 비겁한 놈.

아니야….

저 영감은 아직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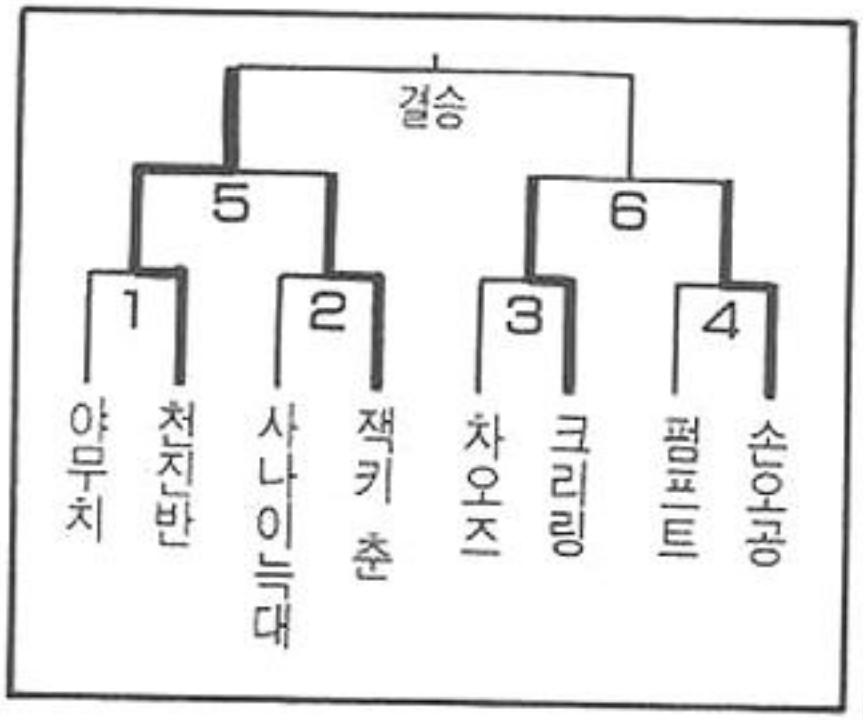
……

자, 이젠 어떤 시대가 올까나…?

제125화

손오공 대 크리링




결승
5
6
1
2
3
4
야무치
천진반
사나이는대
잭키 춘
차오즈
크리링
펌프트
손오공


그러면
이어서
제6시합이
시작됩니다!
시합을 할 선수는
둘 다 무천도사의 제자!
크리링 선수 대 손오공
선수입니다!
와
와


그러고 보니
다음 대전
상대가
오공이야!
아,
그렇구나!
두근!


그러고 보니
우린 한 번도
정식으로
대결한 적이
없지?
.....

……

그,
그래….

와 와

너무 기대된다!
우리 열심히
싸우자!

봐주면서
싸우면
난 널
평생 원망
할 거야!

오공!!

그럼
양 선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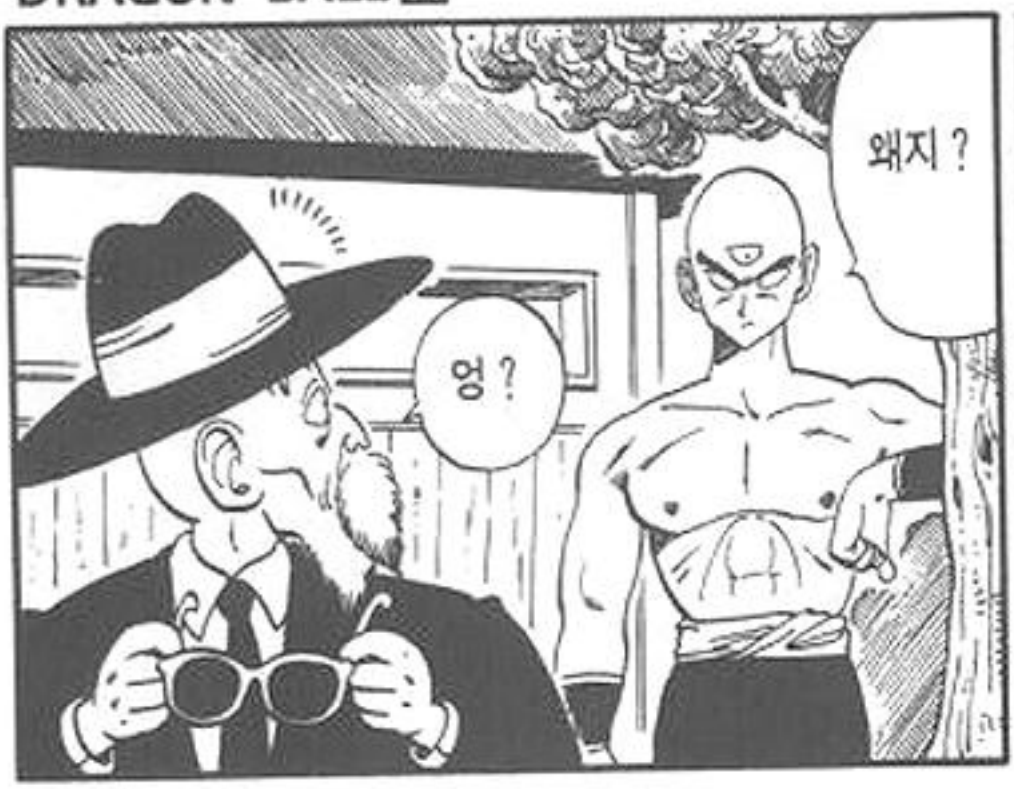
와

탁

당근
이지!

응!


와
와
나도 그 동안 열심히 수련했어….
꼭 이기고 말 테다! 나도 한다면 한다구!
둘 다 파이팅 하세요-!
야, 이거 정말 재밌겠다!
봐주지 않을 테니 각오해!
오공, 너야말로!
와
와
와


왜지?
엉?


자,
그럼.


아,
그냥
간단해.


왜 무천도사가
일부러 변장까지 하고
이런 대회에
나온 거야…?


젊은
애들에겐
흔히 있는
함정이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헛된 자만심을 갖게 되지.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게을러져….


내
제자들을
위해서야.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녀석들 중 누가
우승을 해봐!


이제
알겠군….
과연….

내가 너무 강하니까 제자들이 우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거였어….

그래서 당신은 안심하고 일부러 진 거야.

그러나!

계속 싸웠어도 내가 이겼을 거야….

그건 아니지.

뭐?

그럼 제6시합을 시작해 주십시오.

와

와

내 제자 중에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정도로 게을러질 얼빵이 녀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계속 싸울 이유가 없지. 안심했어….

물론 너도 멍청이는 아니야. 너는 철저한 악당이 될 수 없어.

뭐, 뭐라고!?

……

그래, 그래.

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유를 물으러 일부러 쫓아오진 않았을 거야.

쳇! 내가 좋은 걸 가르쳐 줄까? 난 타오파이파이 님처럼 세계 최고의 살인 청부업자를 꿈꾸고 있다구!

이것만은 네 말이 맞았을 지도 몰라….

분명 계속 싸웠다면 내가 졌을 거야.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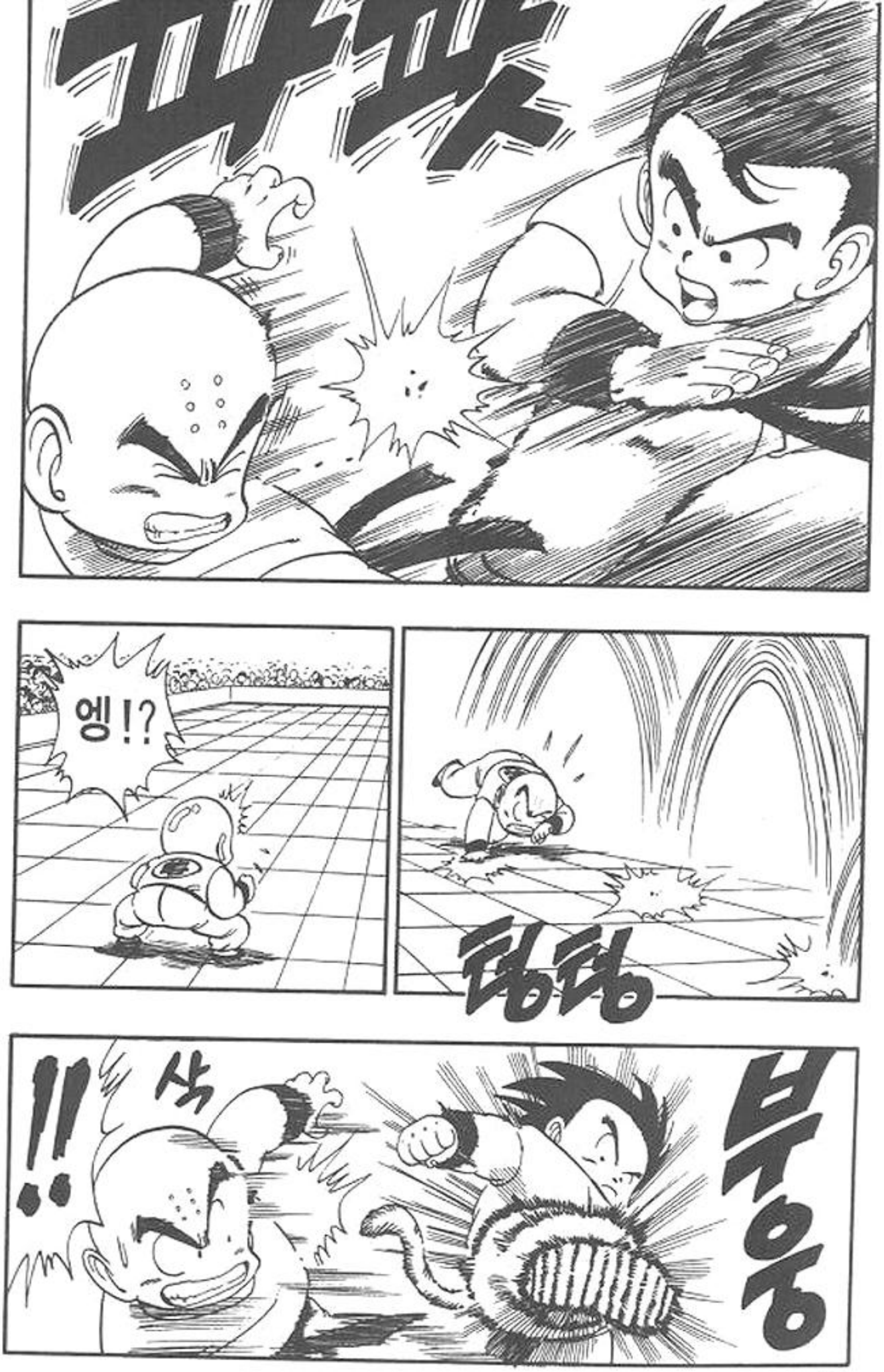
자… 자존심도 없냐?

너도 열심히 싸워! 좋은 시합 기대한다!

난 격석에 구경할

……


팍팍
핫!
팍
얍!
부웅
타탁
얍!!



ザザッ
엥!?
텅텅
!!
삭
부웅


파파팟
탁
앗!!
파파팟
크리링도 참 잘 피했어…!
어느 틈에 뒤쪽으로 돌아오다니!
역시 빠르구나…!

비트~~

저… 저게 꼬마들 시합 맞아…?

와…, 대단하다.

?

파파

슈슈

페인트 모션!

bat

bat


걸렸다!!


타
탓
얍!


어딜!!
슛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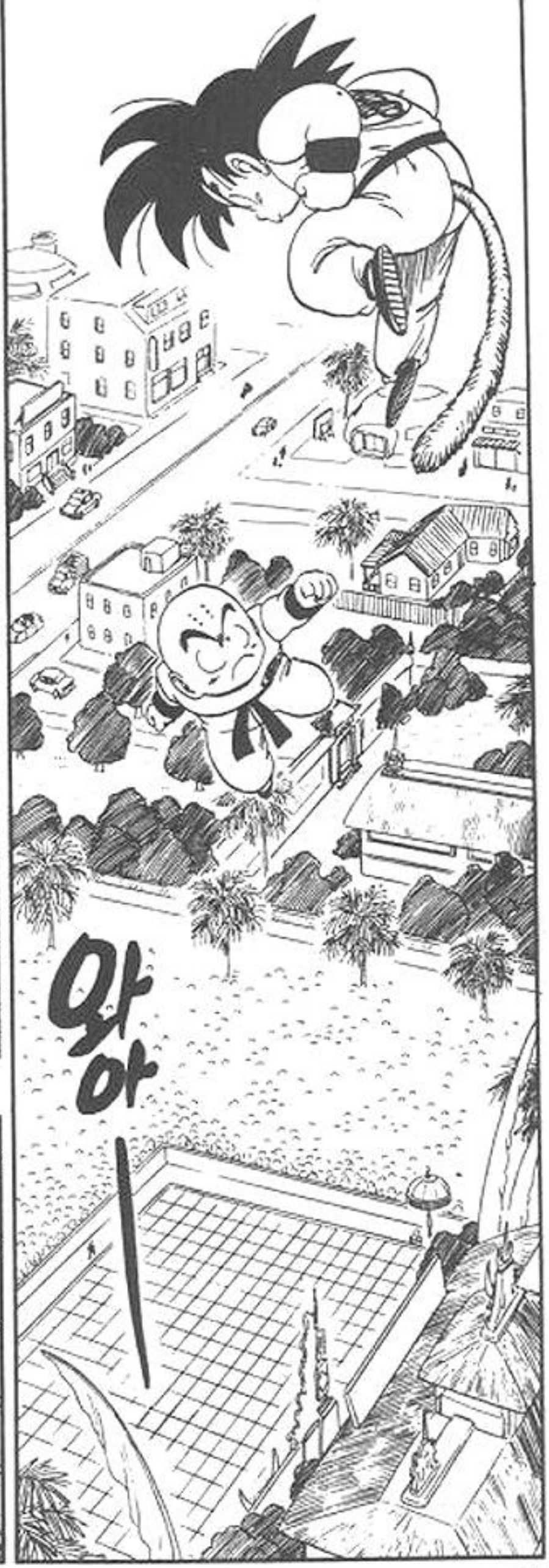



할꼼


샤아


번쩍


우왓!
눈부셔!


앙
아



다음은, 제126화 손오공의 파워!!

과연 이걸로
치열했던 대공방전의
끝이 날 것인가!?

이제 내려오는
크리링 선수는
완전히
독안에 든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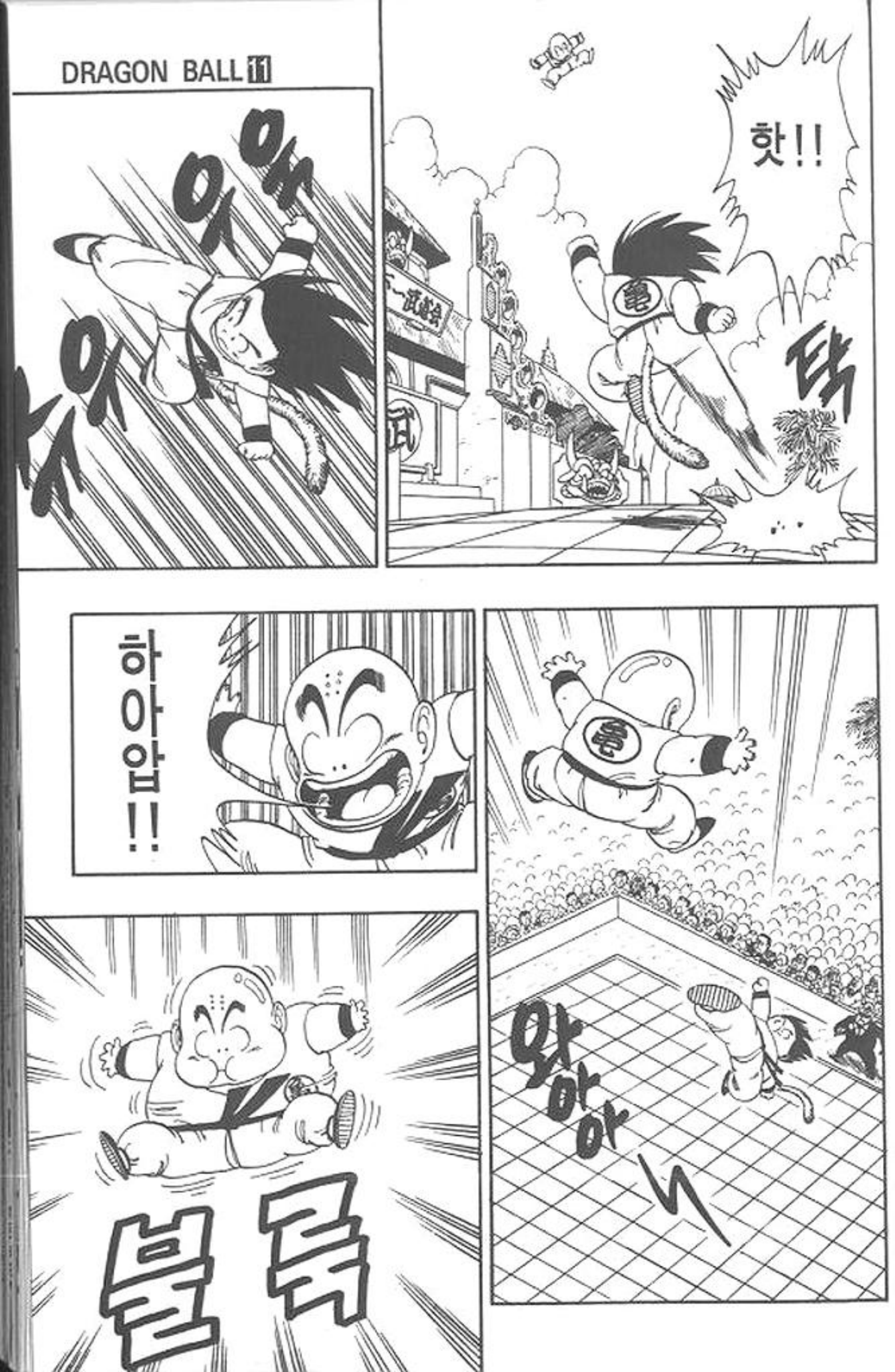
미안하다,
크리링!

내가
이겼어!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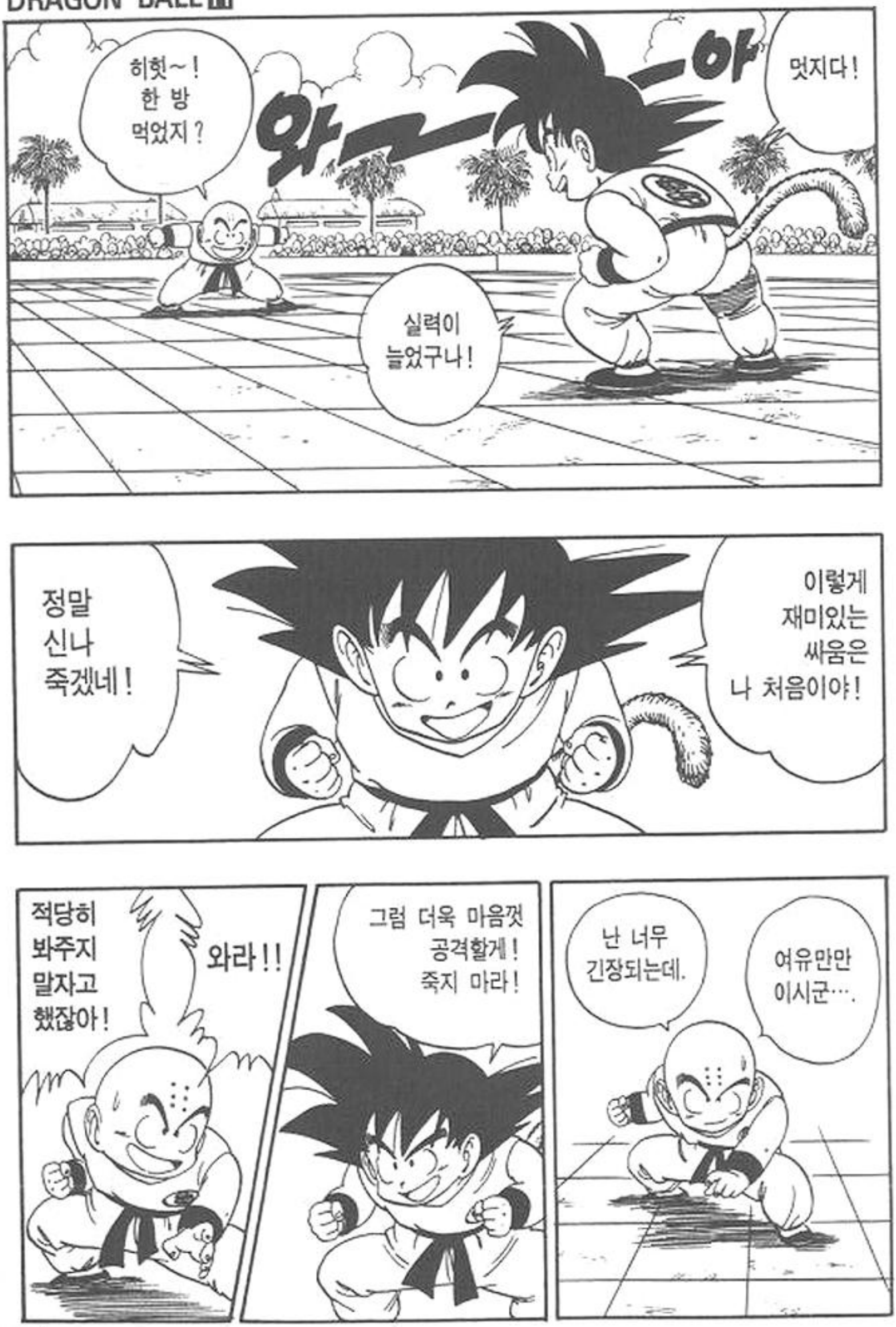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아?

앗-! 크리링 선수의
계산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손 선수를 바닥에
메다 꽂을 생각이었지만,
착지에 성공하고
말았군요!


핫!!
탁
와아아
하아압!!
블록



둥실
훡
앗!?
후우!!
헤헷!
타탁
터억
탁


멋지다!
와ㅡㅡㅡ아
히힛~! 한 방 먹었지?
실력이 늘었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싸움은 나 처음이야!
정말 신나 죽겠네!
여유만만 이시군….
난 너무 긴장되는데.
그럼 더욱 마음껏 공격할게! 죽지 마라!
와라!!
적당히 봐주지 말자고 했잖아!

어디 구경해 볼까…?

후후…. 오공 녀석. 이제 진짜 실력을 발휘할 셈이군….

와

와

FOX

!!

에!

네!

기!


파
!!


FX
OK


FX
OK
아앗!!


OH
HE
O!


퍽


퍼그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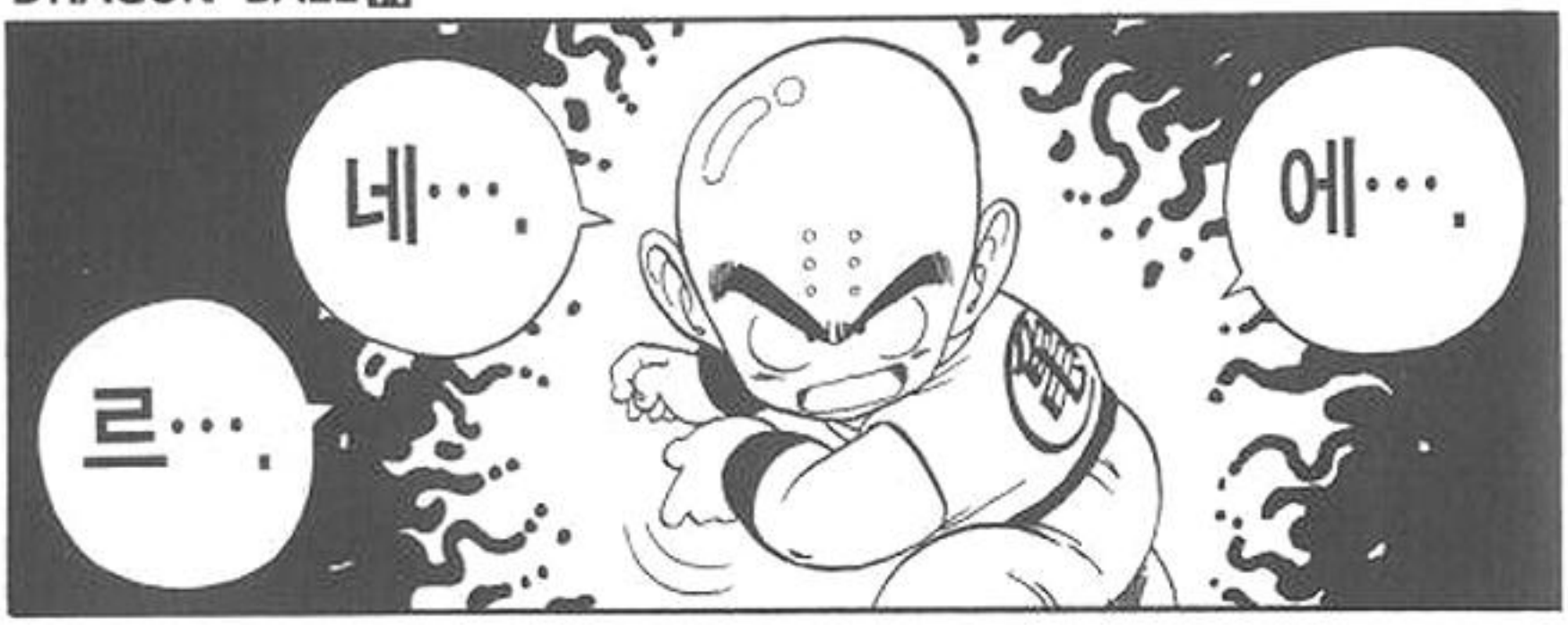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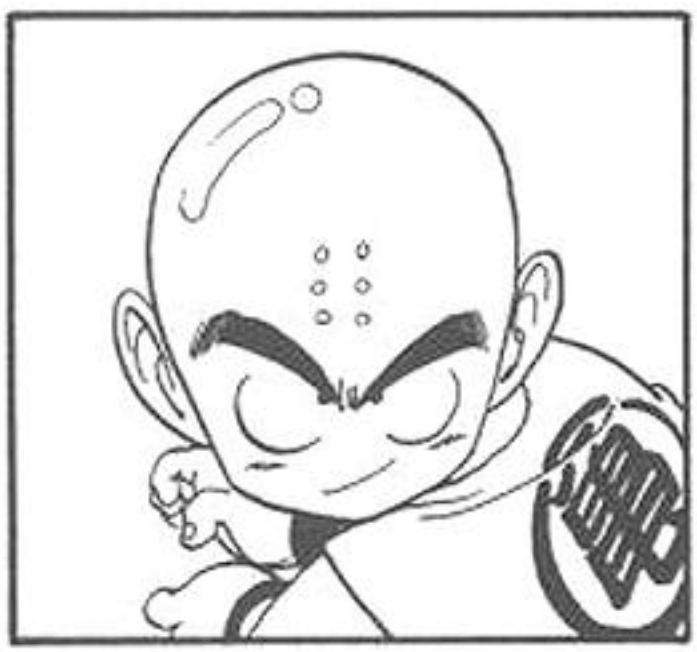

이런…!
이…

원!
투!
스리….
크, 크리링 선수! 다운입니다!
저, 저 녀석. 싸움이 장난 아닌데…!
와아ㅡ
어이구 아파…!
벌딱
헤헤 헤헤~!
재, 재밌는 공격을 해오다니….
당연히 그래야지!
이, 이거 놀랍습니다! 크리링 선수, 벌딱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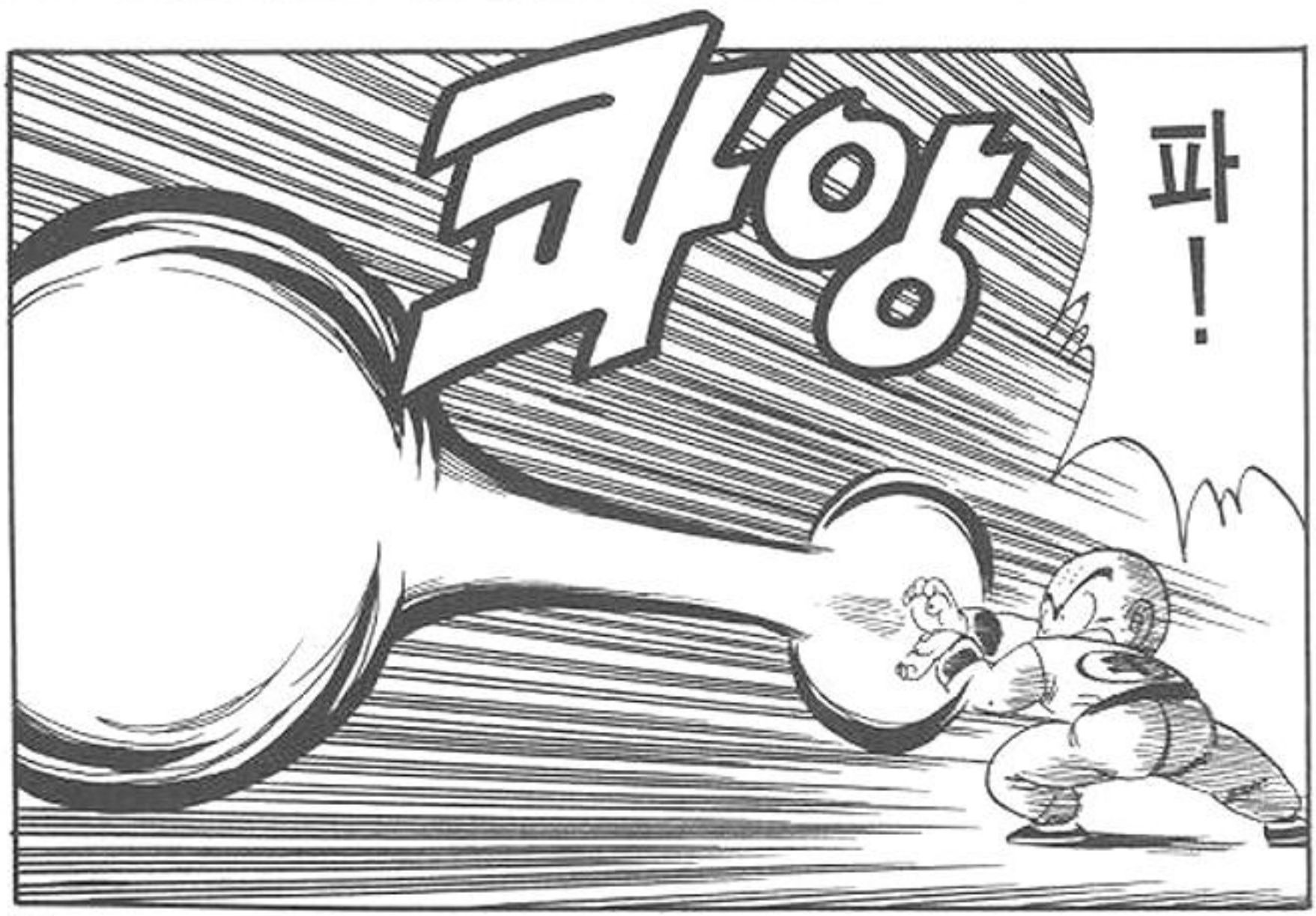

역습 개시!
각오 해랏!
파아
타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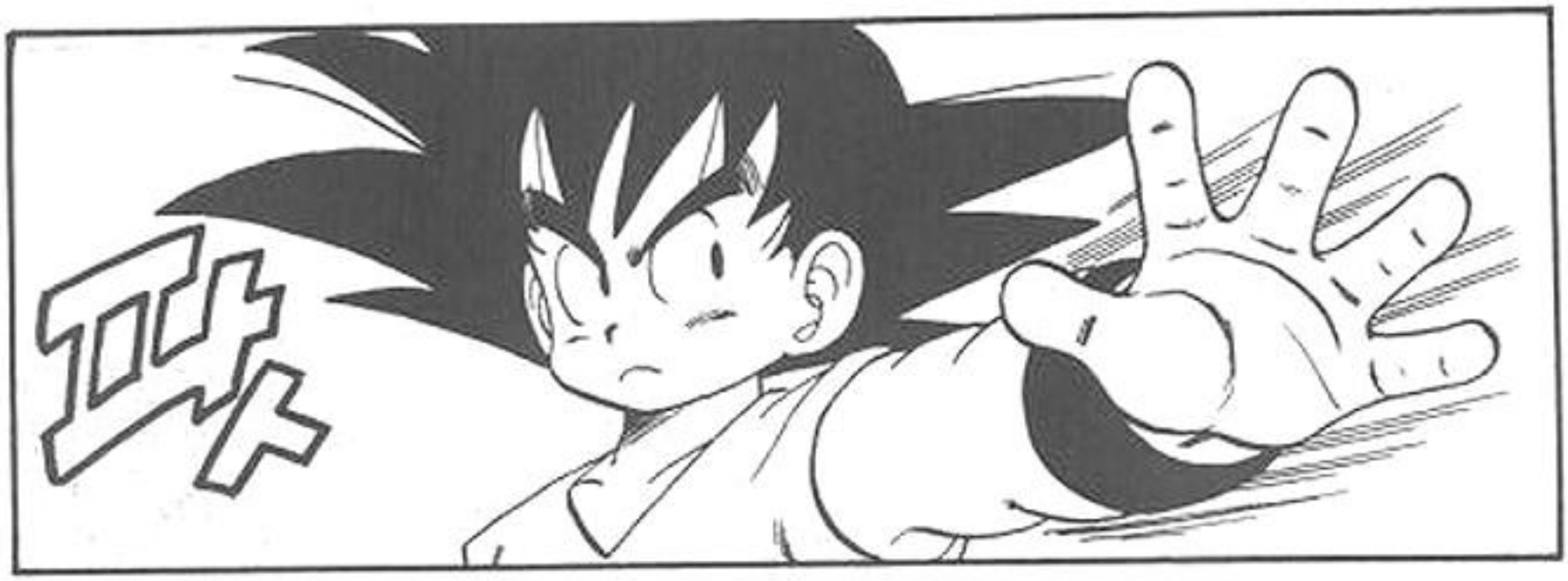

우욱!
보통 강한 게 아니야!
헉
헉
정면 대결하면 승산이 없다….
노…. 놀랍군! 크리링의 실력도 이미 초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좋아!
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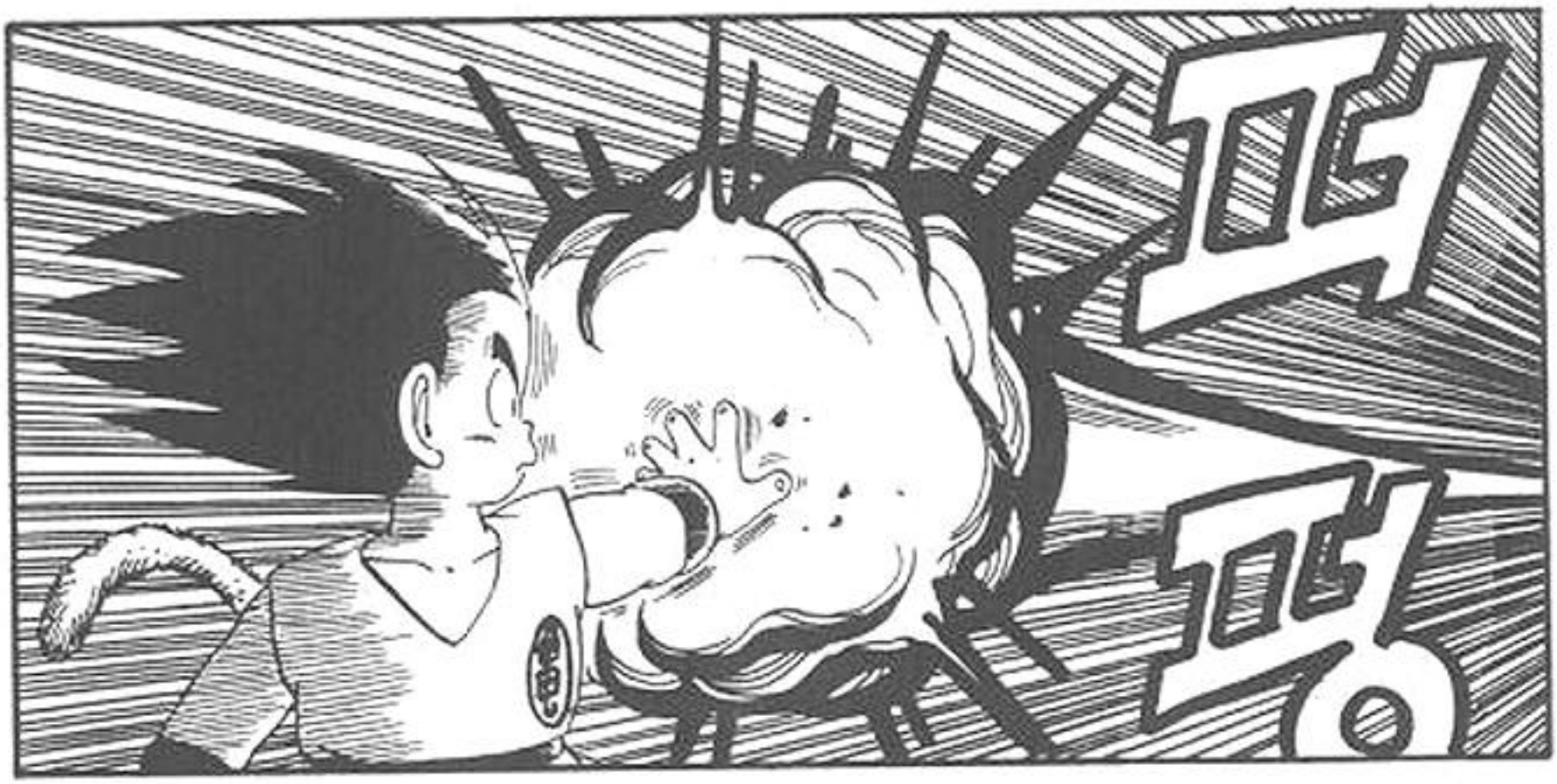

네…
에…
르…




내겐 에네르기 파가 통하지 않아! 쓸데없이 체력만 낭비할걸.
관둬, 크리링!
기…


퍼엉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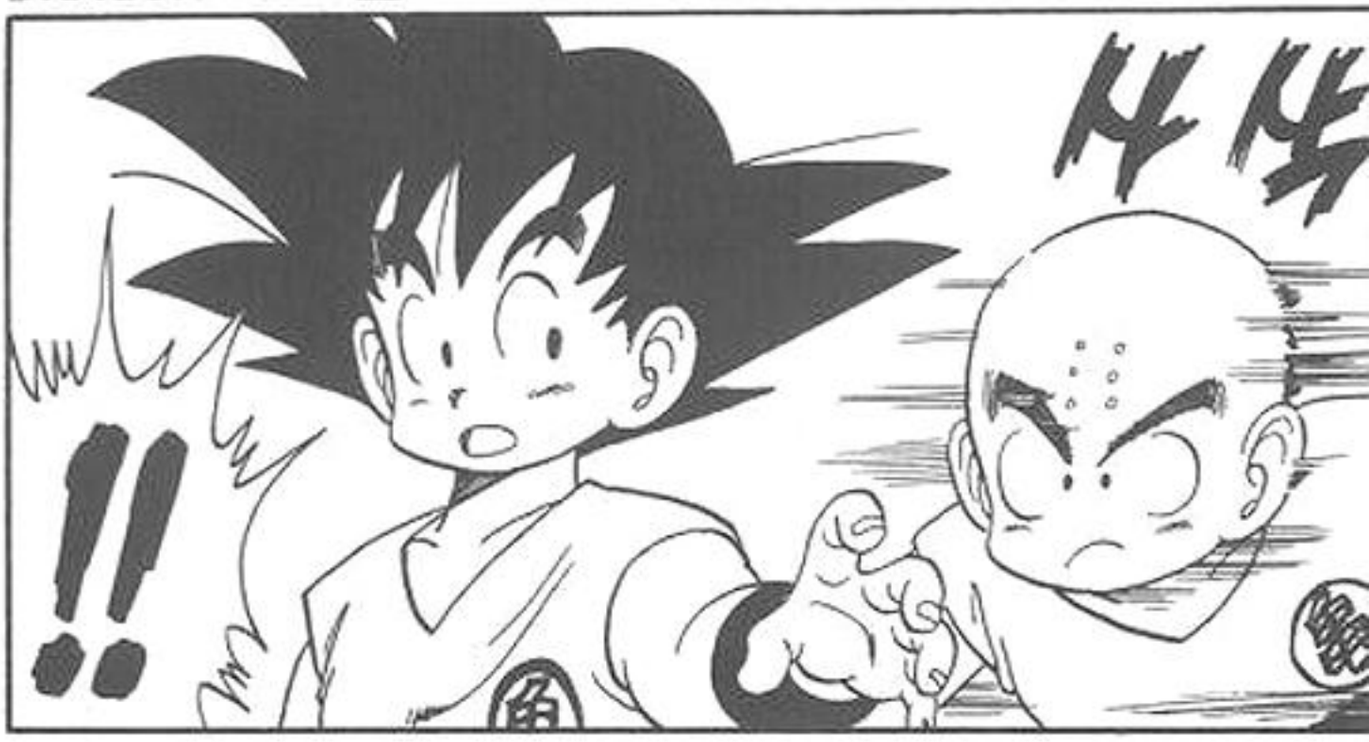

콧


퍽


어!?


안
통하지?
봐!


슈슈















다음은, 제127화 크리링의 작전, 오공의 작전

그래, 이제 승부는 끝났어.

멋진 시합이었는데 끝이 좀 찜찜한걸.

욱!

어, 어때? 오공! 꼬리를 잡았으니 승리는 내 것이다! 시합 끝났다구!

비틀

비틀…

아….

아….

털썩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앗! 손오공 선수, 다운입니다!

후후후!
쉽게
이기겠군….

그렇다면
결승전은
저 크리링이란
녀석과….

꼬리…?
저 꼬마에게도
형편없는 약점이
있었군.

원….
투….

식스….

파이브
….

웅성
웅성

에이트….

세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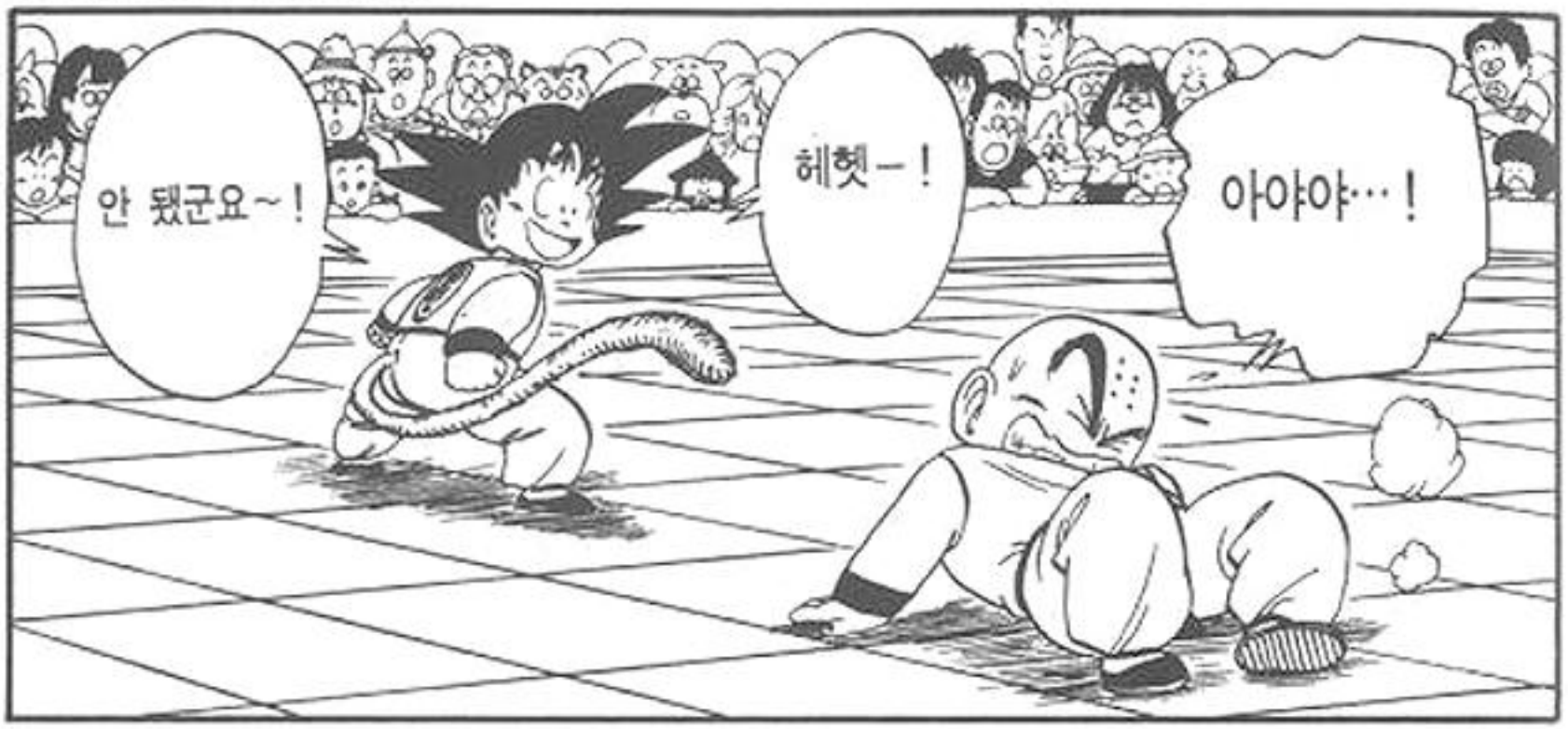
나인….

이겼다!!

퍽



아…!
휘앙
앗!?
휘악
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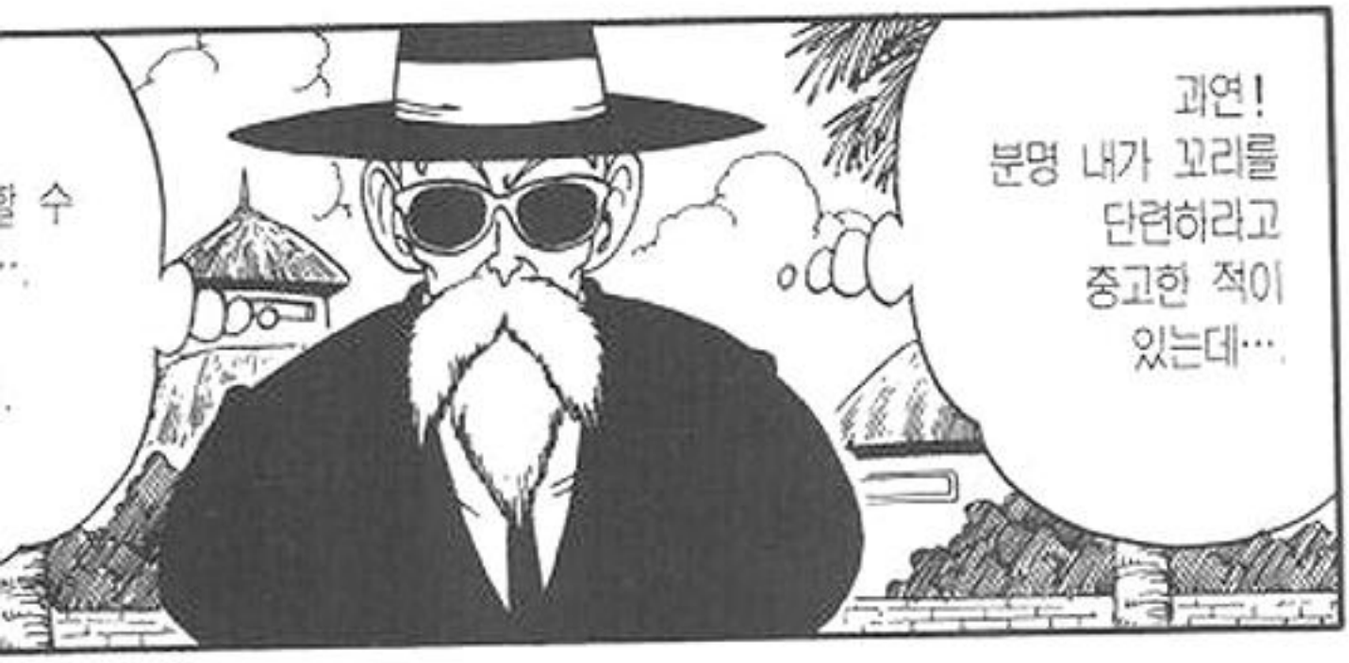

안 됐군요~!
헤헷-!
아야야…!


너, 너! 꼬리를 강하게 잡히면 힘을 쓸 수 없는 거 아냐!?
이… 이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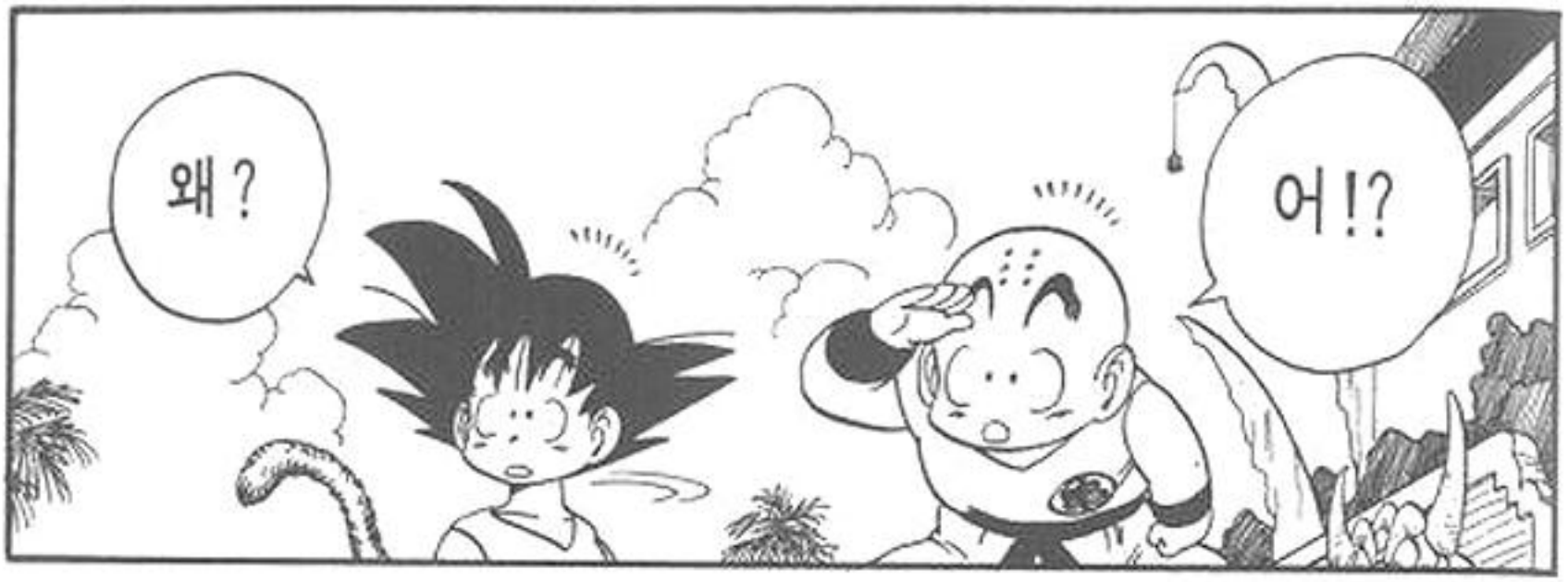

아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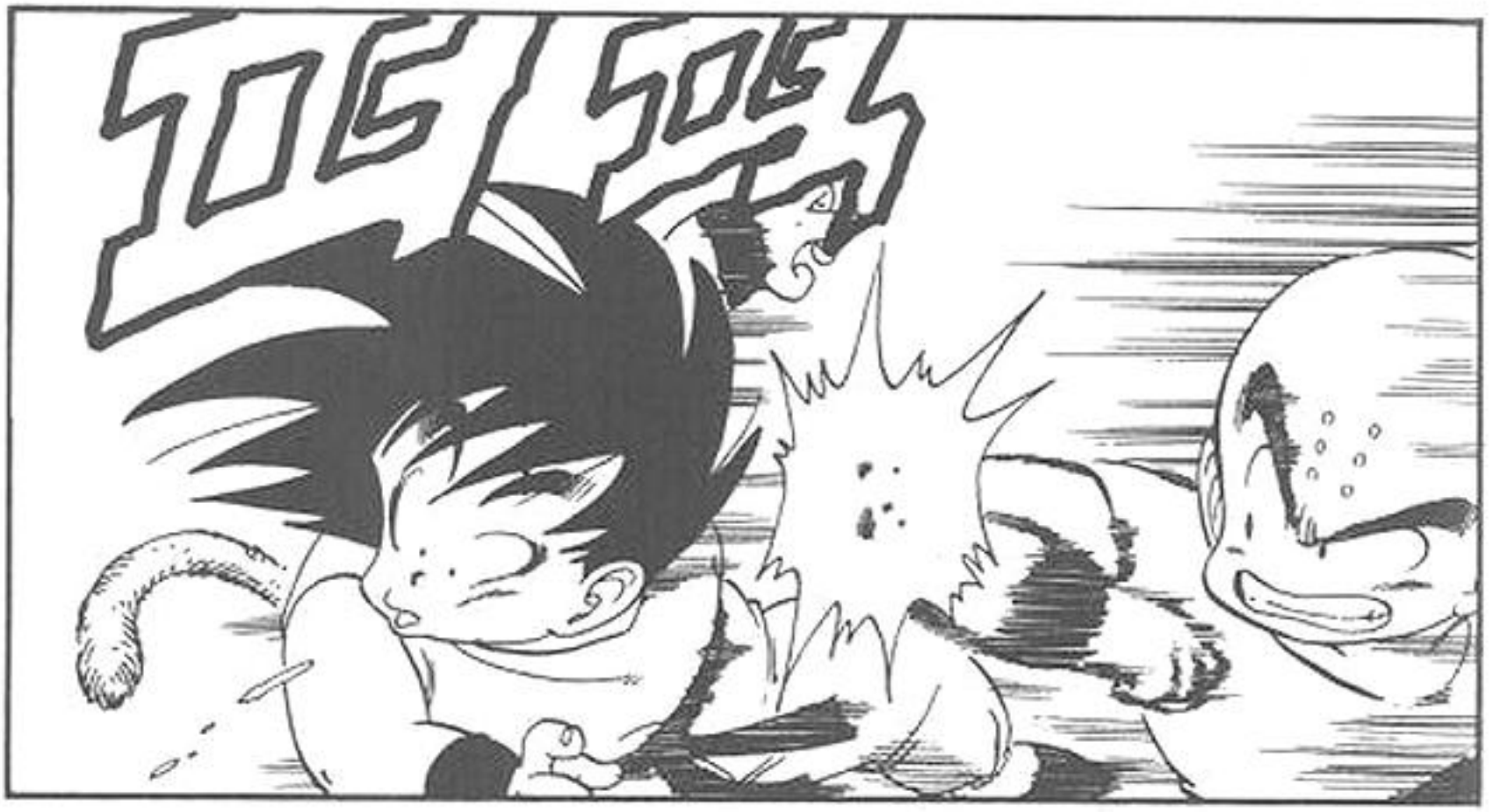

거북신선 할아버지가 단련시키라고 말했었잖아. 그래서 이젠 꼬리를 잡혀도 아무 상관없어!
난 지난 3년 동안 꼬리도 함께 열심히 단련 했지롱!


단련하기
꽤 힘들었어!
세…
세상에나….


괴연!
분명 내가 꼬리를
단련하라고
중고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오공의 장점이야!
천성이라고나 할까….
야생의 강함.
튼튼함만이 아니야.
무엇보다 순수하고
성실하니까….
이제
오공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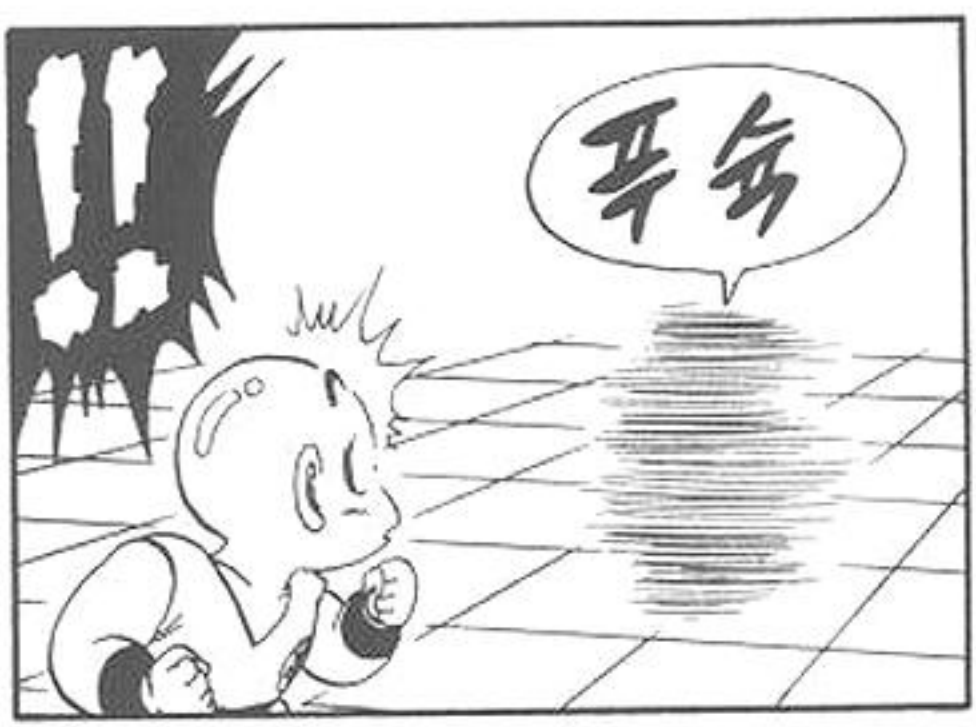

왜?
어!?


SOE S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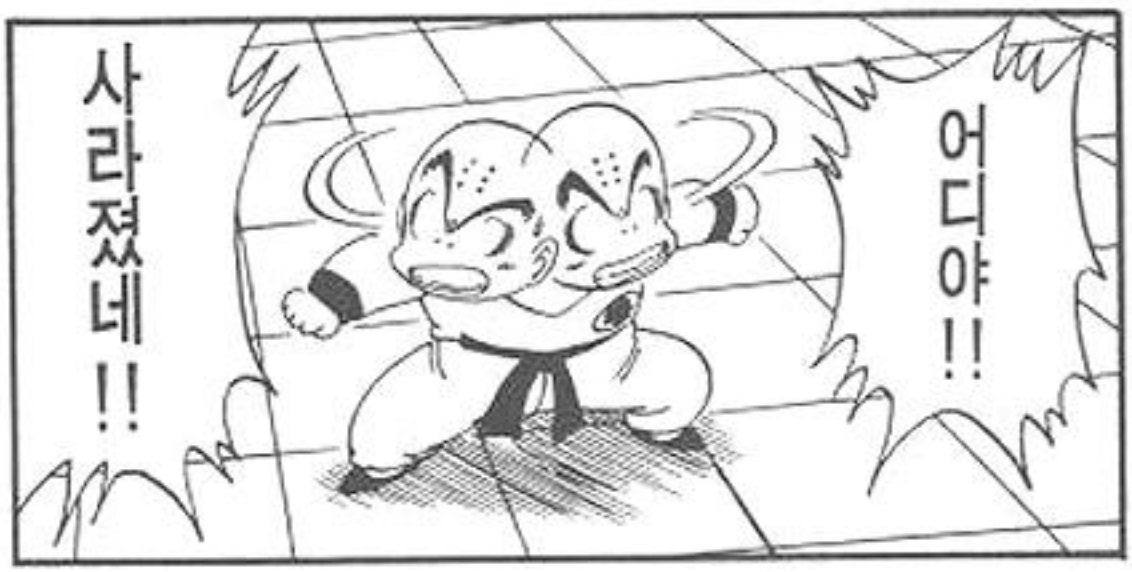

약점이
있었군….
너무 순수하고
착한 것….
……


좋아!


승부에
치사고 뭐고
어디 있어!
치사빤스…!
똥빤스…!


푹숙


뭐야…!?
어…?


사라졌네!!
어디야!!


!?


사….
사라
졌다!?


위
!?
위에도
없고!!


와아
天下一武道会
이, 이럴 수가!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손 선수,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 이럴
수가!?
武


뭐야!?
파
파
팟
이 소린
뭐지?


마, 말도
안 돼…!!


사라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야!
팟


저, 정말
사라졌네…!
소리는
나는데…!

파파파파…팟

지금 연속으로
나는 소리는 너석이
바닥을 차는
소리야…!

나조차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니,
다른 사람에겐
보일 리가 없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스피드로
좌우로 뛰고 있어…!
서서히 접근하면서….

파파팟


あ!!!
어


으앗!!
앗!
나타났습니다!
털썩
아!
……
자…, 장외….
손 선수의…, 승리입니다….

뭐야…?

……

이겼다!!

갑자기 나타난 손 선수에게 놀란 크리링 선수가 장외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天下一武道会

맥빠지는 승부였어….

그렇게 대단했던 시합이 마지막엔 좀 이상하게….

뭐야…?

……

지꾼 지꾼..

저 오공이란 꼬마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크리링에게 여덟 방을 먹였어…. 그것도 장외로 떨어지게 할 정도로 약하게….

뭐가 맥빠지는 승부야…! 후보자들 눈에는 보일 리가 없지.

오공 녀석,
볼 때마다 더
강해지는군….
이미 내가
설 자리는
없는 거
같네….

저…,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진짜로
타오파이파이를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
몰라….

나중에
네게도 방법을
가르쳐
줄게.

우씨! 정말
네 실력은 못당하겠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날 밀쳐내고….

헤헤헤~!
미안, 내가
이겨버렸네….

쳇!

난
괜찮은데.

그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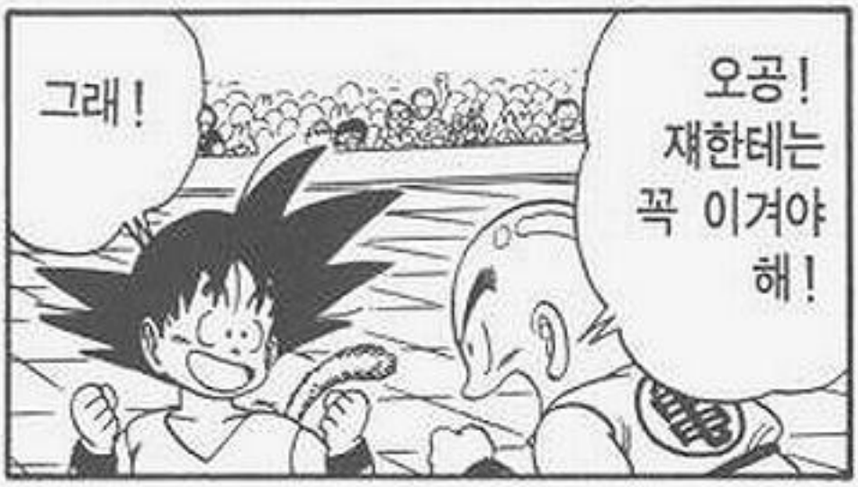
저어, 다음은
결승전입니다.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결승전
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천하제일의
무술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天下一武道









다음은, 제128화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와와
와
제22회를 맞이한 천하제일 무술대회!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달인이 무려 182명, 그 중 다시 예선을 통과한 선수는 겨우 8명.
그리고 시합은 계속 진행되어, 결승전까지 남은 선수는 단 두 명! 천진반과 손오공 선수입니다!
와
PENNZOIL
손오공
펌프트
크리링
차오즈
잭키 춘
사나이늑대
천진반
얌무치
과연 세계 정상에 설 선수는 누군가!? 마침내 그 답이 확실해 집니다!


우와아아
이거 대단한 시합이 되겠는걸.
더 가까운 데 가서 봐야지!
후다닥
뻗—옹

까다롭게 굴지 말자. 한 번 봐줘.

무천도사 님! 안 되요. 여긴 선수들만 들어오는 데라구요.

안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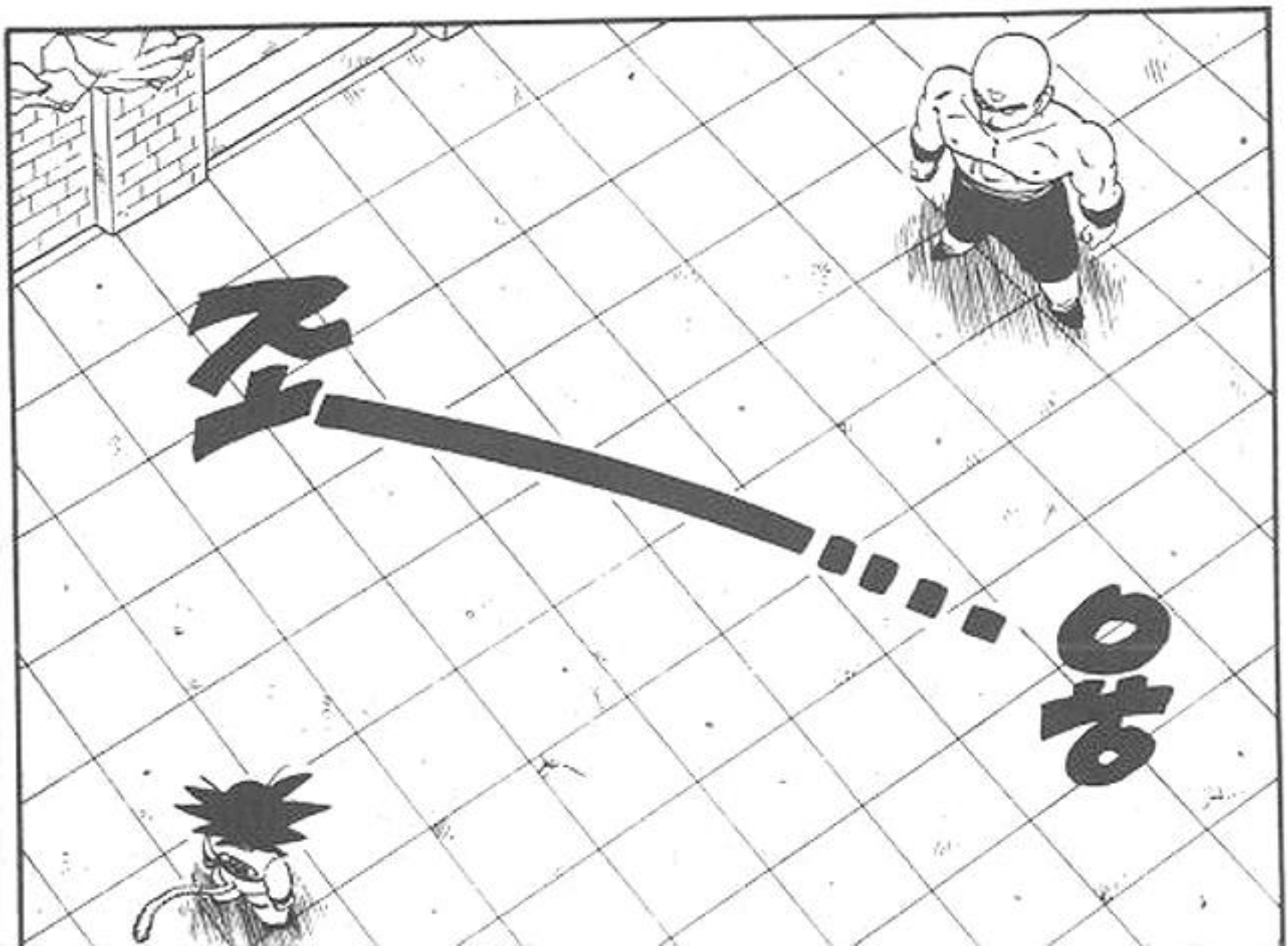
어!

예!

잘 봐둬! 이런 시합은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준비 다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겠죠…?
당연하지!
내 동생 타오파이파이의 원수이자 저 무천도사의 제자….
꼭 이겨야 해…!
슥…
삭…

시작!




파앗
야압!


히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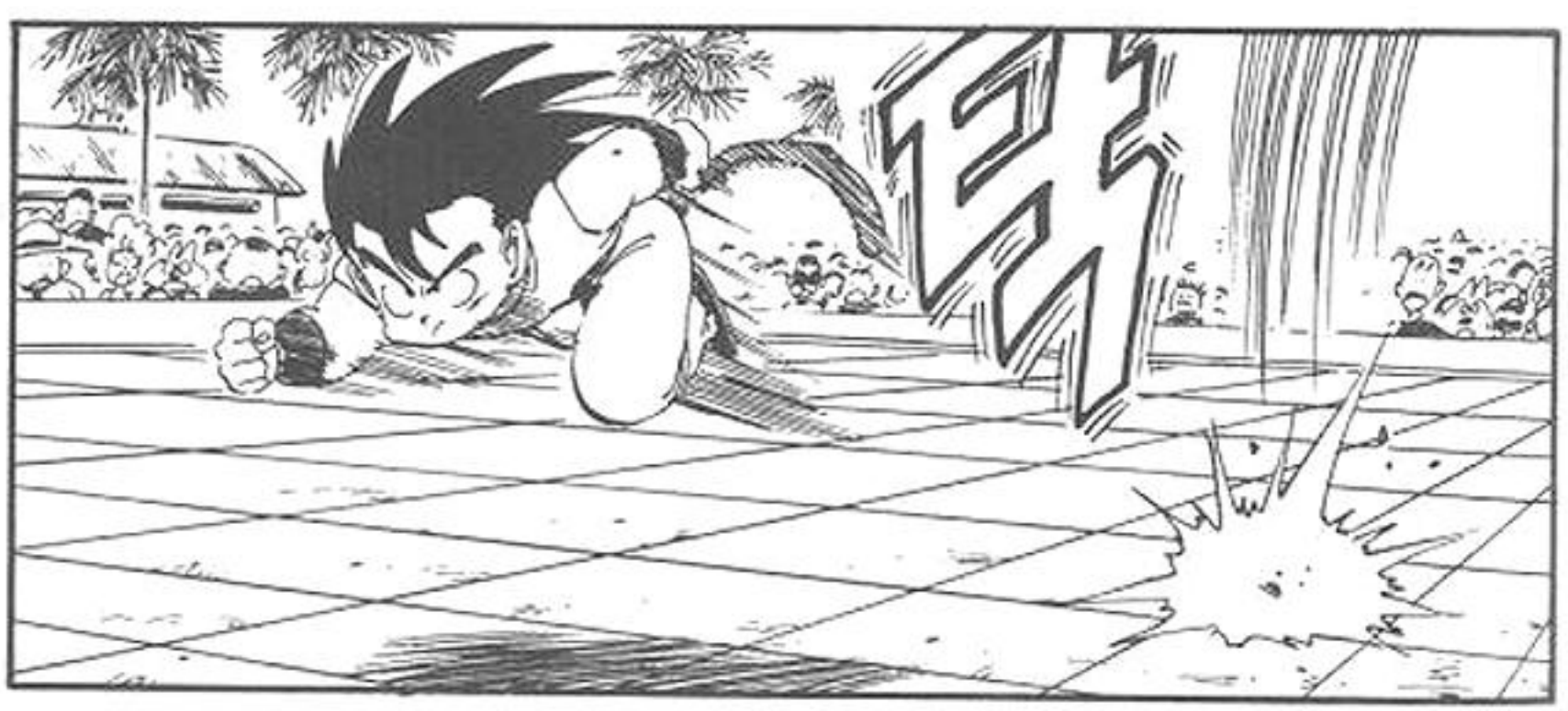

피잉
!!
!!



욱!!
쨍
쨍
휘이
이
콰쾅
탁
히죽


ドドドドド


!!


ヒ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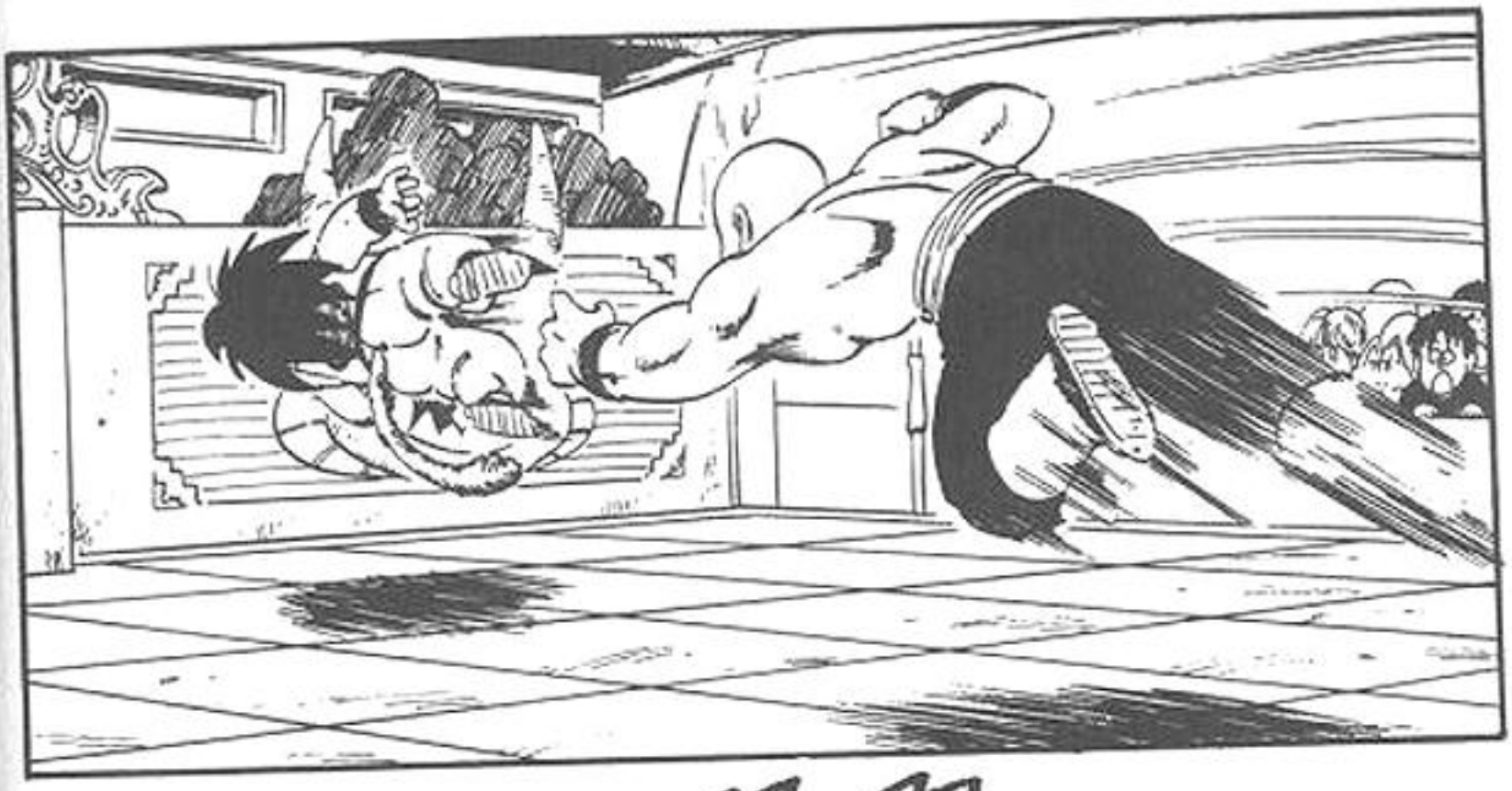



사삿
앗! 또, 또 사라졌습니다!
파바바바
파바바바


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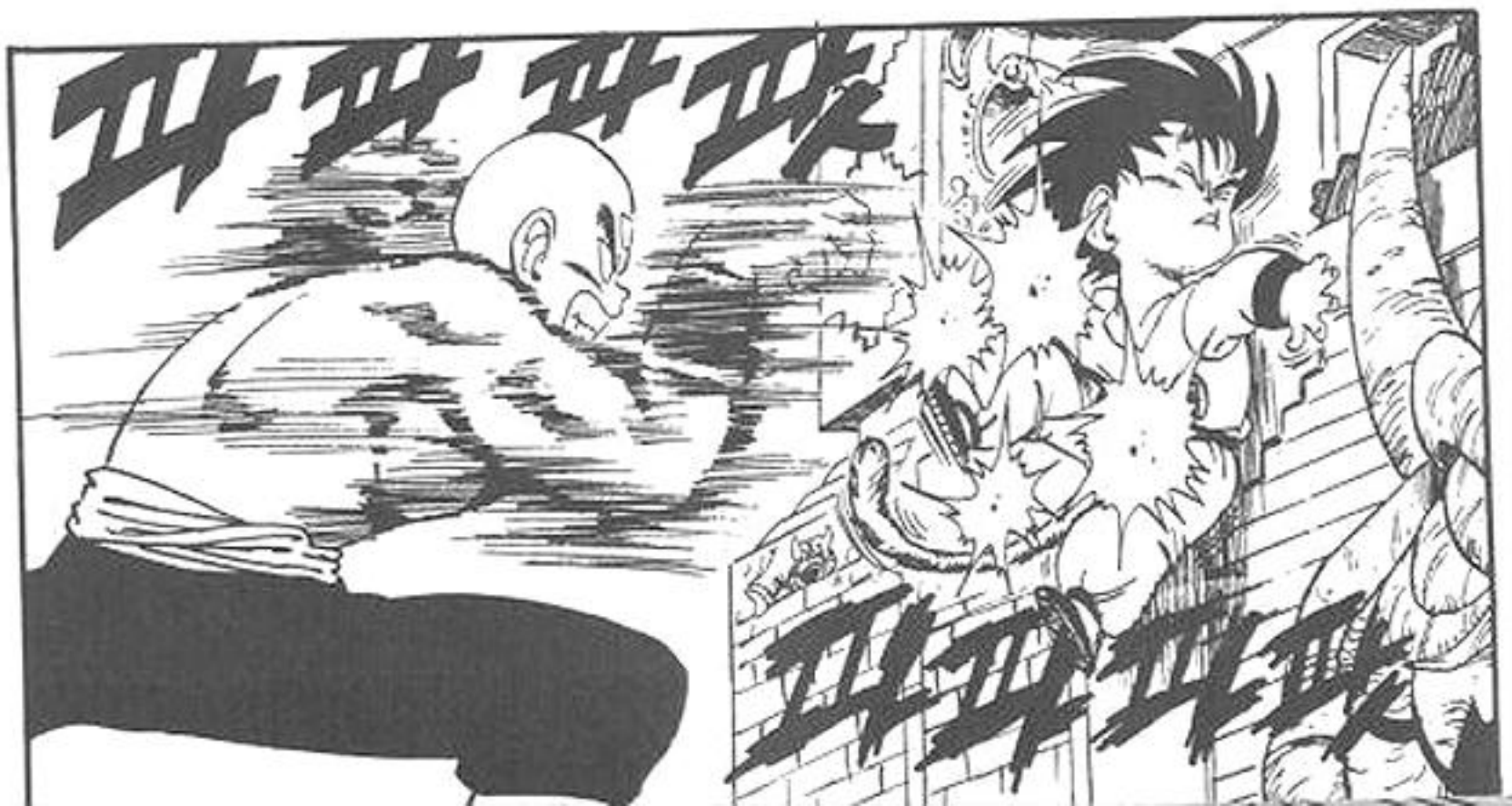

OH


그런 어린애 속임수가 내게 통할 줄 알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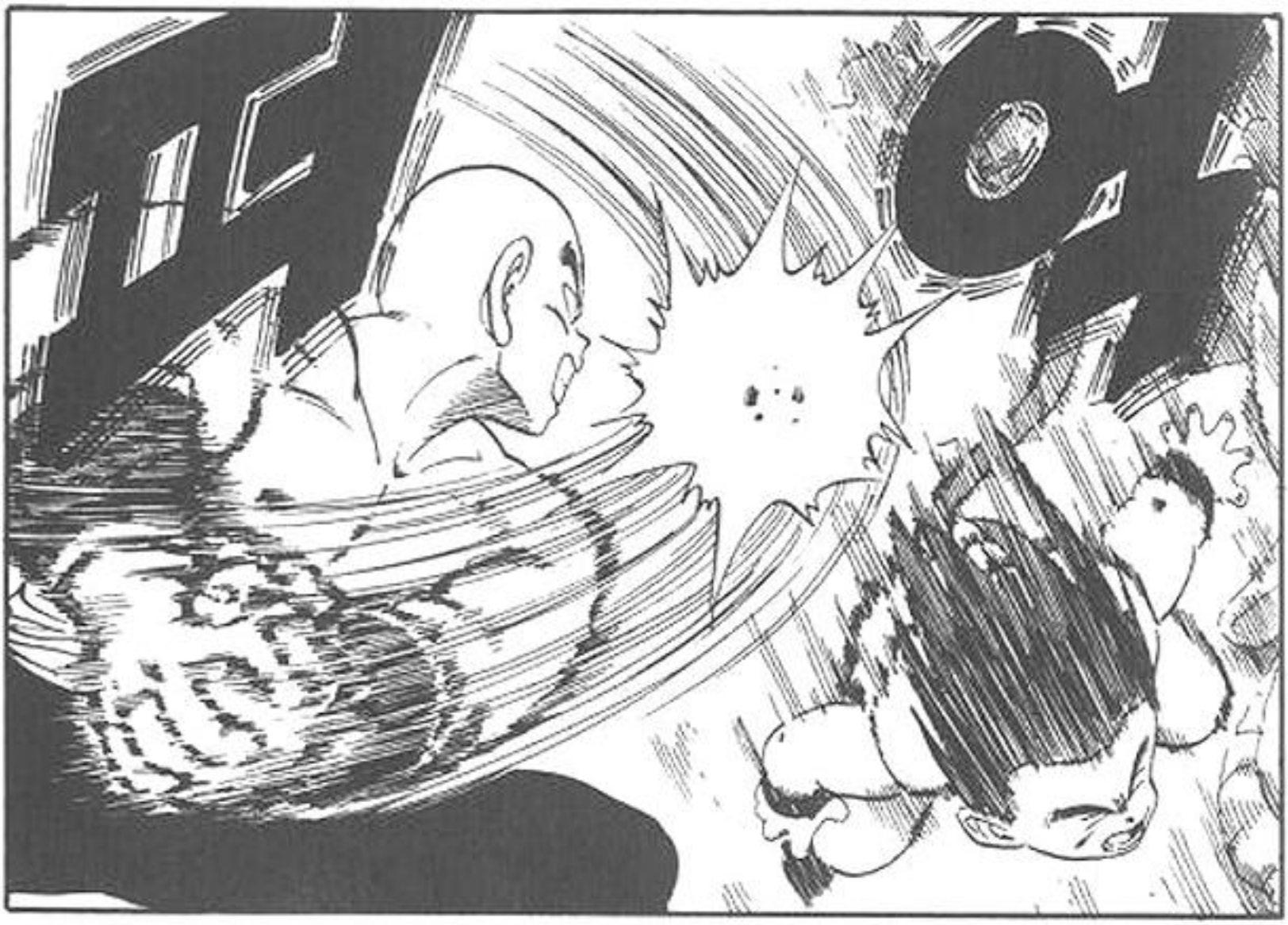



퍼퍼퍼퍼


퍼퍼퍼퍼
퍼퍼퍼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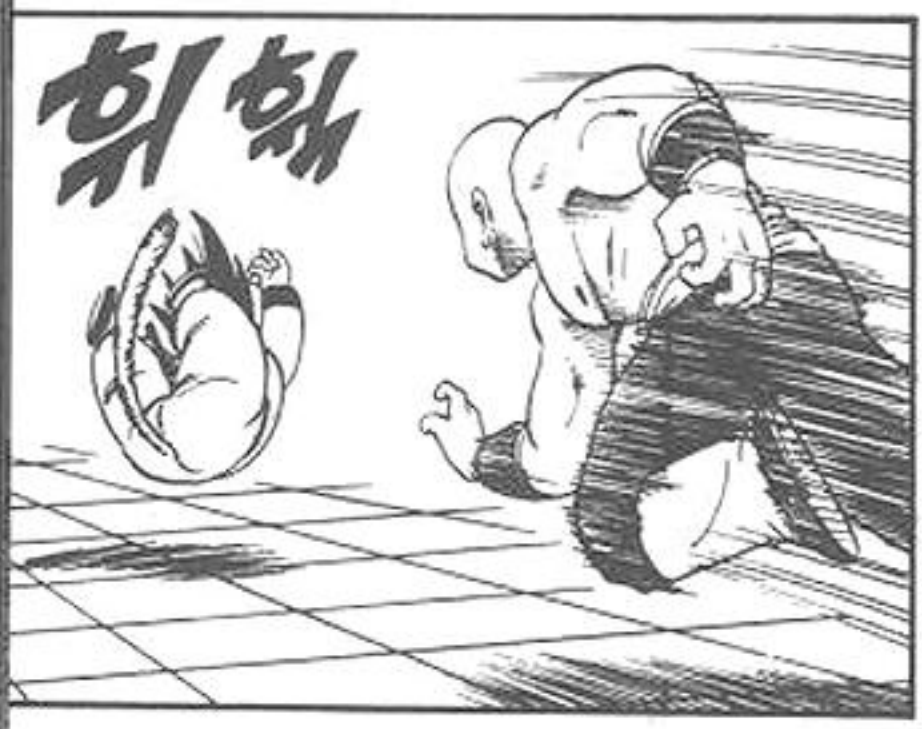




다음은, 제129화 배구권과 전투 파워


비장의 기술로 끝내주마!
아…, 그 기술을 쓸 생각인가 봐요…!
흐흐…, 저 꼬만 죽었어…!
아니…, 뭘 하려고…?
팍
빙글


배구권
간다-!!


휘휙


-권!
파팡


아자-♡

ゴゴゴゴ…

ゴゴゴゴ…

ゴゴゴゴ…


어택— !!


빠악


!!
죽었다….
쩌억
쩌억
벌떡
타닥
탁


아니?!
저, 저럴 수가!
너 정말 강한데.
놀라운 실력이야!

너 정도면 내가 힘을 제대로 다 써도 죽지 않을 테니 맘놓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질리게 대단한 꼬마야….

그건 내가 할 대사인데!

시합용 …?

그… 그건 또 뭐죠…?

지금까지도 죽을 힘을 다한 주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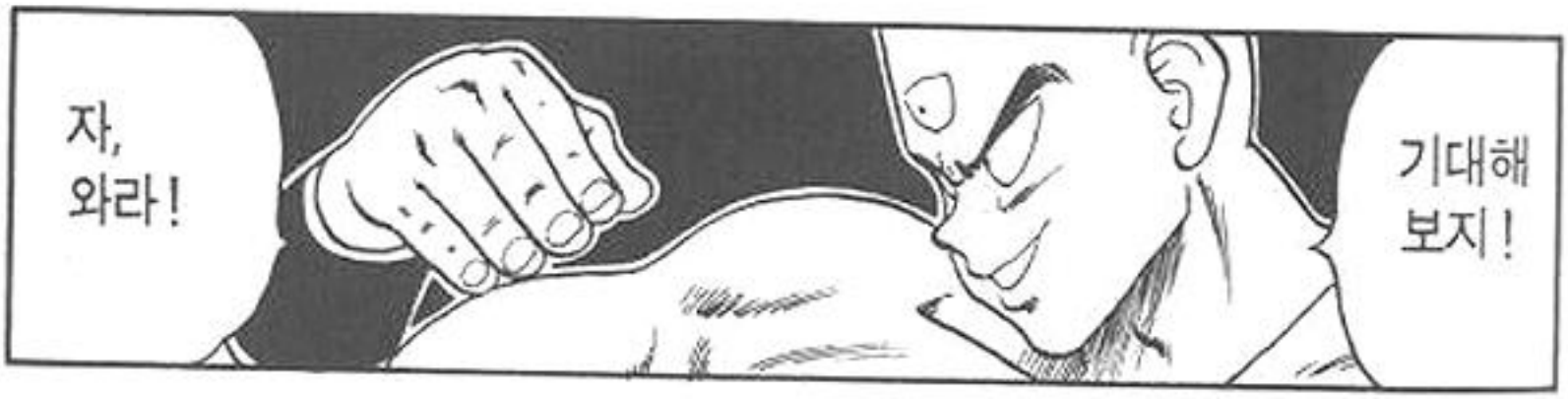
웃기지 마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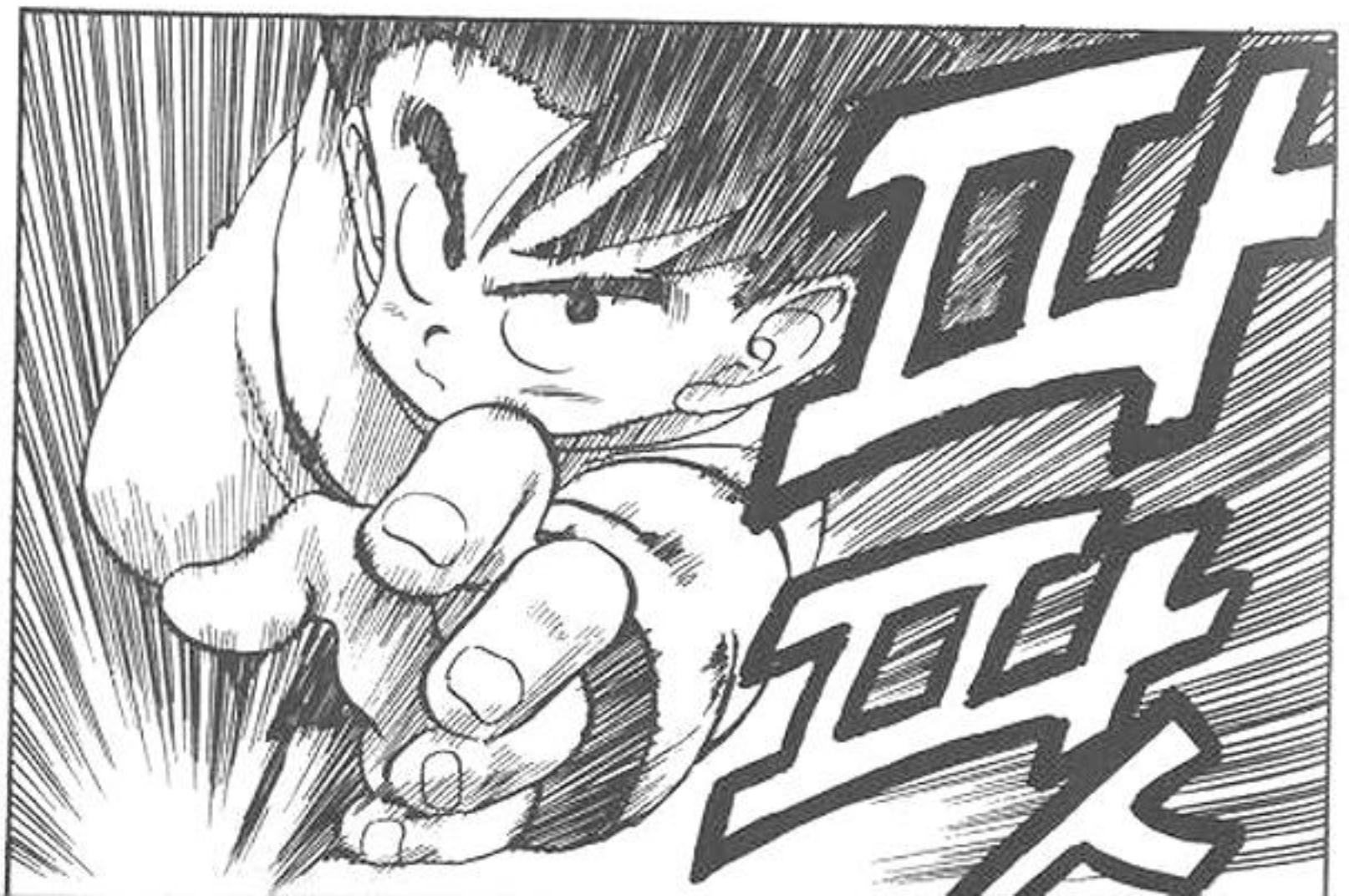
나도 전투용 파워를 쓸 테야!

그렇지만 넌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으니까.

응, 시합용 파워를 썼지.


간다,
전투
시작이야!
전투용… ?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란 말이니 ?
헹!
그런 말도
안 되는 뻥은
처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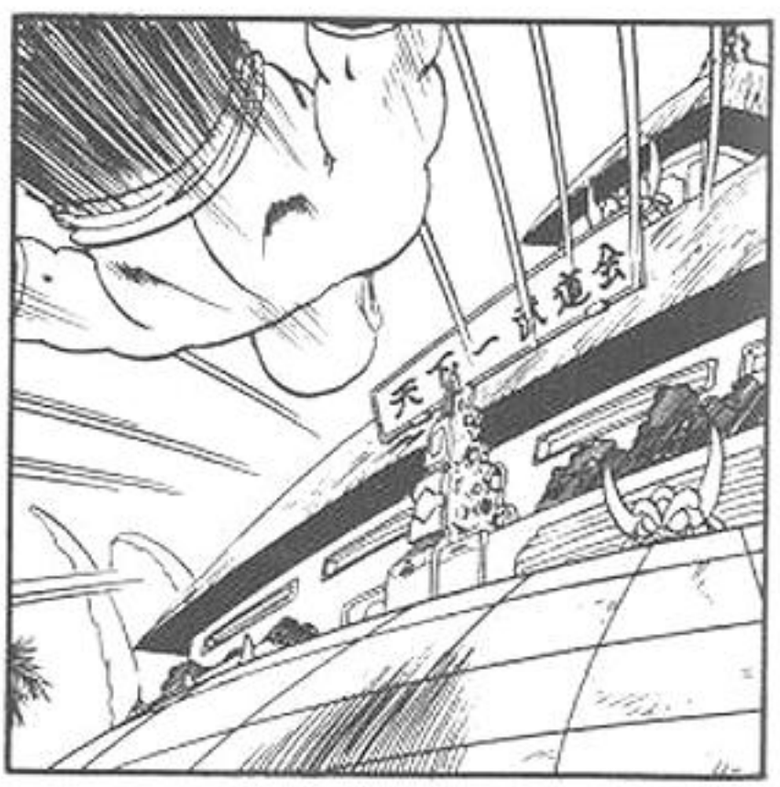

자,
와라!
기대해
보지!






五五力




天下一武道会


욱!!
퍽
엉
퍽


르….


기….
……




안 할래!


에….
네….

타
타

……

이번 공격은
꽤 충격
받았지?

헤헤헤~!

크윽….

너 같은 녀석이
있었다니….
나 정말
너무너무
흥분된다…!

이런
시합은
처음인걸…!

기,
기쁘다…!

후후….

후….

우승은 반드시 내가 할 거야! 각오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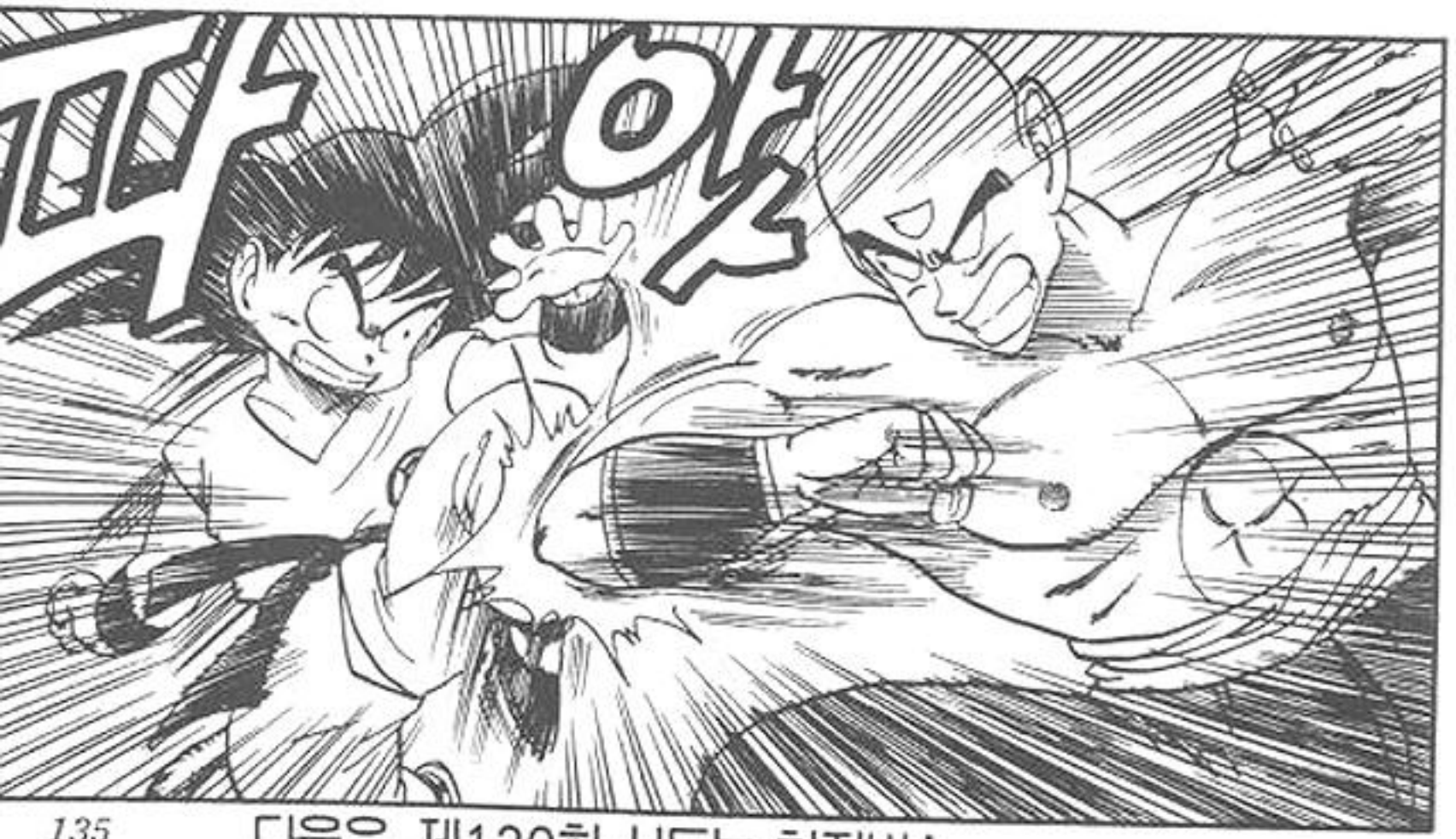
그렇게는 안 되지!

오, 오공 녀석, 바보같이 에네르기파를 왜 안 썼지…?

앞을 내다본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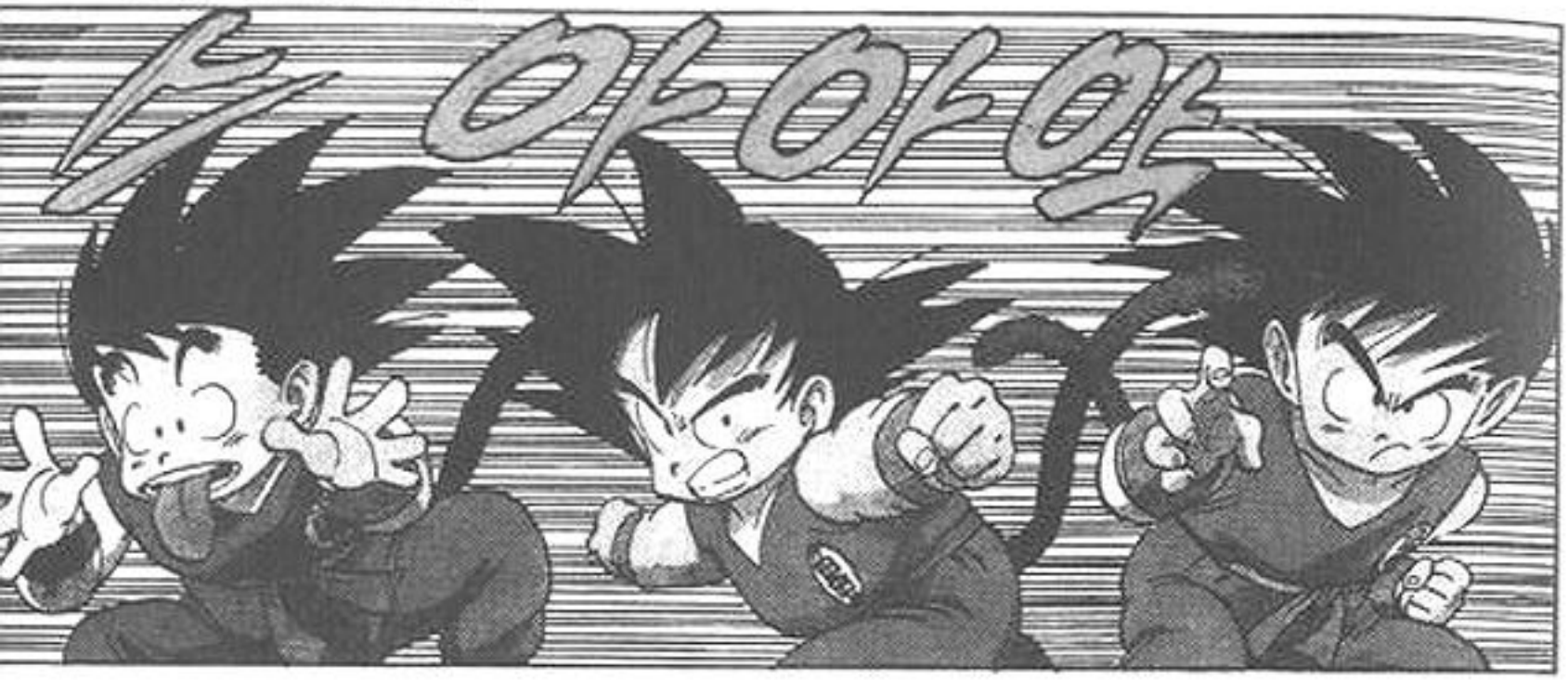
그때 에네르기파를 썼어도 저 녀석은 분명 막아낼 수 있었어….

오히려 쓸데없이 힘만 낭비할 뿐이지…. 시합은 한참 남았으니까…. 오공 녀석, 정확히 앞을 계산한 거야.



다음은, 제130화 서두는 천진반!


우, 우와! 정말 무시무시한 공방전!
스, 스피드가 너무 빨라 우리 눈으론 그 동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핫!
하앗!!


F-OF-OF


지금 내게
잔상권
따위를
쓰다니!
멍청이!!


FUFUFU


그
수법은
안 통해!
위다!!


DRAGON
BALL

안 됐군!!

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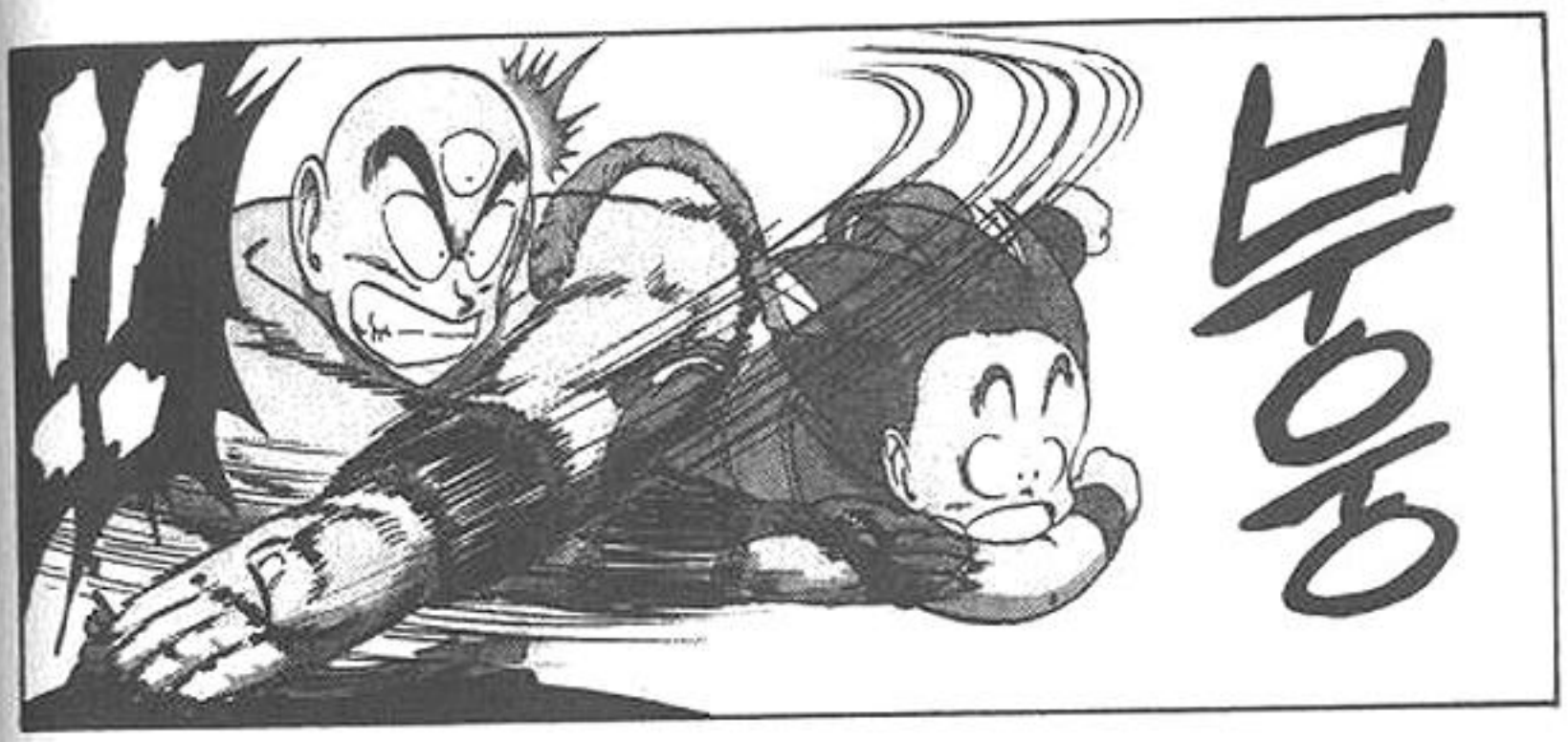
어!?

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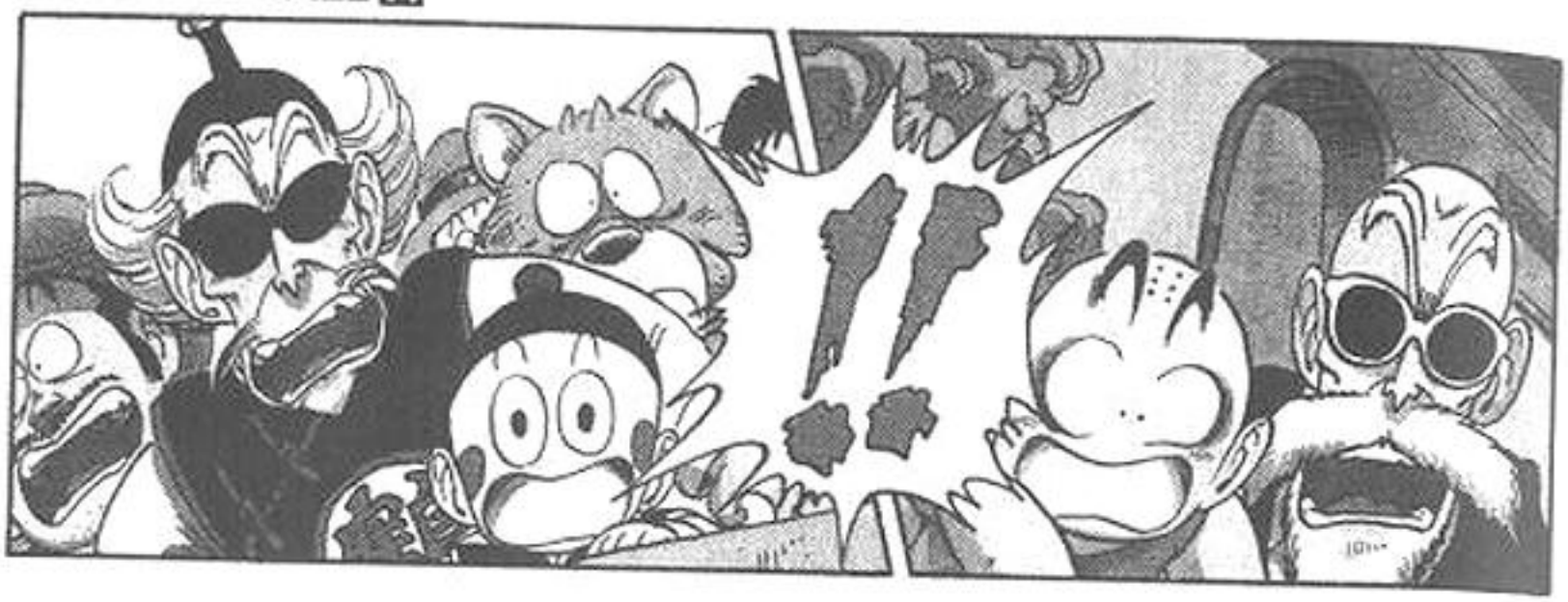
아니!?

걸렸다!!

함정에 또 함정을 팠지롱!!


붕웅


탓!
OH




함정에
함정을 파고
다시 덫을
놓았지롱!


툭싹…
타
탁


너…!
으….
기절
안 했어!?
대단하군…!


으윽…!

가…, 감히 날 쪽팔리게 만들었겠다….

이… 이런 꼴을 당하긴 난생 처음이다….

또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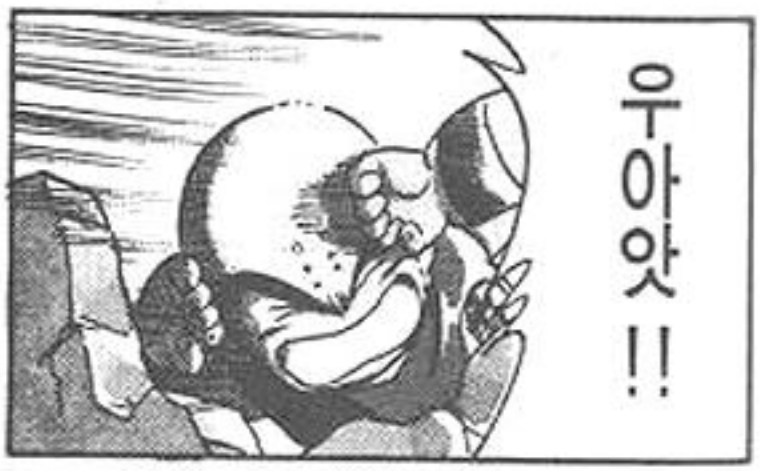
승부를 내자!

장난은 이제 끝낸다!!

태양권!!


HOF


네 눈은
이제
멀었다!!
OF


우아앗!!


또, 또
빛난다!




!!
OH


으가…,
으갸갸….
이럴 수가….


그… 그걸
어디서…?
비틀…
빌렸
지요!


히히~!
선글라스!
아…!


!!


털썩
아앗!
천진반
선수 다운!
다운입니다!


아…!
저…
저 녀석,
어느새…

거북신선 할아버지, 땡큐!

빠른 놈이군.

하지만 잘 생각했다.

와아!

원….

투…, 스리….

와! 대단하다! 오공 씨가 어떻게 공격한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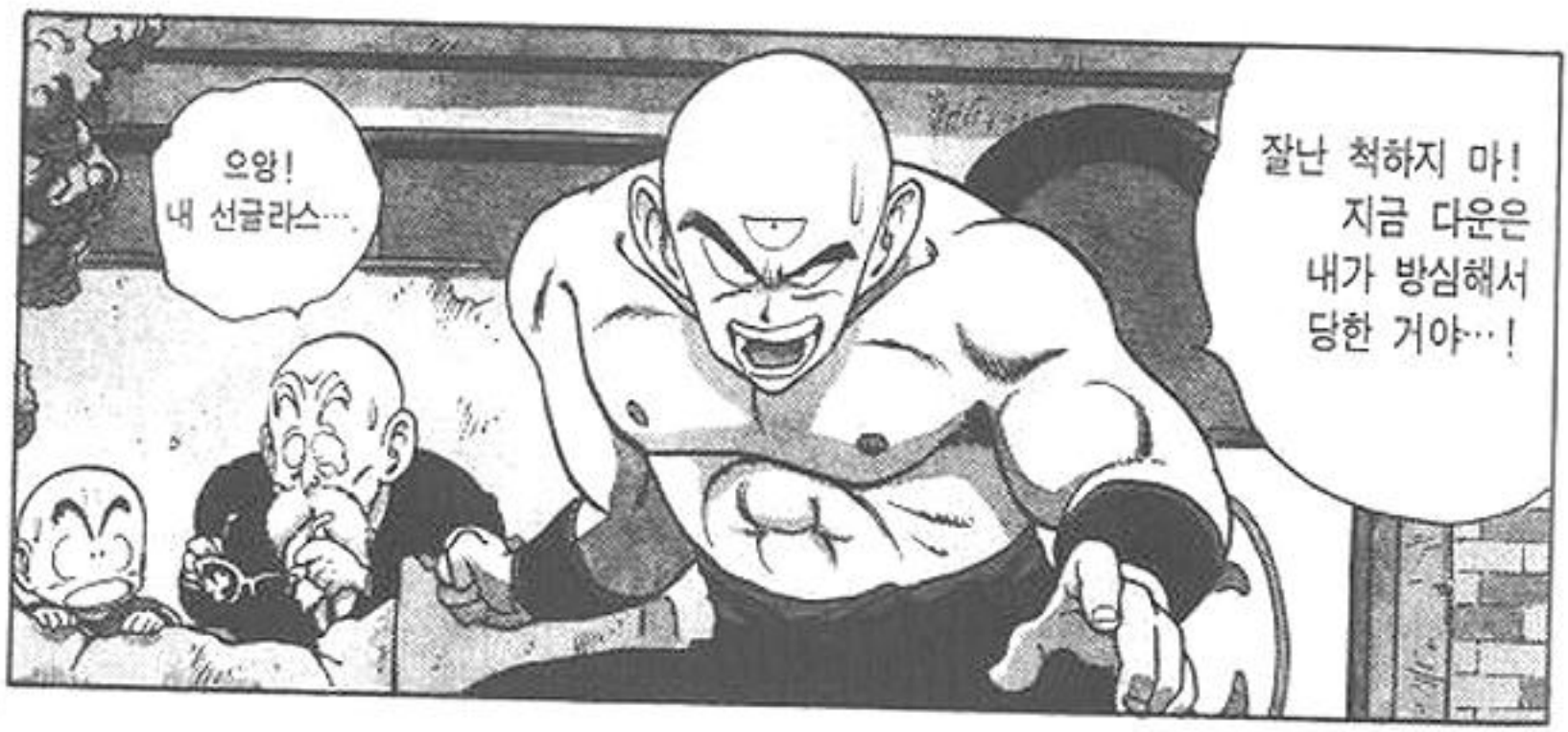
식스…, 세븐….

앗!

어?


너, 정말 장난이 아니네-!
아야야~!


휘익
타닥


으앙! 내 선글라스…
잘난 척하지 마! 지금 다운은 내가 방심해서 당한 거야…!


헛소리 마…, 짜샤…!
그럼 이번엔 진짜 다운 시켜주마!


……

그, 그야 평범한 눈이니까!

그런데…, 눈매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어….

그, 그렸나…?

헤에~! 저, 무천도사 님이 선글라스 벗은 거 처음 봐요….

예, 예!

지금 무슨 헛소리니! 시합이나 잘 봐두란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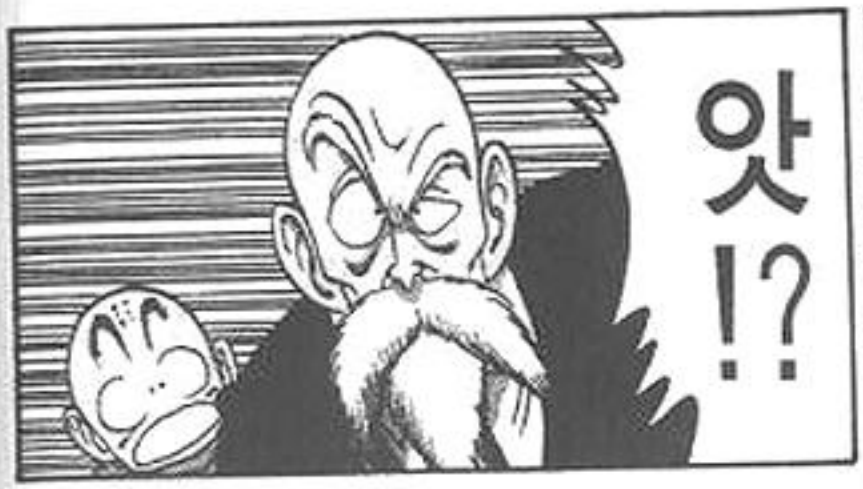
타앗!!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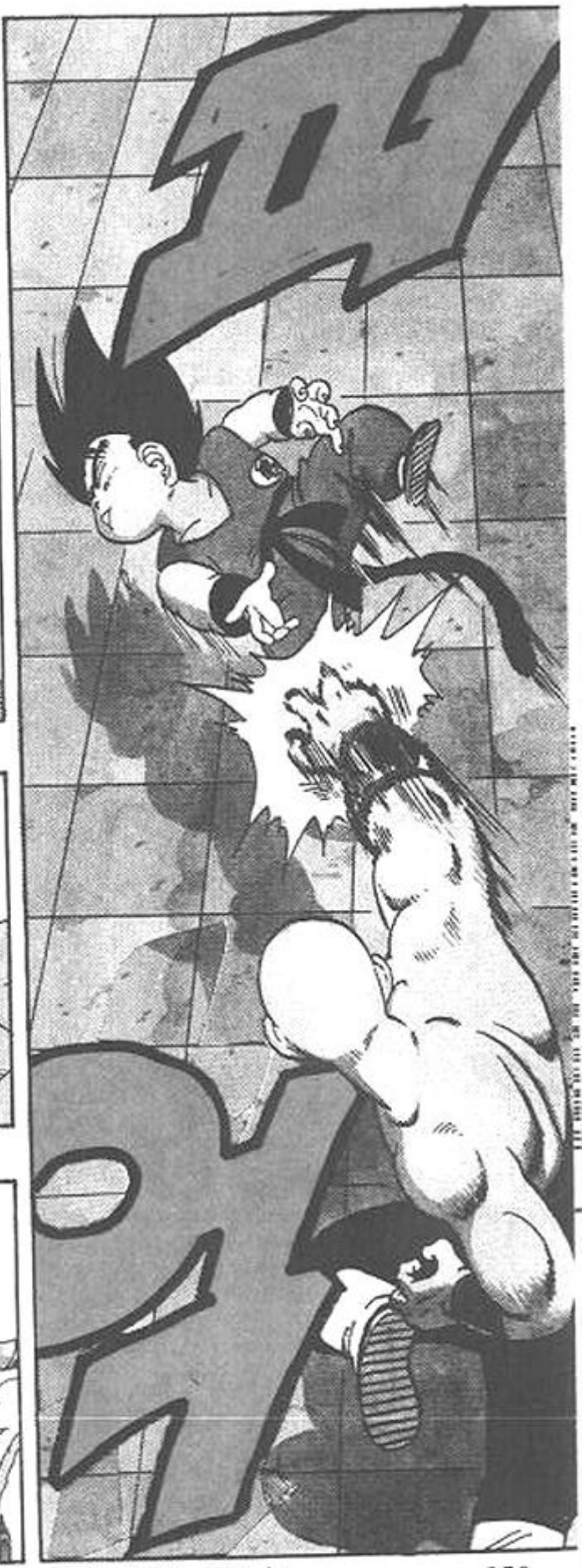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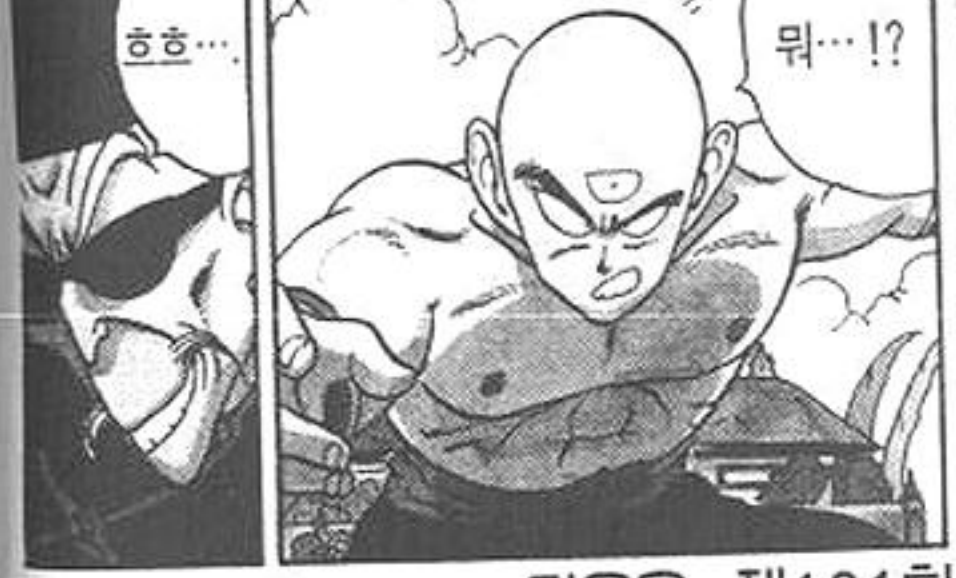

허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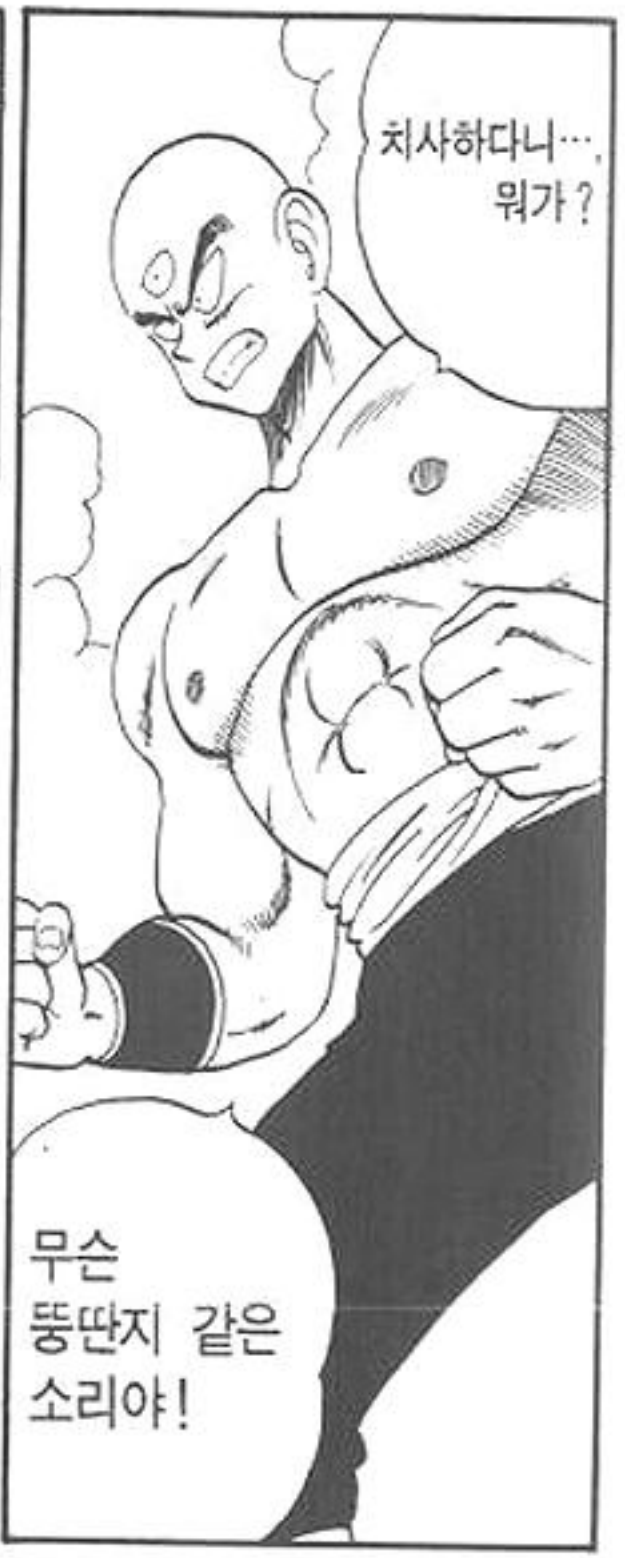




다음은, 제131화 천진반의 고뇌!


치사한 수법을 쓰다니…!
나쁜 놈…!


오, 오공이 왜 저러지…?
……


치사하다니…, 뭐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핑계대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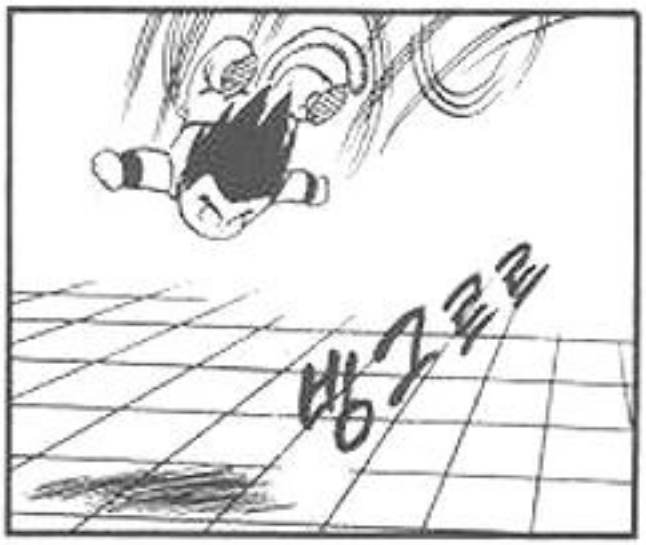

학도사, 치매 노인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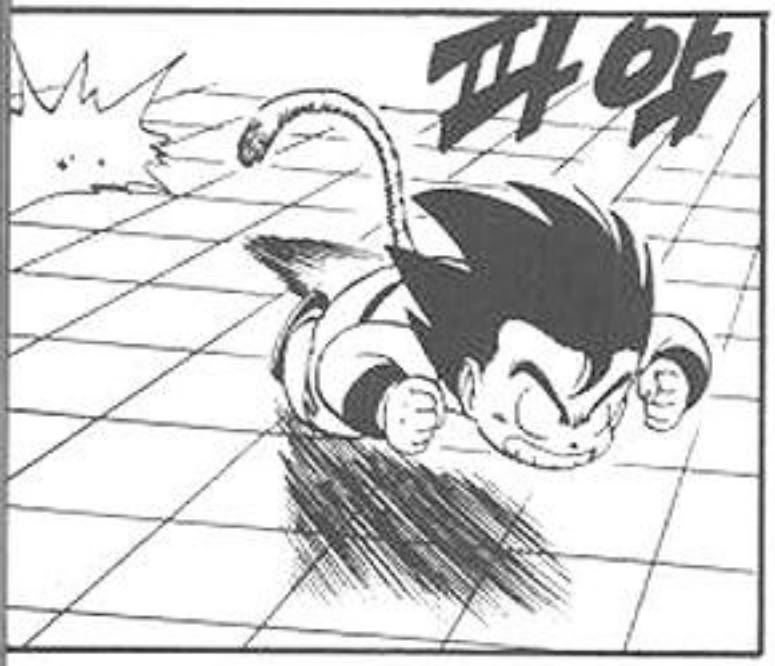

좋아!!
또 해볼 테면 해보라구!
파앗
쉬
쉬


팟
해라, 차오즈!
아, 예!
!!
멈칫...
퍽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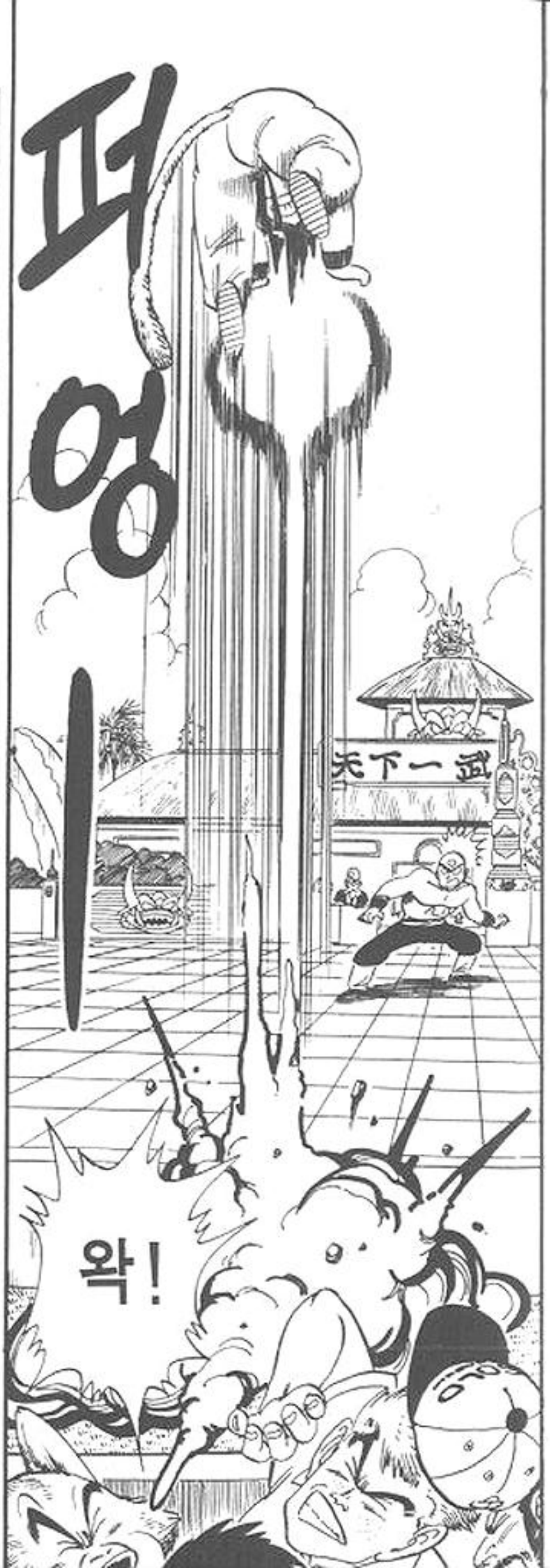

쿠웅!
쾅
아앗!! 떨어진다!!
에네르기파!!
쾅


와!
장외패를
겨우 겨우
모면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그로르


파앗


끈질긴 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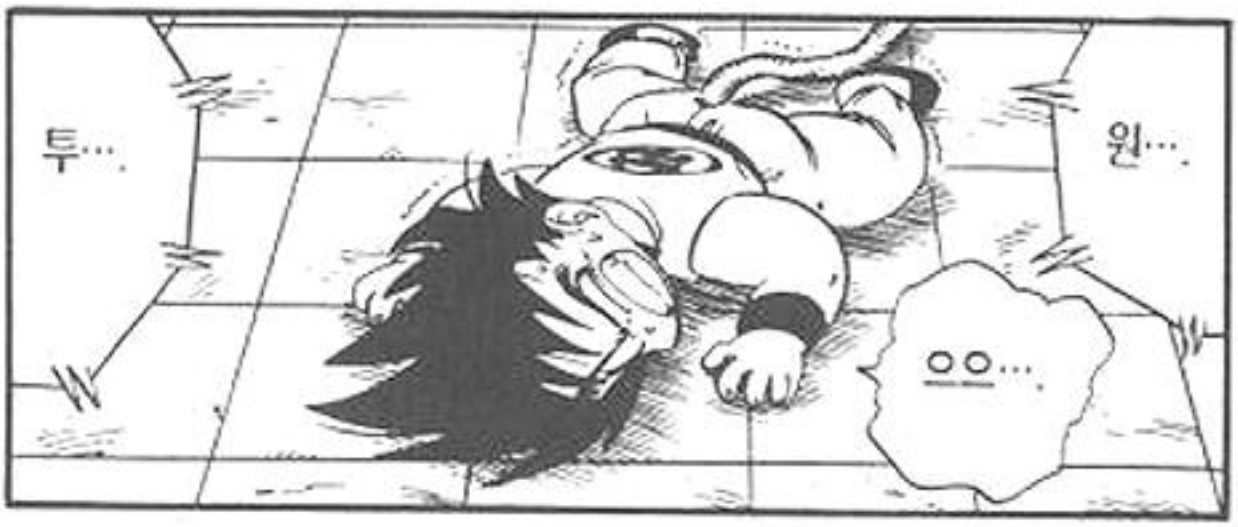

퍼엉
天下一武
왁!


해라!
욱!




드디어
다운
입니다!
우와-!
갑자기
이상해진
손 선수!


퍽


투…
윈…
으으…


서…,
설마…!


그래…,
그렇게
된 거구나
…
……


지금이다!
죽여,
죽여버려!

뭐!?

주술을 풀어!

그…
그래….

차오즈…,
네 장난이었어….
아까부터….

파이브….

난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아!

식스….

주술을 풀란 말야, 어서!

명령이다! 죽여, 죽이라고!

바보같은 놈! 승부 따윈 상관없다! 그 꼬마를 죽여!

사… 사부님….

천진반!

에이트….

세븐….


조~~~…용
예…? 뭐… 뭐를…?
이…이게 대체 무슨…?
앗! 손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깐, 오공!

이 자식!!

엑!?

천진반…, 네가 나를 거역하다니….

스승인 내 명령을….

저… 저는 단지….

이 시합만은 제 힘껏 싸워보고 싶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실력으로 반드시 이기겠어요….

나는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그리고…, 나는 이제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면 이 시합의 우승은 없어집니다….

이… 이놈! 멍청이 무천도사한테 세뇌당했구나…!

……?

뭐…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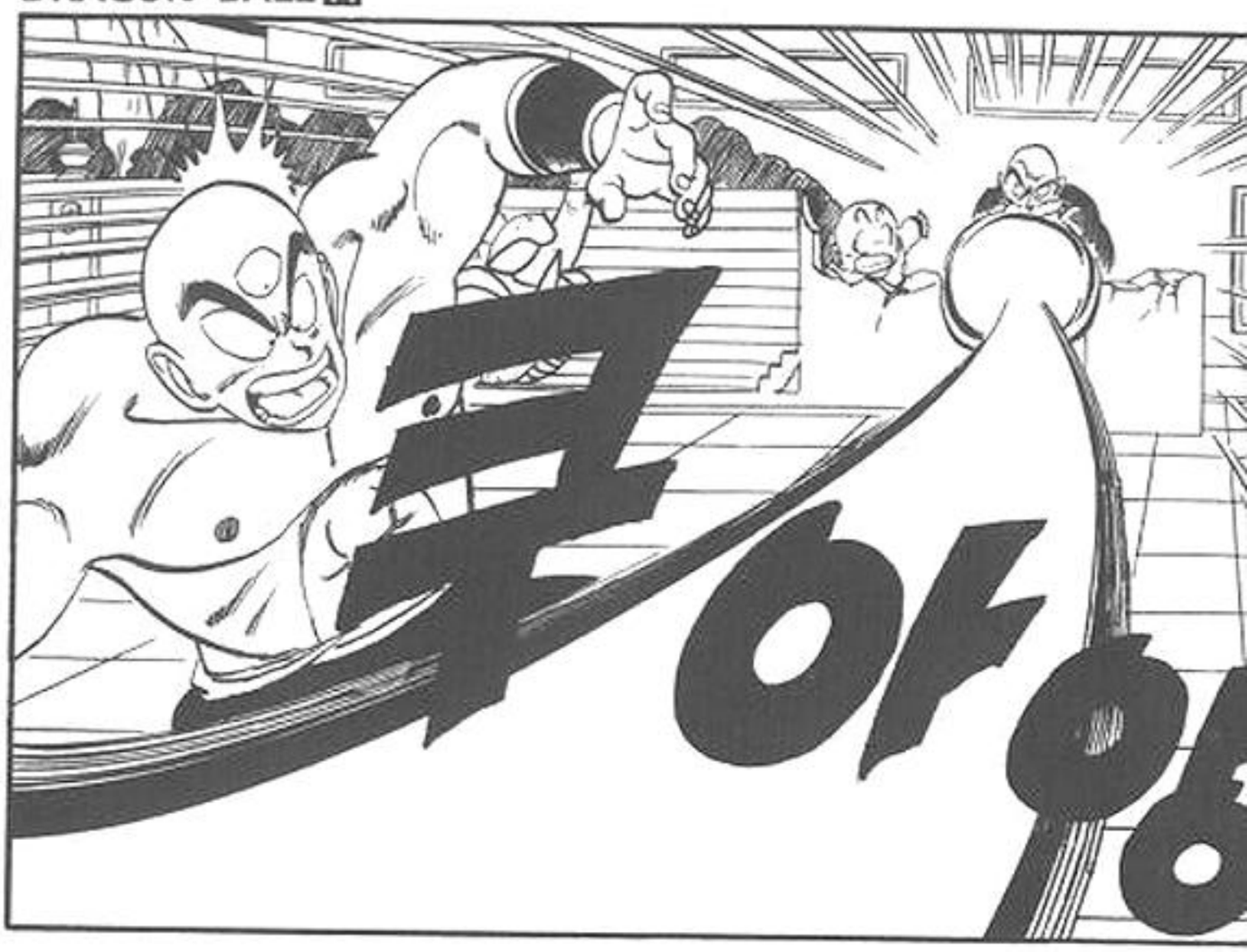
차오즈, 두 놈 다 꼼짝 못하게 해!

이놈! 그렇다면 두 놈 다 죽여버릴 테다!

지금까지 널 가르쳐준 은혜를 잊다니…!

차오즈!!


꽈악
…!
저… 저도 이 시합을 끝까지 보고 싶어요….
처…. 천진반이 처음으로 마음껏 싸우고 있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놈은 누구든 죽여버린다!
차오즈!!
비켜!
파ー!!
OK


콰아앙


피이잉!!


이야앗!!

아아아악!

...엉

저놈은 이 정도로 죽을 약자가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다!

둘 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시합해라!

자, 이제 방해자는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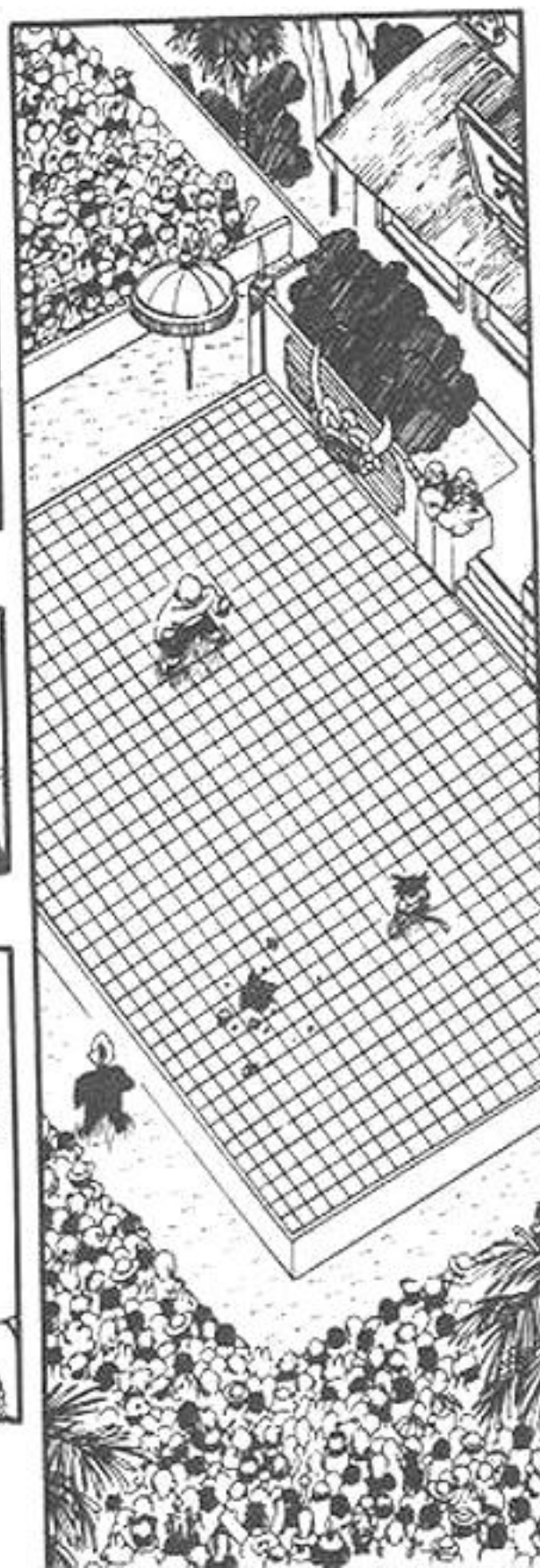


다음은, 제132화 학도사의 영원, 기공포!!

스승을 배신해 버렸어….
하지만 이제 뭔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더이상 학도 거북도
원수도 상관 없다!

널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시합에 이기기 위한
싸움에만 온 힘을
다할 테다!

너, 조금은
착한 애가
됐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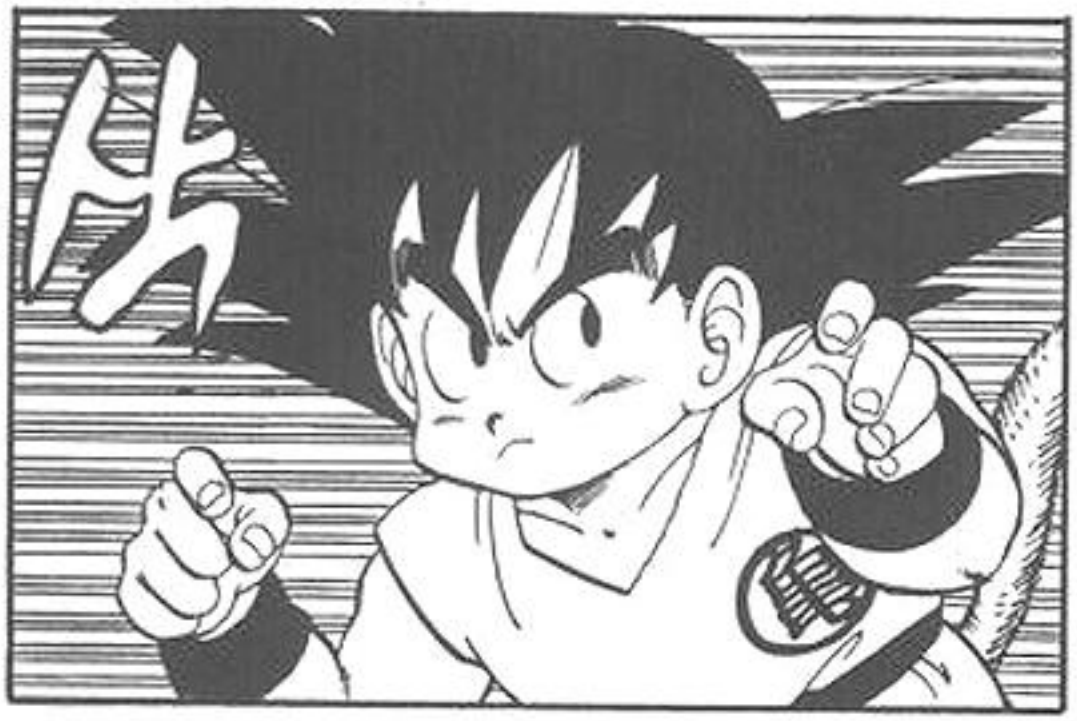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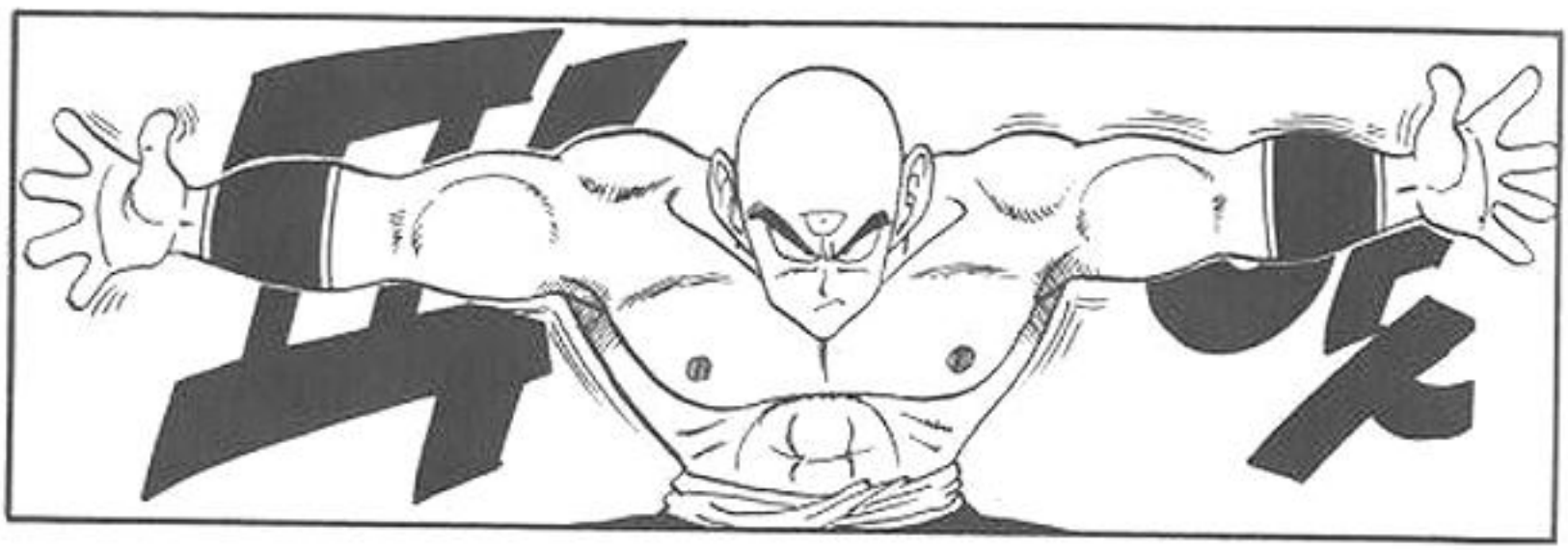
뭐,
뭐야…?

후후….

각오해라!
이번
공격으로
끝장을
내버릴
테니!!

이렇게 된 이상,
이 시합은
절대로 질 수
없다…!


!!
앗,
천진반이
그 기술을
쓸 생각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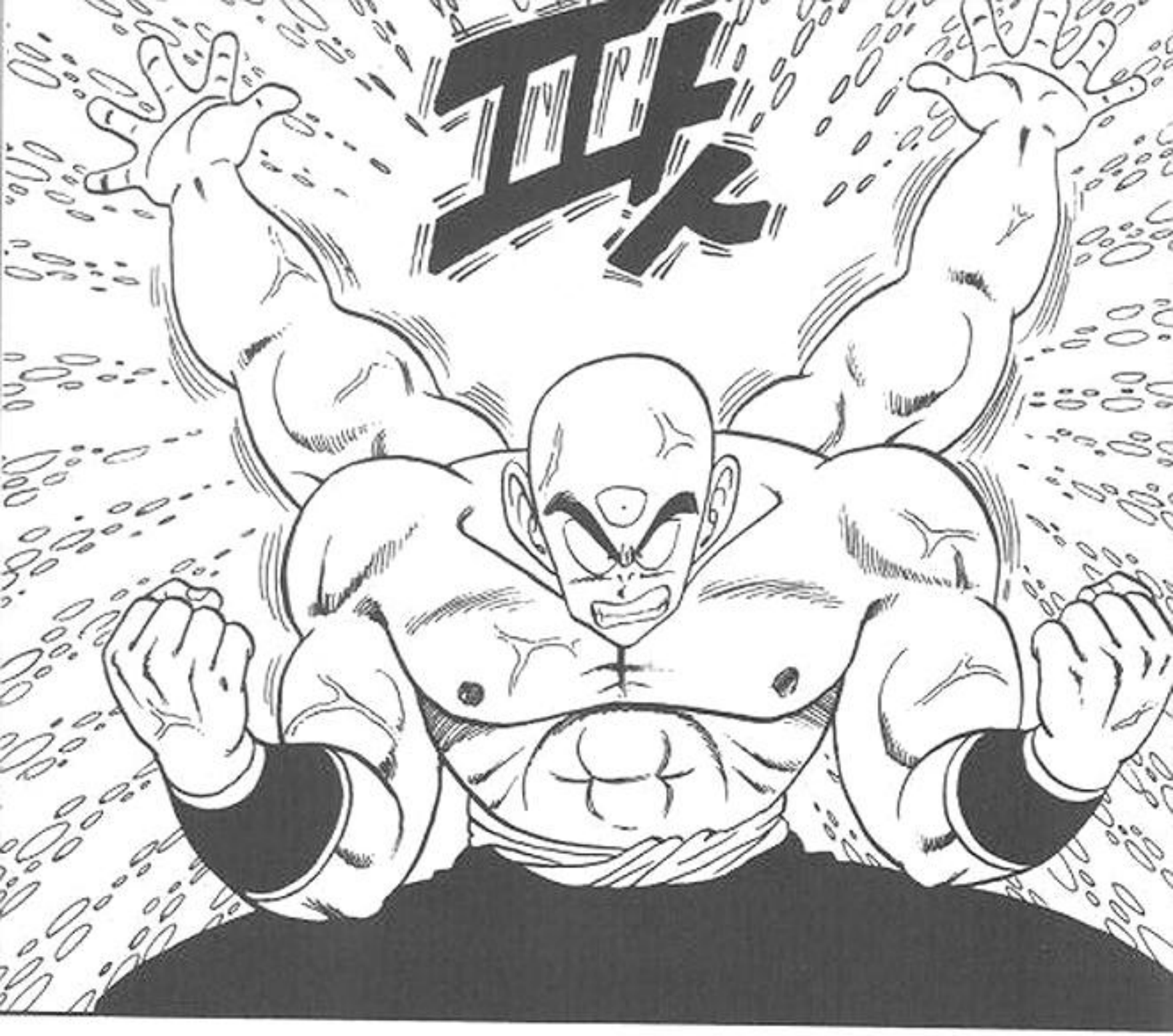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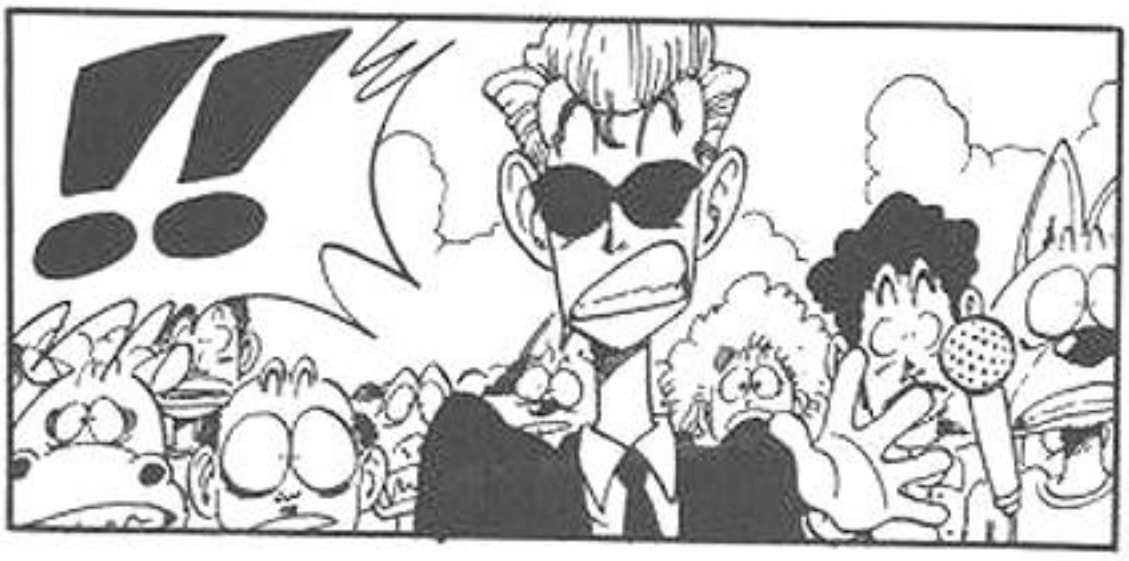

응가
마려운가
…?
아니,
뭐지!?


!?
앗,
왜 저럴까요?
천진반 선수,
갑자기 괴로운 듯
인상을 씁니다!!


우우우
우우…!


우우욱…!!
아니, 기공포가 아니야!
사요권이다!
이야앗!!
벌떡
엑!?
으으으으…


끄아


!!


이익!?


아니!
손이…!!

소, 손이 네 개가 됐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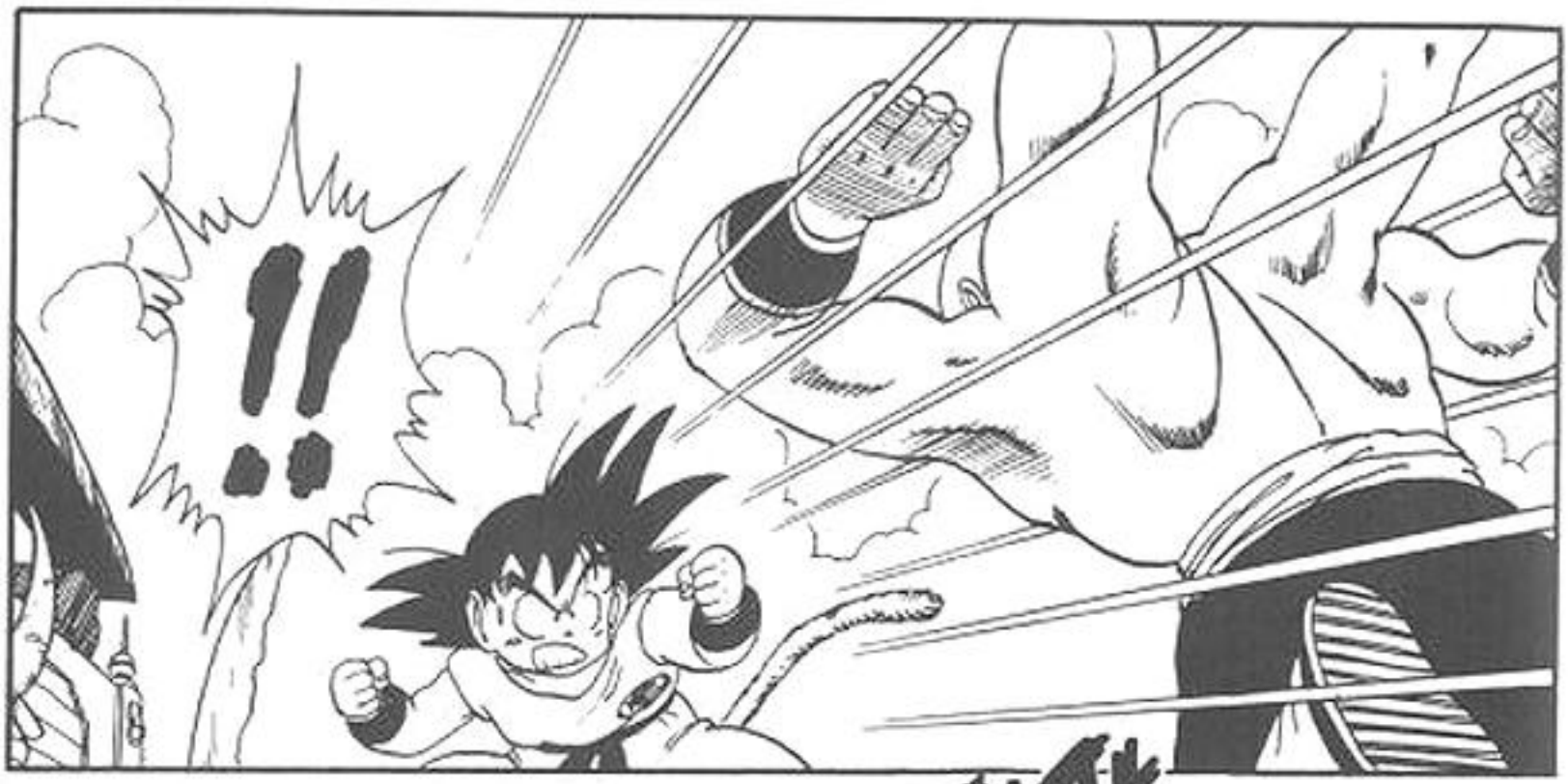
지, 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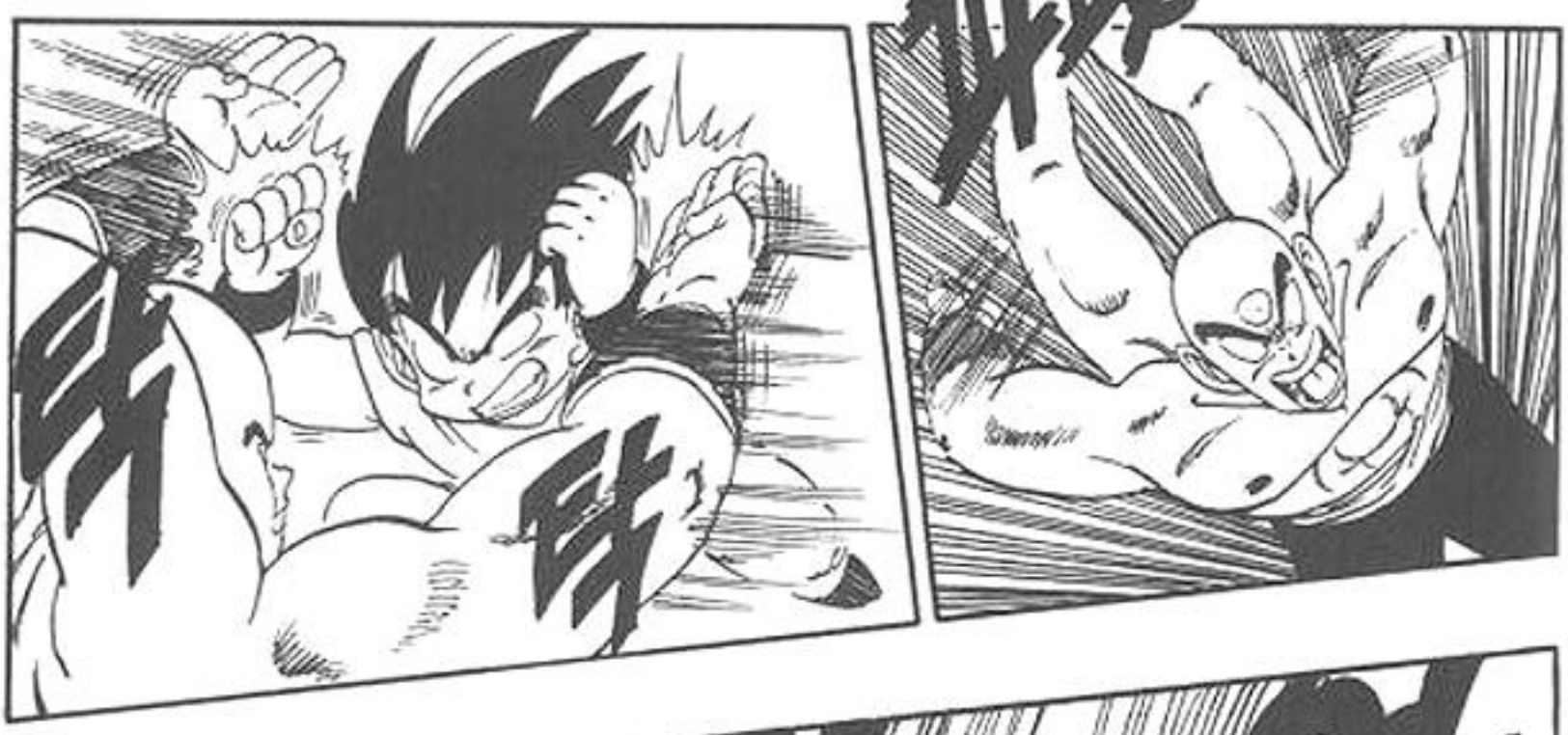
크흐흐…, 각오해라!

이제 두 배나 많은 펀치를 먹여주마.

하앗!!

이,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천진반 선수의 팔이 무려 네개로 늘어났습니다…!! 세상에나! 마치 마술 같습니다!


!!


ドド


ゴゴ
ドド



아야야~!
삭
삭
아아아아아!!
아앗!!


으…
으윽….
문자 그대로
손도 발도
못쓰겠지!
으하
하하…!
으윽!!
휘랙
씨익
크윽!!
헤헤!
그치만
꼬리는
쓸 수
있당~!


제… 제길…!
너한테 꼬리가 있다는 걸 깜빡 했구나….
네 팔이 4개 라면….
난 8개다!
아니!?
!?
오, 오공이 어떻게 저런 것을!!
후후후! 팔이 8개나 될 리가 있나.
재빨리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짜자자잔!!


파아
파아앗


파바바바앗!!


파아


파아

내… 내가 저런 꼬마한테 당하다니…!

큭…!

탁!

이 정도로 내가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대단한 놈이구나. 이건 진심이다….

과… 과연….

어차피 육박전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세도 못당하겠군….

슥-----

팔 4개는 이제 끝이니?

뭐야?

이 기술을 정면으로 받았다간 아무리 네가 강해도 틀림없이 죽는다!

충고한다!

그러니까 피해! 알았어? 피하라구!

널 죽이고 싶지 않아!

서…, 설마…!

이, 이상한 허풍을 떠네….

피하라니 …?

뭐?

그… 그게 뭔데?

그만둬, 천진반! 죽고 싶냐!?

여, 역시 그렇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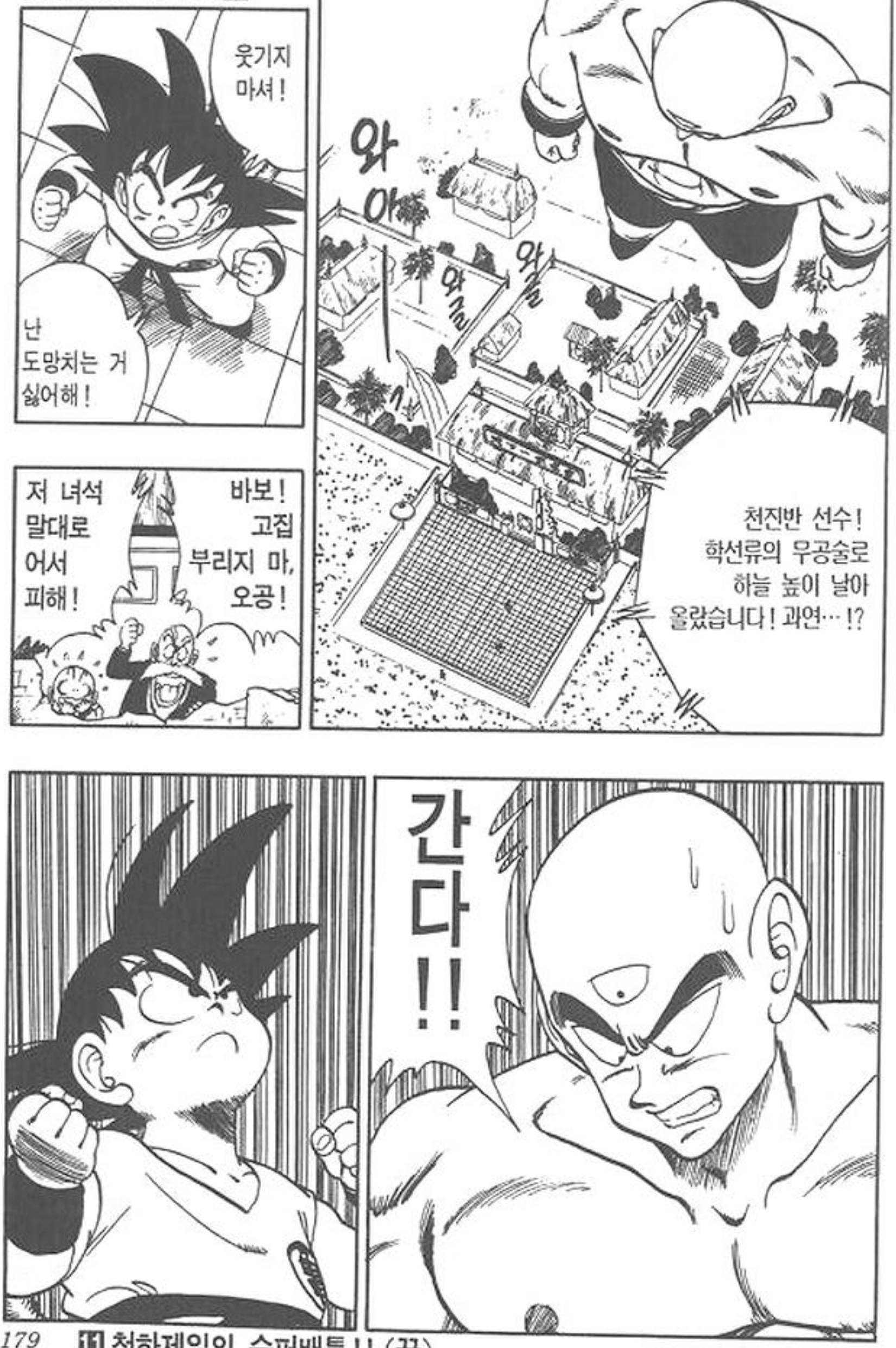
안 돼, 천진반!

기공포다!!

무, 무천 도사님…, 도대체…?

저… 저 녀석, 기공포까지 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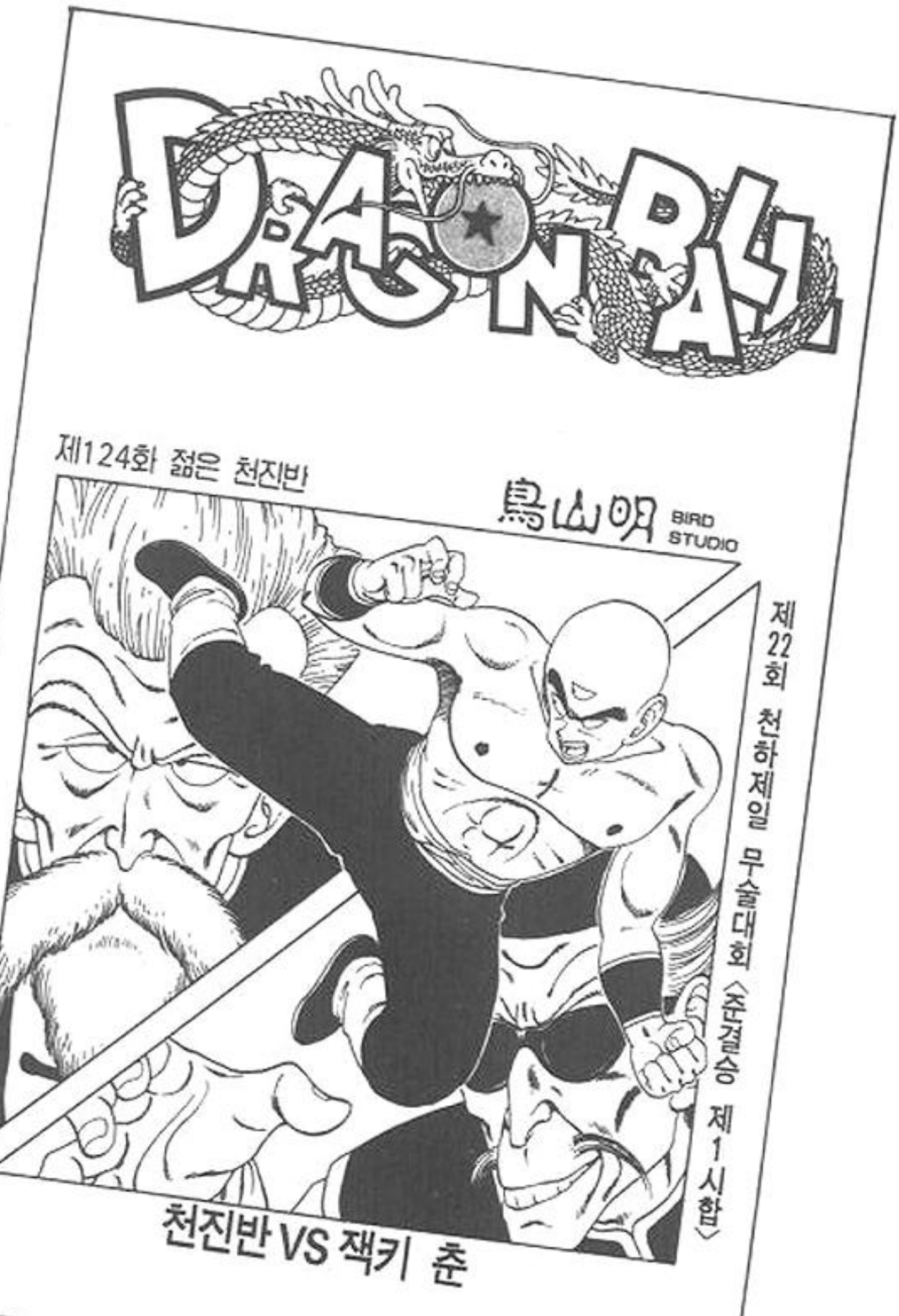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기술이지…. 에네르기파보다 몇 배나 강한….
그렇지만,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 소모도 심해서 죽는 일조차 있다는데…. 죽지 않아도 틀림없이 수명은 줄어든다….
확도사, 이놈이….
가르치지 말아야 할 기술까지….
안 돼! 그만 둬!
걱정 마, 풀 파워를 쓰는 건 아니니까.
나도 죽진 않아….
부———웅
알았지? 꼭 피해야 한다!
안 돼!
그만둬!!
무, 무슨 기술을 쓸 생각일까요 …!?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 습니다만…!



11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끝)

표지 페이지 대특집X

♬짜자자자자~잔! 드디어 10회째를 맞이한 표지 페이지 대특집!!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명승부를, 소년 점프 연재 당시 그대로의 표지로, 되돌아보시도록~!!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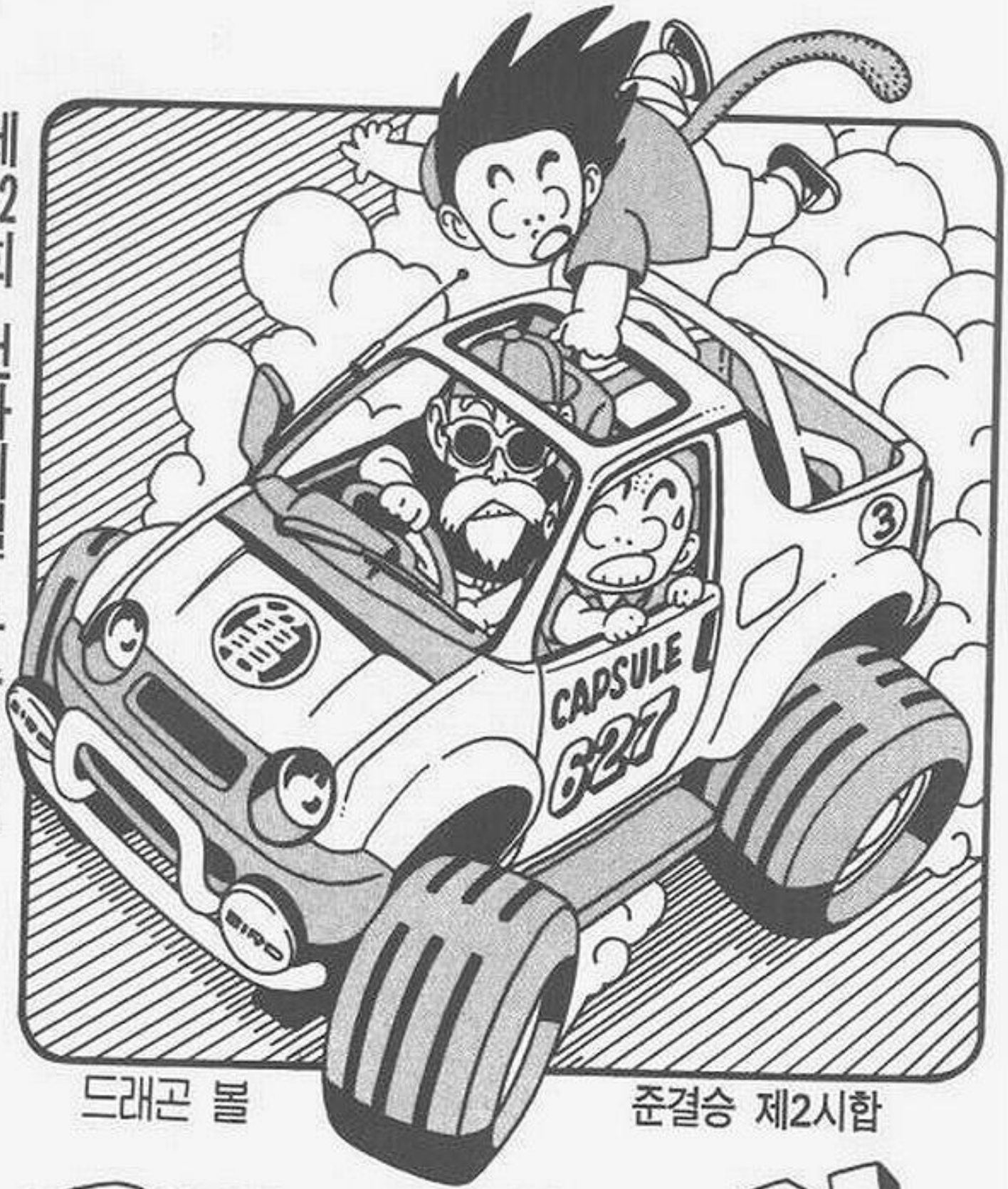
제126화 손오공의 파워!!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준결승 제2시합〉



鳥山明 BIRD STUDIO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드래곤 볼 준결승 제2시합

DRAGON BALL

제127화 크리링의 작전, 오공의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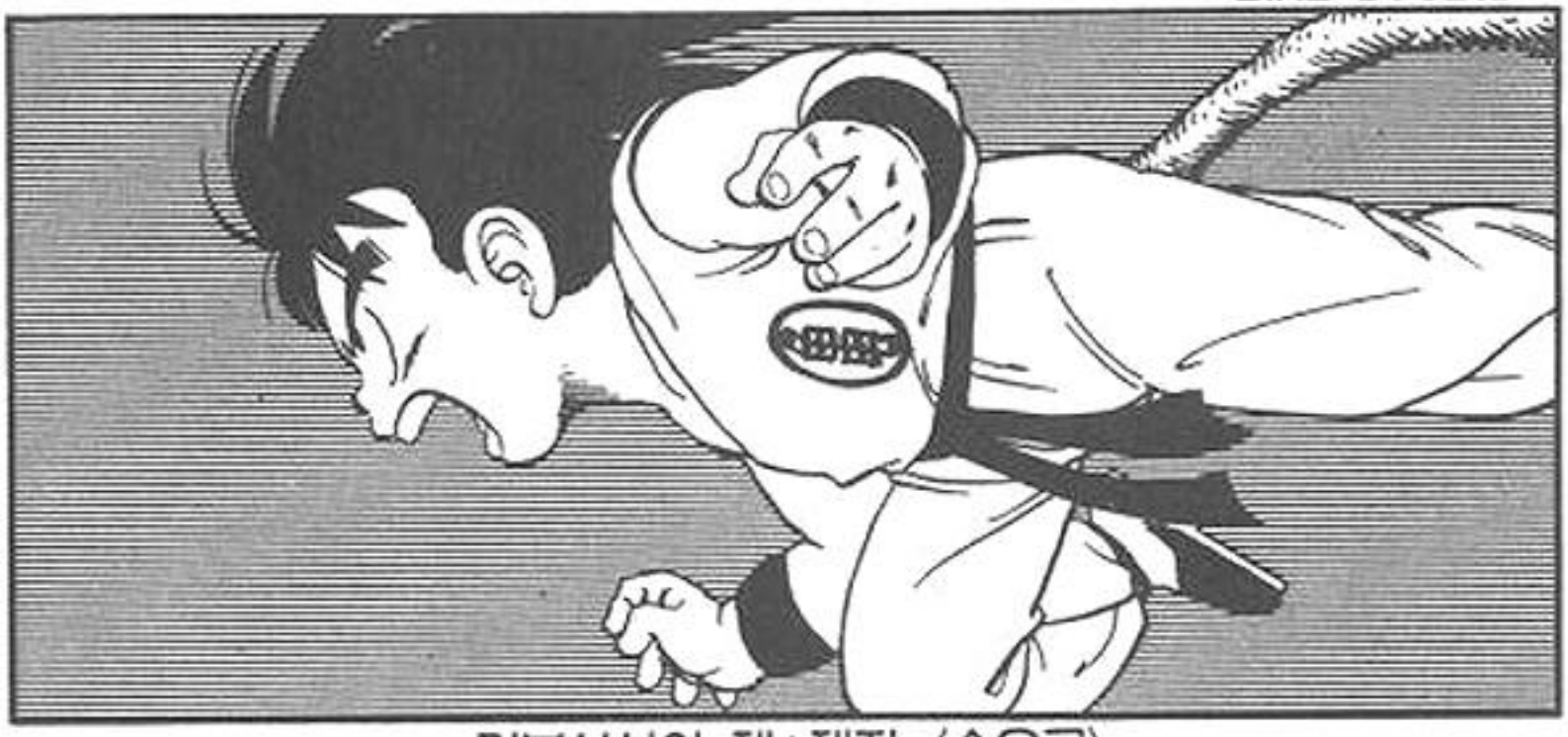
鳥山 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28화 천하제일의 슈퍼배틀!!

鳥山明
BIRD STUDIO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결승전〉



거북신선의 제1제자 〈손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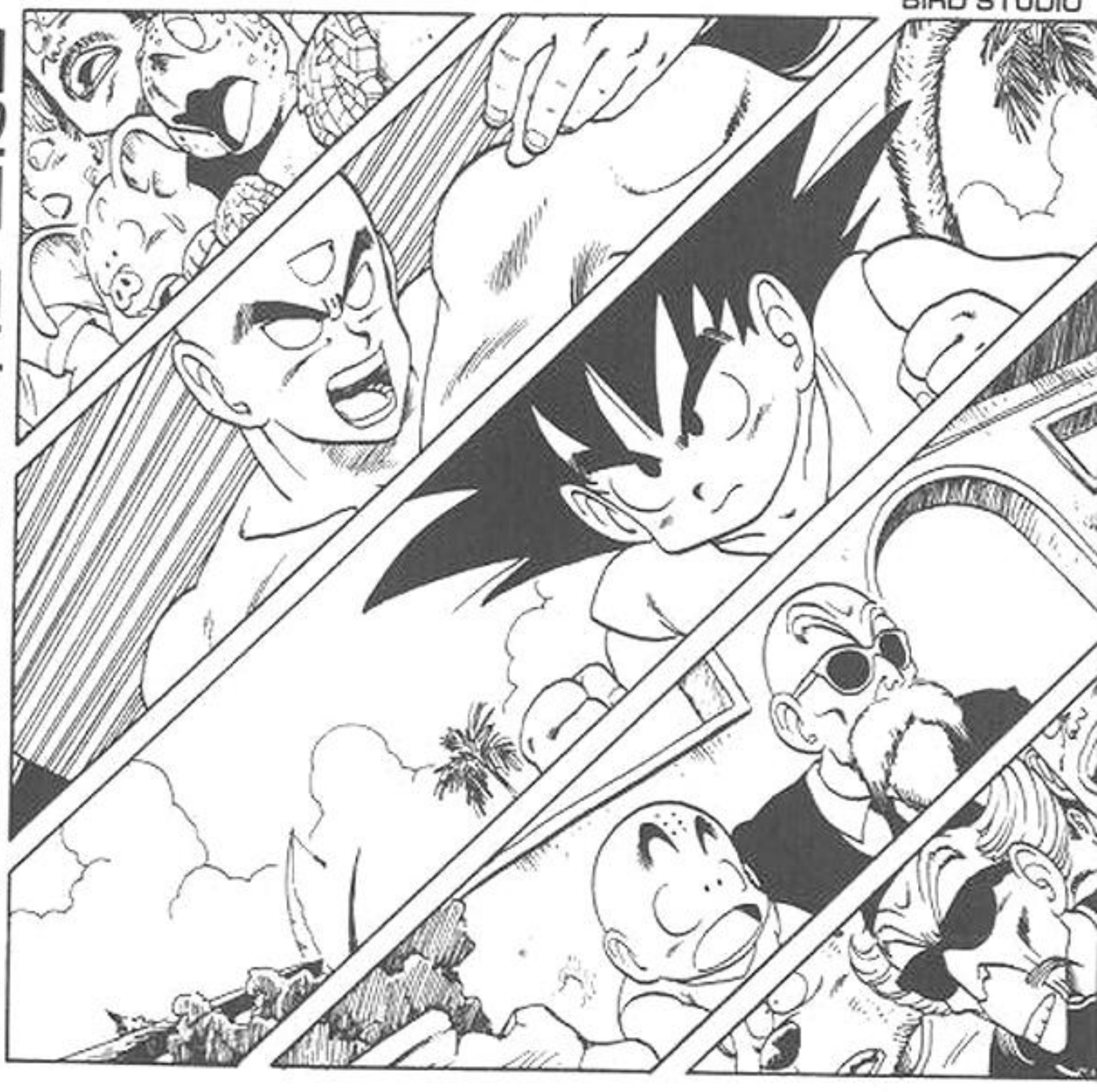
학도사의 제1제자 〈천진반〉

DRAGON BALL

제129화 배구권과 전투 파워

鳥山明
BIRD STUDIO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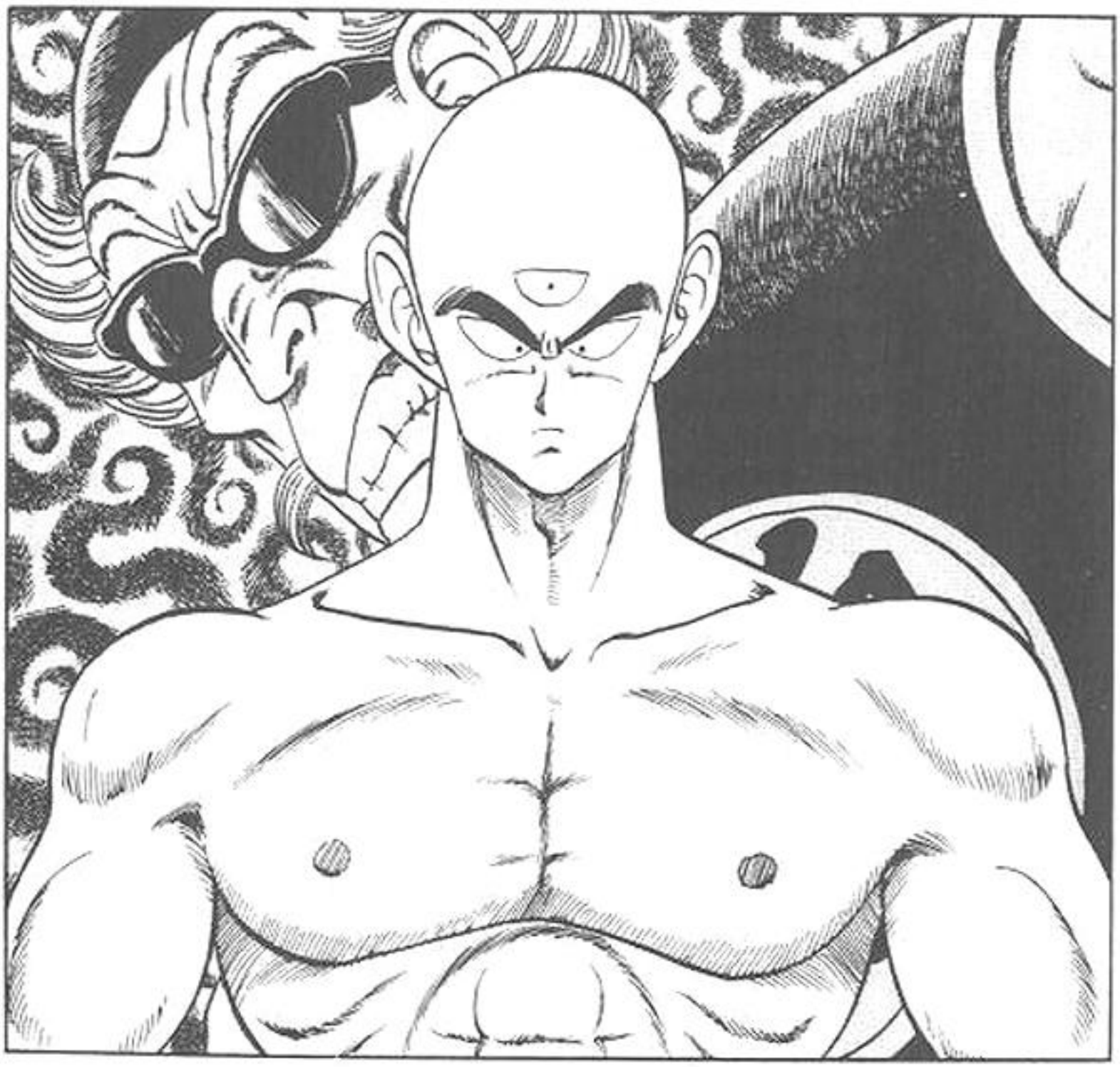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No.130 서두는 천진반!
토리야마 아키라
BIRD STUDIO
673
DRAGONBALL
CAPSULE

DRAGON BALL

제132화 학도사의 염원, 기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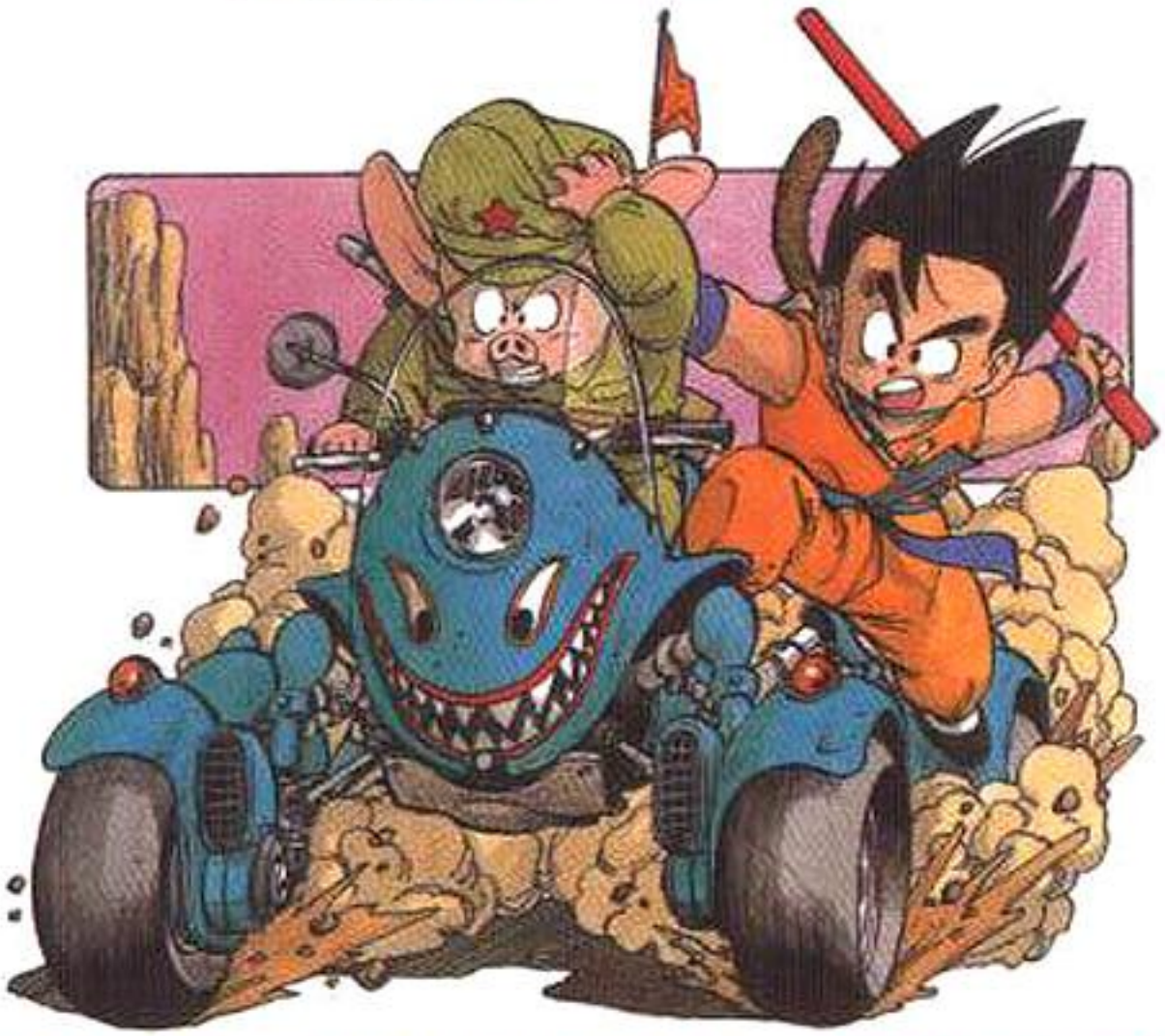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결승〉



鳥山明 BIRD STUDIO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